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은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보았지만, 그녀는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것이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나는 여옥 씨의 행복을 위해서만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현재 나를 대하는 마음은 애당초 떳떳하지 못한 사랑일지도 모른다. 나 같은 거야 훨씬 뒤에 알게 된 사이니까.’

여옥은 교육도 받지 않은 여염집 딸이었다.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오동통한 뺨에 언제나 위협할 듯이 커다랗고 새까만 눈을 갖고 있다. 까무잡잡한 피부색이 오히려 그녀에게 일종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유는 지금의 하숙에 오기 전까지 그녀의 사촌 언니뻘 되는 집에 하숙한 적이 있었다. 여옥은 어느 사이엔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유 또한 그녀의 순정에 호의를 느끼면서, 산 깊은 산읍에서의 단순하고 쓸쓸한 교원 생활 가운데 혼기가 된 아가씨의 불타는 듯한 애정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는 주춤하던 참이었다.—거기에 미연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미연은 여옥이 모든 경위를 털어놓고 흐느껴 우는 바람에 비로소 여옥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미연 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빕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한 사람이지만, 당신은 공부도 하셨고 인물도 좋으니, 아직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미연 씨, 여옥을 불쌍하다고 생각해주세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아니, 유가 어떤 종류의 약속조차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미연도 발을 뺄 수밖에 없었다.

“네. 좋아요. 저는 본래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누가 저런 시골 교사 따위를 상대한답니까?”

사랑하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슬픔이라기보다, 그것은 처음부터 사랑해서는 안 될 슬픔이었다. 아니, 그보다도 지금의 미연은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자신을 속여야 하는 비참한 입장에 있었다.

미연은 불을 뿜는 듯한 유의 사랑 고백에 애가 끊어질 듯한 심사이면서도 차분하게,

“저도 한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 외에는 지금 내 몸둘 곳을 상의할 상대는 없다. 내 마음 가는 데까지 당신을 사랑하자. 그렇게 마음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저는 제 자신의 경솔함을 깨달았어요.”

미연은 눈시울이 빨갛게 뜨거워져 오는 것을 느꼈다. 유해성은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아픔을 묵묵히 참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숨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런 이상 두 사람은 각각의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침 아버지께서 친구분한테 쓴 편지도 갖고 있고, 당신도…….”라고 말을 꺼냈지만, 미연은 곧 말은 다른 데로 돌렸다.

“당신도 지금의 제 기분을 이해하시게 되면, 분명히 제게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든 다시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는 힐끗 유의 얼굴을 훑쳐보았다. 유는 일종의 적의조차 느껴지는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네.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저는 경성으로 나가서 조용히 상(喪)이 끝나기를 기다릴 생각이예요. 그동안 또 나오겠지요. 가을쯤에는. 그때까지는 유 선생님도 좋은 분을 찾으세요.”

미연은 그렇게 농담도 아니고 진지한 얘기도 아닌 것을 말하기도 했다.

“그만 두세요! 당신은 저를 비웃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아무리 도시로 가려 해도, 저는 당신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도시로 나가야만 당신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저도 기쁘게 그러시라고 하겠습니까만.”

“그래요. 지금의 제겐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적어도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그 증거를 보여 주세요!”하고 유는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증거 같은 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미연은 한 마디 한 마디 알기 쉽게 설명하듯이,

“그 증거는 저만의 것이지요. 그것은 저 이외의 사람에게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미연은 평생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한 여옥과의 약속을 위해서도 지금은 자신이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자칫 유의 애정에 완전히 지게 될 것 같은 미덥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계속 채찍질할 생각에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사람의 무지한 동성(同性)을 슬픔의 밑바닥에 처박아 넣고 싶지 않은 도의심(道義心)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여옥의 고백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기도 했다. 또 순박함 그 자체인 여옥이 함부로 행동하는 법은 없었다. 설령 유가 가까이 다가오는 여옥에게 허물없이 말한 것을 여옥이 굳은 약속처럼 믿고 있는 것이라 해도, 그것은 유의 죄도 아니고 여옥이 제멋대로여서도 아니다.—그녀의 무지(無智) 탓인 것이다.

“네. 유 선생님.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계속 추궁을 받는다면, 저는 제 속을 뒤집어서 보여 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지요. 제게는 이미 당신에 대한 애정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것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 당신도 그다지 기분 좋을 리 없고, 저도 쓸쓸해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미연은 할 이야기를 다 마치자 비로소 소름이 끼쳤다. 이윽고 격한 오열에 사로 잡혔지만—

“미연 바보! 배반자! 사기꾼…….”

유해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승합버스에서 내리자,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여옥이 맹수처럼 덤벼들었다.

“뭘, 바보 같은 여자라고! 너야말로 거짓말쟁이 아니냐!”

유해성이 구두 끝으로 여옥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자, 여옥은 새된 비명 소리와 함께 털썩 쓰러진 채로 부그르르 거품을 뿜어냈다.

“휴, 다행이야.”

— 꿈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미연은 무심결에 이렇게 내지르고 말았다.

“꿈을 꾸셨군요.”

경성에서 회사 지점장을 하고 있는 아들의 결혼 상대자에게 경사가 있어서 도와주러 간다든가 했던 내지인(內地人)노부인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네…….”

미연은 얼굴이 붉어져, 말을 다른 데로 돌렸다.

“지금 몇 시쯤 되었지요?”

“글쎄요. 이제 곧 날이 밝지 않겠어요?”

“이런, 부끄럽게도. 그럼, 제가 완전히 잠이 들어 버렸군요.”

“필요. 당신은 먼 길 가느라 피곤해서 잠이 든 것뿐인데 뭐가 부끄러울 게 있어요? 오히려 이 총각처럼 한 숨도 자지 않는 게 이상하지요.”

그런 미소를 대하자 옆에 있던 청년도,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는 낮에 배에서 폭 자 두었거든요.”하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웃었다.

“총각, 당신은 안 되겠네요.”

부인에게 그런 얘기를 듣자, 청년은 진지한 얼굴이 되어,

“뭐가 말입니까?”

“옆에 분이 시간을 알고 싶어 하는데,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도.”

미연이 얼굴을 붉히며, 아니에요. 뭐, 하며 혼자 곤란해 하고 있자, 청년은,

“그만, 깜박했습니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끼어드는 것도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그녀를 향해 머리를 꾸뻑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정각 5시네요.”

그것을 보고 중년 부인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어젯밤 당신이 자리에 앉았을 때부터 든 생각인데, 흰옷은 손이 많이 가겠지요?”하고 부인이 말을 꺼냈다.

“네, 손은 좀 가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요.”

“아, 그게 그래서. 위로 말씀드립니다.”하고 부인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아, 그랬군요. 도리(道理)지요. 그런데 이 기차에도 흰옷 입은 이가 꽤 있군요.”

흰옷이 전부 상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부인은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소리 내어 웃었다.

올봄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했던 청년은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부인은 조선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활기를 띠었다. 풍습, 요리에서부터 예의범절 등으로 이야기가 옮겨가자, 부인은,

“이런 말씀드려서 실례입니다만, 이쪽 분은 대체로 좀 불임성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자 책을 읽고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거기에 대꾸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기질인 걸요. 저희들 사이에

서는 그런 게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범한 백성이 되면, 남의 발을 밟아도 모른 채하는 얼굴을 하지요. 확실히 나쁘기는 나쁘지만, 그 대신 자기 발이 밟혔을 때도 잠깐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지요.”

“네. 과연. 그게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는 동안, 날이 하얗게 새고 5월에 가까운 아침 해가 깊은 안개를 가르며 솟아올랐다.

청기와집

성북(城北)의 구름을 찌를 듯, 북악산의 여러 봉우리가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그것은 흡사 산수화의 병풍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 산 기슭에 시가지의 사람들에 의해 ‘청기와집’이라고 불리어온 고가(古家) 한 채가 있다.

최근 인구 팽창으로 주택가가 점점 고가(古家)의 동남쪽 돌담 아래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아, 이 집이 세워졌을 당시는 풀이 무성한 산속이었을 것이다.

고가는 이른바 조선의 대저택답게 기둥이라든지 대들보 따위가 놀라울 정도의 거목(巨木)으로 되어 있다. 사십 간(間)이나 되는 큰 집인데, 복도에는 하나하나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문은 어느 방이나 삼중(三重)으로 되어 있는데다 격자 모양을 한 장지문으로 되어 있다. 주변은 산림의 연속인 탓에, 상수리나무며 떡갈나무와 같은 잡목림으로 둘러 싸여 있고, 단청의 울타리를 친 천백 평이나 되는 부지에는 노송이 가득 우거져 있었다.

노송들 사이사이로는 복숭아나무 은행나무, 목련, 불두화(佛頭花) 등, 갖가지 구색을 갖춘 꽃나무에, 열 몇 가지나 되는 난과 달맞이꽃 등의 화초가 제각각의 위치에 심어져 있다. 이 모퉁이에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는가 하면, 저 모퉁이에는 오래된 회화나무가 있다. 종려수와 파초 등의 열대식물도 있는가 하면, 뜻밖의 장소에 동백이 눈에 띄기도 한다.

물은 뒷산의 골짜기를 막아서 나무 흉통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것이 큰사랑(舍廊) 앞을 지나고, 육각당(六角堂) 앞의 호리병 박 모양의 못에 고여 있다. 못 근처에는 육각당의 오른쪽과 왼쪽에 버드나무가 한 그루씩. 못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이따금 생각난 듯 불쑥 잉어가 고개를 내민다.

— 아무튼 오래된 절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 ‘청기와집’은 오래된 절이라는 느낌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있는 듯한 고리타분한 느낌이 없지도 않다. 이미 못 주변에 늘어진 버드나무는 푸르디 푸른빛을 띠고 있고 큰 사랑 앞의 벚꽃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도, 넓은 울타리 안은 아직 풀이 무성하고 작년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그대로 쌓여 있어 오래된 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버려진 절이라는 느낌을 준다. 이미 갖가지 화초들이 제각각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지만, 그 꽃도 향기도 주인 없는 버려진 정원에서 홀로 피었다 홀로 흩어지는 스산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훌륭한 집이야. 보라고. 여기에서 성내(城內)가 손에 잡힐 듯이 내려다보이는군!”

마침 그 길이 하이킹 코스이기도 한 터라, 집 뒷산 쪽의 앞으로 굽어진 커다란 바위에서 쉬면서 사람들은 말했다.

“하지만 이 집은 폐가가 아닐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애석한 일이군. 한번 들여다볼까?”

그들이 지저귀는 작은 새소리에 이끌려 얼떨결에 울타리 너머로 발을 들여 놓고 못 위의 정자 난간에 기대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는데,

“누구나!”하고, 주물로 만든 재떨이를 두드리는 소리가 뜰 안에 울린다.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을 달래는 듯한 가야금 곡조가 조용히 황혼 무렵의 산장에 퍼지기도 한다.

“이상한 집이네. 늙은 기생첩이 남편이 늙어 가는 것을 탄식하는 겐가…….”

“아마도 그런 류의 집 같아. 그러나 가엾잖아. 자네가 한번 가서 위로해주라구.”

“나쁠 것도 없지.”

그런 농담을 하고 있는 참에,

“이런 예의 없는! 나가 주세요. 나가!”하고 외치는가 싶더니, 피아노를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우리들은 잠시 청기와집에 따라다니는 시가지의 소문에 귀를 기울여 보자.

“아, 그 청기와집?…….”

증인으로 불려나온 이는 복덕방 영감님이다. 경성의 복덕방에는 대개 영락(零落)한 양반계급이 비집고 들어가 있다. 게다가 그의 가게는 청기와집 동남쪽 돌담 바로 건너편에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일단은 그 앞을 지나가게 마련이다. 그는 언제나 손으로 만든 나무의자를 가게 앞에 꺼내 놓고, 세상 얘기에 흥을 올리거나 장기를 두고, 혹은 담배를 피우거나 한다.

[주] 복덕방이란 가옥과 토지 및 그 밖의 중개업을 하는 곳이다. 베로 된 노렌(상점 입구의 처마 끝이나 가게 앞에 치는 상호가 씌어진 막-역주)을 입구에 늘어뜨리고 거기에 복덕방이라고 먹으로 씌어 있는데, 경성 북부의 조선 시가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저게 예전엔 엄청나게 큰 집이었지. 권 대감(大監, 대신 급의 존칭)이라고 그 늙은 대감이 한번 화를 내면, 낙동강 물도 부그르르 거품을 내뿜었을 정도였고. 엄청난 권세였으니까—지금이야 시가지의 고기집 주인에게도 심하게 큰소리로 호통당하는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무척 유별난 사람이 있어, 탁주 한 사발 대접받자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장안(長安)에서도 손꼽히는 양반이었지만, 세상이 바뀌었지. 바로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청기와집 사람이라고 하면 시가지의 사람들은 고개를 못 들었다니까. 뭐? 청기와집이라는 이름? 거기에도 사연이 있지.”

[주] 장안이란 중국에서 온 말. 수도를 대신 부르는 속칭.

자기가 정다산(丁茶山)의 자손이라고 소개하는 그 노인은, 별컹별컹 탁주를 단숨에 들이키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주] 정다산=이조 중기 유명한 학자.

청기와집은 삼백 년 전의 건물이라고 하며, 원래는 모 대신(大臣)의 산장이었다. 안채만큼은 원래 청기와가 사용되었지만, 심야의 어둠을 틈타 매일 밤 몇 장이나 되는 청기와가 벗겨져 나갔고, 보통 기와가 그것을 대신했다. 그것이 이백사오십 년이나 계속되어 지금의 권 대감이 샀을 때는 청기와가 몇 장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오십 장은 있었지.”하고, 그는 말을 이어갔다.

“나도 이 눈으로 봤다니까.—그게 해마다 두세 장씩 무너져 지금은 차양 모서리에 너댓 장 정도 남아있을 뿐이지. 가운이 기울면 청기와도 사라지는 켜지.”

그가 청기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이 전설이 스민 청기와의 유래는 ‘벗겨졌다’는 용어에서 ‘무너졌다’로 바뀌고 나서 점차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도 비 오는 날에는 귀신이 나오고, 그 못 위의 정자에 소복 입은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훌쩍 훌쩍 운다고 하더구면. 설날 그믐날 같은 날에는 지금도 자주 청기와가 덜컹덜컹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정말입니까?”하고 물었더니,

“정말이고말고. 뭇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 거짓말 따위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매물로 나와 있지만, 당체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니…….”

그러나 귀신 얘기만은 그가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라는 설도 있다.

그가 김 아무개라는 주택 경영자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물로는 나왔지만 살 사람이 전혀 모여들지 않아서,⁶²⁾ 싼 값에라도 사주기만 하면 구전은 들통 주겠다는 밀약이 생겼다는 것이다.

어느 날 밤 청기와집 손님이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비극적인 집인가! 비극이라는 의미가 전형적이로군!”하고 중얼거린 말을 듣고는, 그가 금세 말을 퍼뜨렸던 것이다.

“청기와집에서는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마침 백백교(白白敎)⁶³⁾의 죄상이 세상에 드러난 지 오래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시가지 사람들은 청기와집에서는 뭔가 끔직한 참극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하다는 눈으로 높은 돌담을 올려다 보고는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것은 비극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러나 시가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비극은 아니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 청기와집의 비극(현재, 오늘 아침도 일찍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이 그들의 상상보다도 더한 비극일지도 모른다. 그 비극은 무릇 숙명적이었으므로.

그날 아침도 권 노인의 엄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62) 원문은 買手があまりたかるので이지만, 맥락으로 보아 부정형의 잘못된 듯하다.

63) 백도교(白道敎)에서 파생된 동학 계통의 유사종교의 하나로, 1923년 경기도 가평에서 차병간(車秉幹)이 퇴폐한 민심을 교화하여 광명세계를 실현한다면서 포교를 시작했다. 이후 전해룡(全海龍)이 교주가 되면서 갖은 악행을 자행하여 경찰에 발각된 후 사라졌다.

“모두, 내 방으로 모여라!”

4월의 아침 여덟 시인데도 청기와집은 물속처럼 정적에 싸여 있다. 아침 식사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안채의 처마 밑에 매달려 있는 풍경이 스산한 겨울밤처럼 쓸쓸한 곡조를 연주하고 있었다.

“오늘이 며칠인지, 너희들은 몰랐느냐?”

큰사랑에서 권 노인의 소름 돋는 목소리가 깊은 정적을 깨고 흘러 나왔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네 평 크기의 큰사랑에는 밥 짓는 노파랑 침모, 그리고 몸종을 제외한 가족 전원이 남녀별로 쪽양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례복의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조선 갓을 쓰고 있다. 소학생 손자만이 두루마기에 맨머리이다.

권 노인은 콧마루가 반듯한 도학자형(道學者型)의 가름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할랑할랑한 도포의 넉넉함 속에 감히 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엄함이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눈부실 정도로 새하얀 아름다운 콧수염이 그의 얼굴에 날이 선 백광(白光)을 닮은 일종의 잔인함마저 보여주고 있었다.

“왜 말을 하지 않는 게냐?”

권 노인의 어색하게 덤수룩한 긴 윗눈썹이 씩씩거렸다.

어느 전문학교의 교수인 아들 수봉(秀峰)이 주뻗주뻗 얼굴을 들었지만, 부르르 떨고 있는 부친의 손에 눈길이 머물자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만다.

여자들은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목에서부터 구부러져 꺾일 듯 깊숙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숨소리 하나 내지 않는다.

얼마간 긴 침묵이 흐른다.

“수봉아!”

이름이 불리자, 수봉은 조용히 얼굴을 들었다. 콧수염을 기른 수봉은 미국에서 귀국한 호남자(好男子)다. “예.”

“어떻게 된 게냐. 대답을 해봐. 너는 나이 오십이나 돼가지고, 날짜 지나가는 것도 몰랐단 말이냐?”

“그만, 깜박했습니다.”

살기마저 느껴지는 권 노인의 시선이 물끄러미 아들의 얼굴로 쏟아지고 있다. 아들은 부친의 시선과 부딪치는 것이 두려운지, 얼굴은 들고 있었지만 눈은 내리깔고 있었다.

회초리를 내리칠지 아니면 그만둘지 주저하는 듯한 한 순간이 지나고, 권 노인은 다시 입을 떼었다.

“좋아. 그럼, 인철아! 네가 대답해 보거라!”

“저는 오랫동안 집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고 인철이 대답하려는데,

“도쿄에서는 자기 조상을 공경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느냐?”하고 노인은 호통을 쳤다.

“…….”

인철은 묵묵히 있었다.

“왜 대답을 않는 게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년 만이라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어느 누구도 노인의 얼굴을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의 굵고 탁한 목소리에 모두들 몸을 움츠리며 놀랐다.

“일년 만에 돌아왔으니 더욱 기억하고 있어야지! 일년간이나 조상을 공경하지 않았으니 더더욱 기억해야 할 게 아니냐. 좋다, 그 다음!”

“잘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고 머리를 조아린 채 용서를 구한 것은, 미모와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 때 악단(樂壇)의 명성을 떨쳤던 수봉의 딸이다.

“인임이, 너는?”

그렇게 호명당하고 얼굴을 든 인임은, 문득 아버지 옆에 놓여 있던 회초리에 할아버지의 손이 가는 것을 보고는 움찔해서,

“너무해요. 할아버지!”하고 마음으로 나지막이 외쳤다.

못가의 버드나무에라도 와서 멈추었는지, 어린 해오라기가 가느다란 소리로 부모를 부르고 있다. 청기와집의 둔탁하고 무거운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낭랑한 소리다.

“말 못하겠느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주의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거라!”

“예.”

“그 다음!”하고, 권 노인의 위엄 있는 혈문은 언제까지고 이어진다. 겨우 혈문을 마치자, 권 노인은 비로소 얼굴의 위엄을 누그러뜨리고 순순히 타이르는 것이었다.

“새삼 너희들에게 삼강오륜을 얘기해봐야 소용없겠지.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옛부터 내려온 미덕도 무로 돌아갔다고 너희들이 지레짐작하는 것을 나는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너희들은 신시대가 어땡고, 신문화가 어땡고 하며 새로운 것을 방패로 내세우지만, 우리의 전래 미덕을 혁신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터. 이 미덕이야말로 영세불변(永世不變)하고 불명이라는 것을 나는 믿고 기꺼이 단언하는 게다. 모두들 알겠느냐?”

“예.”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인철이 일어서려고 했다. 그것을 민첩하게 알아차린 노인은,

“인철아! 왜 그러느냐? 얘기는 이제부터다…….”하고 꾸짖고는 또 말을 이어갔다. 모두의 얼굴에는 초조한 듯 안절부절함이 넘치시 워힌다. 아메리칸 기질의 수봉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지만, 오늘은 이제 막 도쿄에서 돌아온 아들 앞이라 꼭 참고 있었다. 손자인 인철도 발이 저려 오는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며느리 성희와 딸 인임 자매는 이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다만 권 노인의 후처 소향만이 기생 출신인 만큼 책상다리에 익숙해 있는 탓인지 비교적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 삼강오륜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지위에서 실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친구끼리 서로 믿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어째서 케케묵은 것이냐? 이 미덕이 어째서 너희들 신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게냐? 너희들에게는 조상보다도 자기 만년필이나 모자가 훨씬 더 소중할 지도 모르지만, 조상에 대한 예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높은 끝난 게야. 임금에 대한 충성도, 친구에 대한 믿음도, 무(無)로 돌릴 게 틀림없어.”

인입은 가슴이 메스거리오고 가벼운 현기증마저 느껴졌다. 성희는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 증오가 교차하는 시선을 수봉에게 보내고 있다.

(워낙 당신이 기개가 없어서, 한 세기 전의 연극이 지금 되풀이 되고 있는 거라구요.)

“나는 완고한 영감은 아니다.”하고 권 노인의 힐책은 멈출 줄을 모른다.

“나는 너희들의 식발도 학교도 허락했다. 서로 화합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칠거지악 의 하나인 조강지처와의 이혼까지도 허락했던 게다. 입이 있으니 말해 보거라. 조금만 더우면 곧 잠방이 한 장 달랑 걸치고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오래 살겠다는 게냐? 조상 사당의 다례(茶禮)를 위해 한 달에 두 번 정도 빨리 일어난다고 해서, 너희들 수명이 얼마나 단축된다는 게냐? 한번 대답해 봐라!”

한 시간 가까운 설교가 끝난 것은 아홉 시 경. 그러나 그것만으로 오늘 아침의 죄—음력 1일, 15일 양일간의 조상 사당의 다례를 빠트린 죄값음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권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건넸다.

“이 자세 그대로 열 시까지는 조상의 영혼에 사죄하는 게다. 내가 일등 죄인이다. 나는 정오까지 계속하고, 오늘은 굶겠다!”

이런 말을 막 끝냈을 때, 적절한 시간에 몸종인 입분(立紛)이가 손님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누구더냐?”

“어딘가 시골에서 왔다는 처녀입니다.”

“시골에서 온 처녀…….”

권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게는 그런 손님이 있을 리 없는데, 누구지? 너희들 누군가에게 온 것 아니냐?”

살았다 싶어, 모두들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인입아, 너희들 친구 아니냐?”

인입은 잠시 의아한 얼굴을 하다가,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나갔다 올게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인입은 이미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분명히 처녀인데…….”

입분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듯 흘겨보며,

“춘천의 용자(龍子)인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입분에게 싱긋이 웃음을 보이고는 뛰어 나가듯이 밖으로 나갔다.

“입분아, 어떤 여자느냐?”

“얼굴이 고운 분이었어요. 소복을 입고…….”

“소복을 입었다고? 모르겠군. 몇 살쯤 되어 보이더냐?”

“아가씨 정도의 나이였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것저것 묻다가,

“뭐, 좋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오늘은 실컷 환대하고 싶으니. 마침 고마운 때 와주었군.”

“작은사랑을 돌아 대문 밖으로 나가자, 정말이지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처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넝쿨장미를 등지고 서 있었다. 얼핏 보아 무척이나 시골 처녀 같은 느낌은 들지만, 때 마침 막 피기 시작한 장미와 같은 키가 늘씬한 여자였다.

인임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가까이 다가갔다. 손님도 조금 다가왔다.

“저, 저는 이 집 사는 사람입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경북의 시골에서 왔습니다만, 권 선생님은 계신지요?”

“권 선생님이라면……제 부친이신 권수봉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자 손님은 잠시 주저하는 듯하다가,

“아니에요. 편안할 태(泰)에 심을 식(植)…….”

“아,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계세요.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인임은 조부에게서 벗어났다 싶어 밝은 얼굴이 되었다.

“마침 잘 와 주셨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상한 말을 다 한다 싶었을까. 손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고마워요. 사실 저희들은 아침부터 할아버지한테 꾸중을 듣고 있었거든요. 회초리가 이렇게 산더미 같이! 고마워요.”

손님은 가까스로 납득한 듯,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자, 고마우신 손님, 제가 안내하지요.”

주인이 이렇게까지 떠들어주어도 손님은 여전히 머뭇거리며,

“저, 실은 할아버님도 저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만……. 저, 아버지께 전갈을 부탁받고 찾아온 터라…….”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올라오세요.”

인임은 손님을 몰아세우듯이 조부가 있는 큰사랑으로 안내했다. 일의 자초지종을 조부에게 전하는 것이 순서였지만, 찾아온 손님을 구실로 오늘의 별을 이 정도 선에서 일단락 짓고 싶었던 것이다.

여자 손님을 보고 먼저 놀란 것은 인철이었다. 손님도 그를 알아보고는 곧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누구신지? 나는 전혀 본 기억이 없는데…….”

권 노인은 자리에 앉은 채로 복도에 송구해하며 서 있는 손님을 바라보며 안경을 썼다.

“모르겠어.”

“저는 안대영의 여식입니다만…….”

“안대영 군의 따님—? 아, 그래요?”

권 노인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지만, 심하게 낭패스러운 기색을 감추지도 않았다.

이를 계기로, 모두들 자리를 떴다.

“그런가. 안대영의 따님이신가?”

노인은 감격하여 한번 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자, 올라오게.”

“예.”

손님은 암전하게 방으로 들어가 나긋나긋한 몸가짐으로 절을 올렸다.

“훌륭한 처녀가 되었구나. 그래, 이름은?”

“미연입니다. 아름다울 미(美)에, 제비 연(燕)…….”

“그래, 미연이라, 자네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군. 그래, 아버님은 건강하시고?”

“예.”하고는 손님이 갑자기 더듬거리며,
“저, 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하고, 부친이 돌아가기 사흘 전에 간신히 쓴 편지를 권 노인 앞에 꺼내놓았다.

노인은 편지는 집을 생각도 않고 상반신을 불쑥 일으키며,
“뭘, 죽었다구!”

“예.”

“그게 언제쯤이고?”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지난 달 15일이었습니다.”

“몰랐네. 알 도리도 없지…….”

권 노인은 크게 탄식했다. 늙은이의 얼굴에 눈물이 조용히 고였다. 그런가 싶더니 지그시 눈을 감고는,
“안대영 군, 자네는 죽을 때까지도 나를 용서해주지 않았는가? 죽은 얼굴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오랫동안 권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다. 안경 아래서 끊임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다. 미연은 저토록 흐르는 눈물을 여태껏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무심코 얼굴을 들자, 아까 보았던 청년이 못가의 풀을 뜯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인연일까? 저 사람이 이 집에 있으리라고는.”

웬지 꿈만 같았다.

가까스로 편지를 들고 다 읽고 나자, 노인은 완전히 기분이 달라졌다.

“자네 오라비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나?”

“예.”

“애석한 일이야. 머리가 좋은 아이였는데. 자네가 몇 살 때였더라?”

“다섯 살 때였다고 합니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죽은 아이라고 단념하셨더랬지요.”

“그럴 리는 없지. 살아 있을 게야. 어딘가에 살아 있어. 부친이 부탁해 왔으니, 내 집에 있도록 하게. 그러노라면 불쑥 나타나겠지. 자네가 있어만 준다면, 나도 부친에 대한 속죄로라도 있는 힘껏 돌

봐줄 테니.”

권 노인은 15년 전, 어떤 일로 친구인 안대영을 배신한 적이 있다. 이후 안대영은 몸의 자유를 얻게 되자, 강원도 춘천으로 기거를 옮겨 농사에 투신했다. 이 소식을 듣고 친구의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한 두려운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온 권은, 두 번이나 산속에 있는 안을 찾아가 용서를 구했지만 안은 결코 그를 만나 주지 않았다.

세 번째는 편지를 보냈지만, 행선지 불명의 쪽지가 세 장이나 붙여진 채 돌아왔다.

그로부터 벌써 그럭저럭 15년이나 된다.

“어떻게? 내 집에 있어 줄 텐가?”

미연이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아니면 어디 정해진 혼담이라도 있는 겐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연은 옆질러진 물이라도 주워 담듯 강하게 부정했다. 부정하면서도 언뜻 스쳐오는 듯한 유의 원망스런 눈이 떠올라 오싹해졌다.

향수

아무리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그런 때가 사람에게에는 종종 있는데, 최근의 미연이 그랬다.

‘바보 같이 모자라기는. 자기 나이를 스스로 헤아리고 있다니.’

그녀는 혼자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다.

나이뿐 아니라 무엇이든 그랬다. 미연은 청기와집의 일원으로서, 무성한 정원을 마주한 작은방에 있게 된지 아직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오랜 세월 살아 익숙한 고향의 자기 방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낯설은 여행지에서의 처량한 여수(旅愁)에 사로잡혀, 먼 과거에 물어버린 터인 고향으로 달려가서는 홀로 눈물짓는 것이었다.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째서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걸까?’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는 이름뿐인 고향이 아니었던가. 논과 밭 모두 한 정보(町步)도 되지 않는 경작지는 소작을 내주었고, 집은 어머니 쪽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에게 주었고, 첫사랑인 유해성마저도 여옥에게 양보해버린 터인데—

‘그런 고향에, 이제 와서 나는 어째서 빈민해야 하는 걸까. 역시 그 사람이 단념되지 않는 것일까?’

미연은 유의 단정한 얼굴을 떠올리고는 불을 뿜는 듯한 그의 목소리에 지그시 빠져드는 것이다. 그리고 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언제나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그런 날이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미연은 청기와집의 일원이 되었을 때부터 이 집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는, 그들의 무기력함과 게으름, 아무런 주견(主見) 없는 생활에 다소 신경이 쓰였지만, 그 자신 그들의 생활을 리드하는 것은 커녕, 오히려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마저 드는 것이었다.

미연은 과거 1년간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는 커다란 파도와 더불어 살았다. 집안에 머물기는 했

지만, 강하고 늠름하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농촌의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며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집은 사실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정과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 잠자리를 물리는 것은 빨라도 아침 9시, 아침 식사는 대개 11경이다. 아침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소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가 7시, 10시에는 권 노인을 시작으로, 수봉, 여자들, 이렇게 아침 식사만도 세 번은 있었다. 아침상은 또 각자의 방에서 받았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침 식사 후 정리를 마치고 나면 아무래도 12시가 넘게 된다. 곧 또 점심 준비를 하고 정리하고 나면 오후 3시, 이어서 저녁 식사다. 이만저만한 소동이 아니다. 어찌된 집일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녀는 종종 기차 시간표를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상 깊었던 연선(沿線)의 몇몇 풍경으로 생각을 달리고, 시시각각 고향—유해성의 품에 다가가는 생각에 가슴 두근거리고 있는 자신.

‘차라리 돌아갈까.’

미연은 넋지시 그렇게 자신에게 응석을 부려도 보는 것이지만,

“죄악입니다! 미연 씨…….”

그렇게 말하던 여옥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독수리처럼 덮쳐와, 펄쩍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나는 이미 고향에 아무런 미련도 없어. 그 사람도 여옥 씨에게 남김없이 주었잖아.’

생각해보면, 텅없는 사랑이었다. 유가 부친을 찾아오던 2년 동안, 두 사람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사랑을 말한 적도 없고 미래를 약속한 적도 없으면서도, 그러나 두 사람은 상대의 눈길에서 사랑의 속삭임을 듣고 그리고 서로 깊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즈음, 덜컥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년도 되지 않아 또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어, 상(喪)이 끝나기까지 의지할 곳 없던 그녀 앞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여옥이 나타난 것이었다.

— 미연은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인해 위대한 비극의 단상으로 쭉쭉 떠밀려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청기와집’이 문득 그 비극의 무대라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미연은 말하자면, 어머니의 품을 떠나자마자 먼 이국의 하늘에 내버려진 작은 새와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16살 때 2년제 지방 실업학교를 나오고는 곧 집안에 틀어박혀 강요라도 받은 듯이 모친으로부터는 바느질을, 부친으로부터는 한학을 배웠다.

파란 하늘과 달, 양친의 얼굴, 그리고 한자책이 그녀의 유일한 세계였던 것이다.—그런 생활이 6년이나 계속되었다.

그녀가 경성에 와본 것도 두 번뿐이었다. 한번은 실업학교에서 수학여행으로 온 터라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청기와집에 와서는 단 한번, 짐을 찾으러 먼 친척인 아주머니한테 간 것이 전부였는데, 그때도 한 시간 가까이나 헤맸을 정도다.

— 그러나 미연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청기와집의 생활과 분위기가 낯설고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우선 가족의 계통을 외우는 것만도 큰일이었다. 조부인 권 노인에게 수봉, 수진, 수영의 3남매가 있지만, 수봉만이 죽은 본처의 자식이고, 수진과 수영은 지금의 기생 출신인 소향의 배에서 낳았다. 손자인 인철과 인임, 인숙의 삼 남매도, 어쩐지 지금의 수봉의 처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닌 듯하고, 소학생만이 재혼인 성희의 자식 같다.—이들은 여러 가지 감정과 이해를 달리하며 서로 얽히고설켜 있었던 것이다.

“미연이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 훌륭하게도 고래의 미덕을 몸에 익히고 있구나. 감탄스럽다. 그 상태로 우리 집에 좋은 모범을 보여 주렴.”

권 노인이 그렇게 칭찬하는가 싶으면, 어디까지나 아메리카 기질인 그의 아들 수봉 교수는, “미연 씨는 좀 더 구습(舊習)에서 벗어나야 해. 지금은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 무엇이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작은 항아리 속에 가두어 놓을 필요는 없지. 과감하게 날개를 펴고, 과감하게 자신의 세계를 펼쳐보라구.”하며 미연을 부추겼다.—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신도 권 노인 앞에서는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수봉은, 서로 멸시하고 서로 증오하기조차 하면서 부친과 이질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연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인철의 존재이다. 그는 말했다.

“미연 씨, 당신은 지금의 현재 모습으로 좋습니다. 무엇이든 아버지의 양키 기질을 모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해도 어머니나 누이의 양키 기질은 버거워하고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미연은 그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머리가 혼란스러워져 오는 것이었다.

“장차 아버지는 후회할 겁니다.”라고 인철은 어느 날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지금도 어머니가 그런 행동하는 걸 보면 못마땅해 하니, 그런 식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지금 통하지 않지요.”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수봉 교수는 깊이 생각에 빠진 얼굴로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곤 했다. 책이라도 읽고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양 주먹으로 턱을 꺾 채, 멍하니 공허한 시선을 허공으로 향하고는 언제까지고 사색에 빠져 있다. 별이 좋은 뒷마루에 등나무 의자를 내놓고는, 자취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담배 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일도 있다.

“미연 씨,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부탁해요.”

교수의 처는 남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재빨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어찌된 집일까. 게다가 이 집에 왔더니, 웬지 모두 기력 없는 사람들뿐이고.’

정말로 썩썩한 사람은 인철 한 사람뿐인 것처럼 보였다. 그 이외에는 모두 얼굴에 달라붙은 파리로 인해 몹시 풀이 죽어 있으면서도, 손을 움직이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 언제까지나 파리로 인해 번민하고 있는—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청기와집의 가계가 상당히 기울고 있다는 것은, 이 집에 온 지 겨우 닷새밖에 되지 않은 미연에게조차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미연은 한눈에 금방 알 수 있었다.

큰집인 만큼, 열 너 다섯 명이나 되는 대가족이다. 그렇지만 모두들 이 무시무시한 사실에 눈을 감

고 있었다.

권 노인은 이미 칠순의 고령으로, 그의 노안은 과학의 위력으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대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아침저녁 인사와 월 2회의 사당제례 외에는,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거의 교섭을 갖지 않았다. 기생 출신인 후처 소향이 가야금을 켜는 사이사이 하루에 몇 번인가 얼굴을 내미는 정도인 것이다.

교수와 그의 처인 성희도 각각 각자의 방에 진을 치고 각각의 삶을 영위했고, 자식인 인철과도 웬지 모르게 서로 성질이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소향이 낳은 자식인 수진, 수영 남매와 교수는 형제 사이지만 수진 남매가 자식인 인철과 동년배라 연령 차이 때문에, 수진과 인철은 삼촌 조카사이 사이지만 연령 차이가 없어서 또 서로 뜻이 맞지 않는 것이었다.

“삼촌인건 틀림없지만, 인철 오빠보다 한 살 아래예요.”하고 인임이 말하면, 소향은 자기 자식을 감싸며,

“나이는 적어도 삼촌은 삼촌이잖니?”하고 말하는 것이다.

“미연 씨, 당신은 우리편이라구요.”라고 인임 자매가 얘기하는가 싶으면, 소향은 또,

“미연 씨, 수진 남매는 나이가 적기 때문에 모두가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감싸 주어야 하는데, 괜찮죠?”

“예.”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계모는…….”하고, 이번에는 교수의 처인 성희가 도마 위에 오른다.

“계모는 말이죠. 할머니와 사이가 상당히 좋아요. 그럴 것이 두 사람 다 신분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성격이 맞지는 않아도 그러저럭 서로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진 삼촌에게 어디 좋은 점이 있다고 저렇게 감쌀까. 중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자 사고……어머, 내가 다 말해 버렸네.”

“그런 분이세요?”

미연은 잠깐 짐작이 가는 데가 있어서 무심코 이렇게 묻고 말았다.

인철과는 기차 안에서 만났고, 웬지 옛 친구 같은 기분이 들어 안심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 한번도 허물없이 말을 걸어오는 일도 없다. 그런데도 수진은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그녀에게 마치 허혼(許婚)이라도 한 듯한 말투로 얘기하곤 했다.

“집에는 젊은 여자가 너 다섯 명이나 있지만, 당신이 제일 예뻐요.”하고 말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뒤에서 어깨를 툭 치며 앞길을 가로막고,

“미운 사람.”하며, 눈을 흘기는 것이었다.

“예. 예. 그게 대단한 거죠. 자기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열네다섯 살 때부터 여자 따위를 사고 다녔지요. 불량해요. 당신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돼요!”

고용된 사람들도 각기 पै가 갈려 있었다. 침모와 밥 짓는 노파는 소향과 성희에게, 몸종인 입분은 인임 남매에게 각각 예속되어 있다.

그리고 그저 그런 암투로 시종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성하게 풀이 자라도 누구 한 사람 나서는 사

람이 없다.

이 집 분위기에 미연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툭 내던져진 셈이었다.

청기와집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미연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정원의 녹음은 푹푹 떨어지고, 빛나는 초여름의 햇살이 나뭇잎에 춤추고 있었다. 밤에 달은 늦게 돋았지만, 별은 빛났다.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어, 물릴 줄 모르고 바라보고 있는 동안, 깜빡 졸음이 찾아오고 만다.—그런 졸음에 빠져들 듯한 초여름 밤이다.

그러나 미연에게는 이 희망의 계절과는 다소 거리가 먼 울적한 날이 이어졌다. 고향을 떠난 이래의 나그네 심정은 조금 덜해졌지만, 처녀의 꿈을 머금은 고향에 대한 추억은 없애려 하면 할수록, 여름 구름처럼 어디에서랄 것 없이 솟구쳐 오는 것이다.

“지긋지긋한 밤!”

그녀는 그렇게 외치고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산비둘기도 잠이 잘 안 오는 지, 푸드득푸드득 뒤척이고 있다.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구구구 울고 있었다.

달밤인가 싶을 정도로 밝은 별밤이다. 별씨 꽤 늦은 시각인지, 청기와집은 고요하다. 다만 성희의 방에만 불빛이 환하다. 또한 유한부인(有閑夫人)들이 모인 것일까, 첩첩 꽤를 던지는 소리가 난다.

‘수봉 선생님도 어떻게든 하셔야지. 왜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걸까?’

미연은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 곧,

‘또 시작이야. 이제 그런 일에는 신경 쓰지 않을 작정이었는데.’하고 스스로를 꾸짖으며, 은행나무 그들의 그루터기에 걸터앉았다.

멍하니 있는데, 또 그녀의 생각은 오래 살아 정이 든 고향으로 내달린다. 동백 향기가 날아들어 더 더욱 고향 생각이 간절하다.

‘유 선생님은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까?’

‘그럴 리가 없어!’

무슨 까닭인지, 그녀는 강하게 부정해보는 것이다.

‘그 사람은 어쩌면 나 같은 건 사랑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날도 그 사람만 확실하게 나왔더라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

그런 기분이 들었다. 사실 그 냇가에서 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만류했더라면, 이 또한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단념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런 기분도 드는 것이었다.

‘역시 그 사람은 나보다도 여옥을 사랑하고 있었던 걸까? 잠깐 악마가 씌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내게 눈을 돌렸지만, 일단 떠나가고 보니 뿌리 깊이 뿌리를 틀고 있던 여옥에 대한 사랑에 눈뜨게 될 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아.”

미연은 그러나 이내 다시 생각했다.

“좋은 일을 한 거야.”

선행이란 모두 이렇게 슬픈 것인지도 모른다. 나로서도 이렇게 슬픈데. 만일 내가 손을 떼지 않았

더라면, 여옥 씨는 지금쯤 죽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바라시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은 희생에 있다, 희생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부디 안심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딸로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아갈 각오입니다…….

미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문득 무슨 소리에 놀라 눈을 떴을 때, 수진이 휘청거리며 다가온다.

“미연 씨, 여기에 계셨습니까?”

“예.”

미연은 용수철처럼 일어나,

“지금 돌아오세요?”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도, 몸은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아, 좀 피치 못할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취하고 말았네요.”

“그러셨어요? 그럼, 술 좀 깨셔야겠네요. 저는 이미 오랫동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는, 그의 옆을 지나가려고 하자,

“뭘, 괜찮지 않습니까?”하고, 수진은 가로막기라도 할 것처럼 불쑥 앞으로 나섰다.

미연은 언젠가 그가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송충이에 닿은 듯한 오한을 느낀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와 같은 전율이 몸속을 내달린다.

“아니요. 저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저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스스로는 힘껏 노력을 하고 있는 듯했지만, 혀가 꼬부라져 있다.

“아주 잠깐이면 됩니다. 아주 잠깐.”

“제가 오늘밤은 상당히 피곤하니, 이번에는 그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몸을 피하듯 걸음을 옮기려고 했지만,

“아니, 기다려.”하는가 싶더니, 움켜쥐듯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만두세요. 보기 흉합니다.”

“아니, 당신은 나를 오해하고 있어. 놈들이 어차피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테니.”

“그런 말을……저는 오해 같은 건 하고 있지 않아요. 제발 이 손놓아 주세요.”

미연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아니, 놓지 않겠어. 이 한 마디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않아. 이 청기와집에서는 나를 왕따로 취급하고 있지. 내가 좀 불량할런지는 몰라. 그러나 나를 불량하게 만든 건 누구지? 우리 모자는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어. 그게 슬퍼서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지. 그런데 당신이 온 거야. 나는 당신에게만큼은 인간 취급을 받고 싶었어.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니까, 적어도 당신에게만큼은 내 이 외로움을 이해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그런 당신마저…….”

수진은 그녀의 손을 놓고 은행나무에 머리를 갖다 대고는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미연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직 두근거리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서 조용히 뒤돌아섰다. 웬지, 자신도 울어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저 사람만 비난하는 것도 나쁘다. 저 사람이 한 말은 전혀 거짓말이 아니다.’

미연은 밤이 하얗게 썰 때까지 잠들지 못했다. 수진의 입장이라도 되고 보면, 저 사람처럼 비틀어 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어째서 이 집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험담을 하기 전에, 좀 더 친절하게 해주지 않는 것일까? 좀 더 위로해준다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술에 취해 있다고는 해도 남자가 돼서 저렇게 울 수 있는 걸까?

“민(珉) 오빠도 어딘가에서 저런 쓸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생각은 언제나 그렇듯이 생사조차 알 길 없는 오빠에게 가닿는 것이었다.

“수진 씨, 좋아요. 당신만 정신 차려 준다면, 제가 돌봐드리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수진은 그녀의 호의를 자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은 내 뜻대로 되었구나.”하고, 혼자 기쁨에 빠져 들고 마는 것이었다.

울기 시작하면 며칠이라도 울 수 있을 것 같은 무척 쓸쓸한 심경에서 미연이 완전히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젠 고향에는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그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인임 씨, 저는 오늘부터 정말로 맥의 사람이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마침내 결심이 서자, 인임 자매에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오는 일요일 어딘가 소풍을 간다고 해서 훌 웃옷을 재단해 달라고 자매가 와 있을 때였다.

“새삼스럽긴. 언니, 저희들은 이미 진작부터 그렇게 믿고 있었는 걸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도 나는 실은 오늘 겨우 결심이 섰어요.”

미연은 사용하고 있던 가위질을 쉬며,

“어떻게 머물게 해주시겠어요?”

“한번 신중하게 연구해보죠.”

그렇게 말하고 인임이 밝게 웃으며,

“그럴 수만 있다면, 저희들로서는 도움이 되지요. 어딘지 미연 씨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아 저희들도 실은 걱정하던 참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미연 씨가 돌아간다면 예 친구의 영전에 면목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구요. 게다가 오빠도…….”

인임은 차근차근 말하면서, 그녀의 눈을 슬쩍 쳐다보았다. 미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얼굴이 빨개지는 자신을 이상스럽게 생각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어떻게, 들어 주시겠어요? 저, 내일부터 일하게 해주세요.”

“일을 한다고요?”

자매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뭘든 하겠어요. 밥 짓는 일부터 바느질까지. 이 정도 규모의 가족이야 입분이 혼자서 충분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도 이상해요.”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도 청기와집 전통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상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일체 제게 맡겨 주세요. 그러면 입분이와 둘이서 모든 일을 척척 해 보일 테니까요. 그 대신, 여러분도 도와주어야겠지만…….”

“그런 일을 미연 언니가 감당하겠다고요?”

미연은 끈덕질 정도로 얘기했지만, 그녀들은 웃어넘기고 말았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니, 자기들도 지금까지의 생활을 단념하고 가능한 한 도와주는 상황으로 어찌어찌 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청기와 맥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시세로는 양반만으로는 어떻게든 안돼요. 열 명 가족에 고용인이 넷이나 짊어주세요.”

“얘기를 듣고 보니, 변명할 방법도 없네요.”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인임아, 나도 끼워주지 않을래?”

인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연은 갑자기 약간 위축되어 얼굴이 달아올랐다. 인임이 가슴을 펴며,

안돼요! 미연 언니는 지극히 완고한 분이래, 할아버지께 승낙서를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킁킁 웃었다.

너무 그렇게 밍살스럽게 말하지 마라. 오늘밤은 좀 참석시켜 주라. 미연 씨,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가 싶더니, 인철은 벌써 끼어들었다.

저도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그만, 모든 걸 엇듣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은 미연을 향해 돌아서서 꾸뻑 머리를 숙이며,

미연 씨의 힘으로 한번 저희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저희들이 협력할 테니까요. 인임아, 너희들도 팔 걷어 부치고 도와줄 거지?”

당신이 이 집에 오신 것을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인철은 기억도 아득한, 꿈길이라도 헤매는 듯한 눈빛으로 열정을 다해 말했다,

당신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습지만, 당신이야말로 신께서 이 청기와집에 보내주신 구원의 여신입니다.”

“인철 씨, 저는…….”

“아니, 아니,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미연 씨에게 아첨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돌아와 처음 알았습니다만, 유서 깊은 이 청기와집도 이미 막대한 돈에 저당 잡혀 있습니다. 소작료로 들어오는 쌀만해도 이제는 얼마 안 되지요. 그것으로는 이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매달 오백 원 이상 쓰고 있지요. 부엌일도, 빨래도, 바느질도, 정원 관리도 남에게 맡겨두고, 하녀 한 사람이라도 병으로 자리에 누워 버리면 모두들 태연하게 다시 하인을 들여오는—이런 식으로 살림을 해나갈 수는 없어요!”

인철은 화가 치미는 듯 말했다.

“당신의 기분은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있자니 뭔가 위로의 말이라도 해야 할 듯한 생각이 들어, 미연은 간신히 그렇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제 일이 년 느긋하게 공부라도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내일부터 일할 겁니다. 정원의 풀을 뽑고 쓰러질 듯한 담을 고치면서, 정말이지 울고 싶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기와집에 달라붙어있는 고래의 전통 따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무위도식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부끄러운 전통!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좋지만, 한번에 삼사십 원이나 드는 제사를 일 년에 열두 번이나 지내게 하는 건 조상이 너무 무자비한 겁니다! 아무런 생산도 않는 자손에게 말입니다!”

“안돼요. 오빠.”

지긋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인숙이 위협하는 듯한 얼굴을 하며,

“그러면 할아버지 졸도하세요.”

“그럴 리가?”

인철은 내뱉듯 말을 했다.

“오빠는 집을 비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작년 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의 권유로 석유 장사인가를 시작하실 작정이셨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셨다고요. 가문에 먹칠하는 놈은 나가 버리라고요. 그런데 제사를……안돼요!”

“거의 이틀 동안 단식하셨어요.”

인입도 맞장구를 치며,

“지금 할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 것도 그 일이 있고 나서였어요. 그 연세에 이틀을 단식하셨으니, 약해지시고 만 거죠.”

인철도 과연 말이 없었다. 깊은 생각에 빠져 고민하는 듯한 침뚫한 표정을 짓더니,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하고 외쳤다.

“정말이지, 저는 의절당해도 좋습니다. 길바닥으로 쫓겨나도 좋아요. 저는 어디까지든 해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연 씨,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기차에서 우연히 마주 앉았던 당신이…….”

지나치게 흥분하여 뜻하지 않게 이런 말을 꺼내놓고서야 비로소 아직 여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인숙은 오빠와 미연을 노려보듯 하며,

“어머, 미연 씨와 기차에서 같이 있었어요? 너무해요, 오빠. 그런 얘길 지금까지 하지 않다니…….”

“그런가, 말 안 했던가?”

“안 했어요.”

인숙은 인입을 돌아보며,

“언니, 하지 않았지?”

인입은 난처한 듯 한 쪽 눈으로 동생을 제지하면서도, 흘끗 미연의 안색을 살피며,

“오빠는 건망증이 있으니, 인숙이 네가 참는 게 어떠니?”

“그래. 인숙아, 기분 나빠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인철은 그 상황을 터무니없이 폭소로 얼버무리려고 했지만, 인숙은,
“안돼! 안돼!”하고 억지를 부리는가 싶더니,
“엄연한 사실을 숨긴 죄만큼 형제의 우의를 해치는 것도 없으니, 머리 숙이고 사과하는 게…….”
“사과할 게. 이렇게…….”
“그리고 광동특장요리(廣東特裝料理)와 두 종류 이상 진귀한 과일로 대접할 것.”
“드디어 최후의 수단을 쓰는구나. 인숙이는 빈틈이 없다니까.”

삼남매의 폭소로 불길 속 완전히 궁지에 몰린 듯한 상황으로부터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된 미연은 숨이 막힐 정도로 뺨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설명할 것까지도 없이, 인철도 자신도 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었다. 그저 기회를 봐서 얘기할 작정이었지만, 그만 말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뿐이다. 계제가 나빠서, 그 우연한 사건을, 이 또한 우연히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 다 말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좋아, 한턱 낼 테니, 말해. 뭐가 좋을까?”

“아까 선언한 대로예요.”

“그렇까, 좋아.”

또 웃음소리가 폭발하고, 몸종인 입분이를 불러 놓고 남매간에 흥정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중에도, 미연은 웬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 깊이 숨겨온 처녀만의 비밀이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된 데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뭐 계획적으로 숨긴 것도 아닌데, 라고 대수롭지 않게는 여기면서도, 그러나,

‘말하자, 말하자, 생각은 하면서도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거야. 그래, 그건 이해해. 당신이라면 처음부터 숨기고 지내려는 생각 따윈 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말하자, 말하자, 하면서도 과감히 말할 수 없었던—그 자체가, 물론 의식은 하지 않았어도, 마음 어딘가에 감추어두길 바라는 생각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한 명의 자기에게 추궁해보면,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거짓말! 거짓말! 이런 일을 인임 씨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쑥스러워진 거야. 그래서 모두들 앞에서 그런 말도 꺼내지 못한 게 아닐까.—그런 건 남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순서지…….’

심한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처녀의 입에는 광동 요리도 맛이 없었다. 기차에서 만난 사실을 숨겨온 ‘죄’는 맛있는 요리와 아침나절의 방울소리처럼 명랑한 웃음소리에 이제 완전히 녹아 버렸지만, 미연에게는 그 장소가 역시 참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런 기분에는 개의치 않고, 인철은 청기와집의 부흥안을 짜내는 데 몰두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뒤틀린 양반의식을 비난하고, 아버지의 무기력함에 분개했다.

“배는 분명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아버지는 양반의 배가 가라앉는다는 게 어쩐다는 거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버지는 배가 부서진 것을 시인하면서도 굳이 이러한 현실로부터 눈을 감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일하지 않는 자의 자손은 삼 대를 갈 수 없고 바보가 된다는 사실은, 의학자가 하나같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먹느냐 먹히느냐의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생활에 한정된 것만도 아닙니다. 사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나 대국의 사대사상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미국에만 의지하고 있지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인철은 이따금 미연에게 의견을 구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다. 미연도 훨씬 전부터 청기와집 사람들을 단념하고 있었지만, 인철의 밀어붙이는 추진력에는 얼마간 분발하는 모양새였다.

그 후로 인철은 종종 인임이나 인숙과 함께 미연의 방을 찾아가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에 몰입하곤 했다. 인철은 개개인의 안일함에 빠져 있는 청기와집을 훌륭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의 가정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서슬이 대단했다. 전쟁은 국가만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바로서지 않으면 허사다. 지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내지만이 아니다. 청기와집 사람들은 매우 부끄러워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연은 일부러 그와의 동석을 피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가 원하는 협력에는 실행으로 응했다. 그녀는 물 길어 오는 일부러 장작 패는 일까지 묵묵히 정성을 다했다. 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운 터라 권 노인이 지은 시를 받아쓰는가 하면, 수봉 교수의 부탁에는 그의 처인 성희의 못된 짓도 동성(同性)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기꺼이 받아 주는 것이었다.

미연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때때로 엄습해오는 강력한 향수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할 거라고도 생각하는 것이다. 또 그것은 남에게든 자신에게든, 자신이 인철에게 협력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만 여겨지고 싶지 않다는 변명의 구실만은 아닌 듯하다.

암투

3년 가뭄에 비 안 내리는 날이라고는 없다는 말은 옛부터 들어온 얘기지만, 미연이 경성으로 나가 맞이했던 첫 번째 여름이 바로 그런 여름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방사선이 지구를 향해 내리쬐다. 지구라는 덩어리가 진흙투성이가 될 때까지 다 녹여버리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을 기세였다. 지구도 견뎌내기 어려워 받은 열을 뿜어내고, 그 사이에 인간과 초목이 틈에 끼여 꼼작 못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때 동남풍이 나무끼며 어디에서랄 것 없이 잿빛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여기저기서 굵은 소나기가 내렸다. 그러나 북쪽 시가지의 먼지도 잠잠해지기 전에, 남쪽 시가지에서는 이미 한층 더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

그런 날이 거의 여름 내내 계속되었다. 한낮 같은 때는 모든 생물이 숨을 죽인 듯한 정적에 휩싸이고, 마지막 비명이라도 올리듯 기름때미만이 목이 쉬도록 울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활짝 개인 여름 가뭄이 계속되던 여름 내내, 청기와집의 처마 밑에는 어느 때랄 것 없이 저기압이 떠돌았다. 까칠까칠하게 바싹 말라버린 열기와는 무뎠 거리가 먼, 질척질척한 장마철 같은 습기가 숨을 조일 듯이 꼭 차 있었다.

인철이 은밀하게 청기와집의 일대 혁신을 생각해 내고 있던 어느 날 아침, 봄부터 여름에 걸쳐 거의 누워 지냈던 권 노인은 여름날의 아침잠을 기분 좋게 탐내고 있던 집안사람들을 네 척이나 되는 긴 담뱃대로 두드려 깨웠다.

여름이라고는 해도, 5시 전이면 가까스로 날이 밝아오는 시각이다. 소학교에 다니는 손자인 인택의 아침 식사 시간도 아직 세 시간이나 남았고, 청기와집 사람들이 잠자리를 치울 때까지는 네다섯 시간이나 남아 있는 시각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미연조차 잠옷차림인 채로, 큰 사랑으로 끌려나왔을 정도였다.

“사당 다례일(茶禮日)인가?”

모두의 얼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삼 일 전 15일에 다례를 지낸 터였다.

“오늘부터 이 청기와집 사람은 여름에는 오전 5시, 겨울에는 6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날 것을 명한다. 여자는 원칙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금하고, 남자도 그 누구든 밤 9시까지의 절대로 귀가한다. 나갈 때는 반드시 알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내민다.—이 규칙이 최근 완전히 느슨해진 듯 한데, 앞으로 이 규칙을 어기는 자는 즉시 떠난다.”

오래 앓았던 노인의 어디에 그 정도의 기력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강경함으로 권 대감은 말을 계속했다.

“아침 식사는 여름에는 7시, 겨울에는 8시로 하고, 여자는 안방에서 남자는 내 방에서 함께 식사한다. 오늘을 끝으로, 하녀는 입분이 한 사람만 남고, 남녀 모두 가사 일을 분담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이렇게 덧붙였다.

“집안에 오는 일체의 손님은 우선 내게 얼굴을 내밀게 하고, 돌아갈 때도 주인과 손님이 함께 와 돌아간다는 인사를 하도록 한다.”

“됐다! 이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지.”

인철은 내심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의 진언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래, 모두 알았느냐? 싫은 사람은 나가거라! 알았으면 대답을 하고.”

“예.”

이 계엄령은 인철과 미연을 제외한 모든 청기와집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밥 짓는 일을 맡게 된 수봉의 처 성희는 일체의 외출과 손님맞이를 금지 당했고, 이복동생인 수진도 어쩔 수 없이 나다닐 수 없게 되었다. 수봉 교수는 주 2회의 출강 외에는 외출도 손님 내방도 거의 없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야외로 놀러가는 일이나 마작에 여념이 없는 성희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작년 말 무렵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최(崔) 청년 일행과 외금강에서 서로 만나 그곳에서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계획도 다 틀어져버렸다.

우리 안에 갇힌 소프라노는 솟아오르는 분노에 심한 두통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한 집안이 단란함을 뽐내었다. 그러나 그 단란함은 가장인 권 대감의 능름한 호령과 위압적인 감시에 의해 가까스로 만들어진 단란함이었다. 그 단란함은 언젠가는 상극(相剋)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암 덩어리를 내포한 단란함이기도 한 것이었다. 명령대로 아침 5시에는 잠자리를 치우고, 7시에는 마주대하고 서로 아침 밥상에 나란히 앉는다.

이 짧은 식사 시간도 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행의 시간이었다.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거나 웃는 얼굴로 잘 먹었다는 말을 나누는 것도 아닌 권 노인은,

‘식사할 때는 움직이지 말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습관을 견지한 채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자들 목소리가 담을 넘으면 집안이 기운다.’
 고 하여 일체의 웃음소리조차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
 “수봉아! 수봉아!”
 어느 날 저녁, 권 노인이 수봉의 방에 손님이 와 있는 기미를 알고, 타고난 굵고 탁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손님이 왔느냐?”
 “예.”
 “왜 내게 데리고 오지 않느냐?”
 “와타나베(渡邊) 교수라 말이 통하지 않아서…….”하고 수봉이 대꾸하는 도중에,
 “바보 같으니! 경의(敬意)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드러내는 거지!”
 마침 와타나베 교수는 국문학 교수인 만큼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필담(筆談)과 통역을 통해서나마 여러 가지로 얘기가 활기를 띠었다.
 “내 친구에게 안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는 올봄에 타계했지만, 그의 딸이 지금 내 집에 와 있다우. 그 친구의 딸인 만큼 경서(經書)에도 정통하지. 한시를 보았는데, 대단한 작품이더군.”
 “그렇습니까? 만나보고 싶군요.”
 교수가 이야기에 끌려 그렇게 말을 하자,
 “관습상 그렇게 해선 안 되지만, 시작(詩作)은 보여줘도 괜찮지. 얼핏 신사임당(申師任堂)을 연상케 하는 시인이라우.”

[주]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의 여류시인으로, 조선에서 으뜸가는 유명한 유학자 이율곡의 모친이다.

와타나베 교수는 그 후 평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청기와집을 방문하였다. 그런 그에게조차 연장자에 대한 예의로는 좀 더 허리를 굽히려는 등의 언급까지는 좋았지만,
 “노인 앞에서 담배는 삼가야지.”하고 호통을 칠 때는 옆에 있는 수봉이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다. 그래도 와타나베 교수는 종종 저녁 무렵에 와서 권 노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는 늦게까지 이야기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들의 화제가 조선의 장래로 비약하면, 거품을 물고 서로 치기라도 할 것 같은 형세로까지 발전하는 것이지만, 돌아갈 무렵에는,
 “오늘은 내가 졌네만, 나는 장기전(長期戰) 체질일세. 자네도 전법(戰法)을 잘 생각해 두시게.”
 “어르신이야말로 부탁드립니다.”
 이별하기 서운한 듯 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청기와집의 몹시 기형적인 단란함 덕분에, 지금까지는 소원했어도 마찰이 적었던 감정의 매듭이 이 단란함으로 인해 점차 악화되어 갔다. 소향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 주인에게 별거를 강요했고, 이를 눈치 채자 인임 일파는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다. 계제가 나쁜 것은 그 암투에 수진까지 등장했던 것이다.

그 소용돌이 속에 자신이 말려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미연은 일종의 오한마저 느꼈다. 어느 찌는 듯한 저녁, 미연이 인입 삼 남매와 수영까지 함께 못가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곳에 소향이 나타나,

“인철아,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러는데, 그 꼴이 뭐냐!”하고 손자를 큰 소리로 꾸짖고는, 아플 정도의 표독스러운 시선을 미연에게 돌렸다. 그리고 명령하듯이,

“미연아! 잠깐 내 방으로 오너라!”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미연은 머뭇머뭇하며 희(囁)자 문양이 새겨진 발 밖에서 어려워하며 말했다.

“잠깐 들어오너라.”

나선(螺線) 문양이 들어간 화류(花柳) 가구가 세 칸짜리 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연은 출입문을 피해 수세미오이가 걸려 있는 뒤쪽 창문 쪽에 조그맣게 책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반듯하게 놓인 화류 장롱이 반짝반짝 불빛에 빛나고 거울처럼 닦인 온돌 바닥에 가구가 비쳐, 마치 스크린 속의 빌딩 시가지를 보고 있는 듯하다. 커다란 투구풍뎅이가 전구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호수면에 비친 건물처럼 흔들거렸다.

소향은 흰색 상의에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되어 있다. 흰색 탯일까, 이미 오십서넛은 되었을 텐데, 사십이 될까 말까 한 나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방 분위기도 영향을 주어 사방침(四方枕)에 기대어 꽃무늬 자리 위에 앉은 그녀는 아무리 보아도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미연이 자네에게 미움 살 말 한 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주겠나?”

소향은 권련이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왼손으로 가볍게 턱을 누르듯 하면서 입을 열었다.

“예, 어떤 것이든 말씀하세요.”

“그래, 그래도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우선 내 기분을 알아 줘.”

그렇게 말하고 소향은 자신의 신상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기생에 적을 올렸다는 것. 그동안의 슬펐던 일을 낱낱이 말하고는,

“그러니까 나는 자네의 신상을 눈물 흘리며 동정하네. 과부의 슬픔은 과부만 안다고도 하지만, 고아의 고독은 나를 빼놓고는 이 집에서는 누구에게서도 이해받지 못할 걸세. 나는 자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문득 내 처녀시절이 생각나서 그만 눈물이 나곤 하네. 그럴 때는 자네에게 안겨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울고 싶어져. 그래도 뭐 자네는 행복하지. 나도 그 당시 대감과 같은 분이 거뒀다 주었다면, 기생 같은 건 되지 않았을 테지. 그런 점에서 보면 자네가 부러울 뿐이야.”

“고맙습니다.”

미연은 이미 완전히 소향의 손에 말려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만은 올바른 여자의 길을 걷게 하고 싶네. 대감과 내게는 자네 선친의 부탁으로 자네를 맡게 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는 무엇이 되었든 미움 살 만한 얘기를 하게 될 걸세. 어떻게 알아듣겠는가?”

“예,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눈물이 나와서…….”

“고맙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니—. 나는 웬지 거절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네. 그래도 뭐 때를 놓친 건 아니니, 나도 마음을 놓겠네.”

소향의 능숙한 말솜씨는 미연을 눈물짓게 만들었다. 미연은 소향에게서 어머니 이외의 사람으로부터는 느낄 수 없는 행복감마저 느끼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인철과 너무 가까이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녀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었다.

수진도 쓸쓸함을 많이 타는 아이니 가끔씩 상대가 되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대단한 소향도 이 말만은 삼갔다.

“아무튼, 조심하면 돼네. 나는 그저 대감 눈에라도 띄었다간 큰일 나니까, 옆에서 전전궁궁이지. 아무리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는 해도, 같은 처마 밑이 아닌가. 가끔은 어울려도 괜찮아. 하지만 대감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마음으로 가까이 지내게.”

“어머, 저는, 그런…….”

기를 쓰고 변명하려는 미연을 소향은 가벼이 다루며,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건 나도 이해하네. 그럼, 늦었으니 가서 쉬게.”

미연이 안녕히 주무시라고 말하고 일어서자, 소향은 실로 자연스럽게 덧붙였다.

“이런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오해 받으면 좋지 않으니까.”

이러한 소향의 친절이 아들 수진이 줄라서 얻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미연이 어렵듯이 느끼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나중의 일이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미연은 웬지 뱀을 잡았을 때와 같은 오한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서로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연과 인철은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주고받는다. 얼굴을 마주 대하면, 입이 벌어지는 웃음으로 맞이하지만, 그 웃는 얼굴 속에는 투지가 서서히 배양되어 간다.—이것이 최근의 청기와집의 풍경이었다.

‘조선오백년사를 읽는 것 같군!’

인철은 큰소리치듯 말했다.

어느 날 밤, 인철은 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내밀고 인사한다’는 예법도 예법이지만, 우연히 어느 은행 다니는 친구를 만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을 터라, 일단 에둘러서라도 좋으니 부친과 조부에게 알려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선 조부의 큰사랑으로 다가갔더니, 소곤소곤 소향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떤 사람이 수진이 인철의 삼촌이라는 것도 모르고 소개장을 갖고 와서는, 청기와집의 저당액을 늘릴 수 없을까 하고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집에 한두 번 온 적은 있어도 번지 따위는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데, 소개한 지인도 있으니 상의하여 오천 원 정도는 더 내어도 좋다고 대답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 중간에 뛰어드는 것도 좋지 않다 싶어 부친의 방을 엿보았더니, 수봉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서모가 표독스럽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새침하게 옆으로 돌아앉아 있다—

인철이 하는 수 없이 조부에게 발길을 돌려 무심코 방 앞으로 가까이 갔더니, “미연”이라는 이름이

언뜻 귀에 들어왔다.

“……물론 미연이 확실한 아이니 실수 같은 것은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대감은 일일이 그런 일에 눈길이 미치지 못 하고, 나도 주의는 할 작정이지만 아무래도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단속하기 어려우니…….”

조부도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는지, 얼마간 침묵이 계속되었다.

“그럼, 자네는 뭔가 알아 채는 것이 있는가?”

“아니요.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을 게 아닙니까?”

“그도 그렇지만—.”

바로 이때라는 듯이, 소향은 안대영 씨를 방패삼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만일의 일이라도 생긴다면, 안 영감의 영전에 면목이 서지 않을 걸 생각하면…….”

“그런 일이 생길라구!”하고, 권 노인이 외쳤다.

“미연의 신상에 만일의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죽어서 친구에게 사죄해야만 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인철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그런 소향이 인철의 얼굴을 보면,

“인철이 자네 요즘 상당히 안색이 좋지 않구먼. 약이라도 한 첩 쓰는 게 좋겠어.”하고, 무척 신경을 써주는 듯한 얼굴을 하는 것이다.

‘네가 물러나면 될 것 아니냐?’

문득 인철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타일러도 보는 것이다. 소향이 그런 손을 쓰는 것도 미연을 수진에게 주고 싶기 때문임을 그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결연히 외치는 것이다.

‘결단코 안돼! 미연 씨를 삼촌에게 주다니!’

홍분이 가라앉자, 인철은 이렇게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내가 뭐 미연 씨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선량한 여인을 이리의 입에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인철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각각의 당사자에게 털어놓아도 좋을 지 어떨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은행 다니는 친구에게는 잘 말해 둔 터라 대강 문제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번에 실패했다고 해서 수진이 깨끗이 단념할지 어떨지는 일단 생각해보아야 했다.

그러나 부친과 조부에게는 잘 마무리되었다고 숨기고 지나갔다.

남은 것은 미연과의 일인데, 자기가 조부에게 오해받는 것은 괜찮다고 해도, 미연의 신상에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한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미연에게 알려주어야 할지 어떨지, 인철은 결론내리지 못한 채 괴로워했다.

‘굳이 일을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 악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면 그것도 굳이 사양하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당분간 조용히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응시하기로 했다.

어느 사이엔가 귀뚜라미가 우는 계절이 되었다. 아침저녁 같은 때는 서늘하게 느껴졌다. 소나무에 둘러싸인 뒷산 낙엽수에 살금살금 다가오는 가을의 발걸음에서도 계절이 느껴졌다.

이 짧은 기간에도 청기와집에서는 실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났다.

소항이 대감에게 재산 분배를 하자고 대들었다든가, 인숙과 고모인 수영이 맞붙어 싸웠든가, 수봉이 호랑이 새끼처럼 소중히 여겼던 아프리카 산(産) 곰 가죽을 누군가(수진의 소행이라고 여겨졌다) 훔쳐갔다든가, 그런 것은 이 집에서는 그렇게 희귀한 일도 아니었다.

그러나 며느리 성희의 가출은 대사건이었다.

‘머지않을 것이다.’

수봉도 인철도 그렇게 짐작하고는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그때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장을 보러 나간 채 이튿날까지도 돌아오지 않으니 이미 단념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산에서 편지가 도착했던 것이다.

“아버지,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침통한 목소리로 사죄하는 아들을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권 노인은,

“갔느냐. 잘 가 주었다.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여자야. 그런데 수봉아, 조강지처를 버린 천벌을 깨달았느냐? 알았으면 그만 내려가거라!”

자기 방으로 가자, 수봉은 성희와의 결혼사진을 천천히 떼어내 불을 붙였다. 사진이 다 타갈 무렵, 와타나베 교수와 교수의 동년배이자 신문사의 정치부장을 하고 있는 김(金)이 송죽매(松竹梅)를 들고 우르르 몰려 왔다. 김이 도중에 붙들었다고 했다. 수봉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긋하게 늦게까지 담소하였다.

“아내가 드디어 가출하고 말았어.”

장이라도 보러 나갔다는 어투로, 기가 죽지도 않은 채 수봉은 말했다.

“마침내 나갔어? 그거 딱하군.”

“딱할 거야 뭐 있나. 덕분에 가슴이 후련해졌는데.”

“상하이(上海)로?”

“아니, 남쪽 나라야. 남쪽 나라.”

“그렇게 말했어?”

“아니, 말하지 않았지만, 제비와 함께니까 남쪽이 틀림없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고 와타나베 교수도 폭소를 터트리며,

“자네는 역시 위대해. 유쾌한 남자야!”

한편 지금 청기와집에는 돌연, 김 모라는 고리대금업자에게서 채무독촉장이 도착했다. 금액은 일천 원, 변제 기일은 이미 사흘이나 지났다. 앞으로 사흘간 유예를 줄 테니 그날까지 변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차압한다는 내용이였다.

독촉장을 받은 인철은 마침 외출하려던 수진을 살짝 뒷산으로 피어내어,

“이거 본 기억 없습니까?”

일을 너무 악화시키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면서 물어 보았다.

“누구에게서 온 거지?”

“김입니다. 서대문의.”

수진은 독촉장을 대충 훑어보고는,

“미안하다. 어떻게든 내가 변제할 작정이었지만, 그게 잘 안 됐어.”

“은행金は?”

인철은 화를 누르지 못하고 불쑥 말을 해버렸다.

“어쨌든 할아버지 도장을 돌려주세요.”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있지 않다니요? 이것도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 할아버지 도장을 찍었을 텐데, 은행 건도 할아버지 도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빌어먹을, 그 원숭이 놈, 잘도 째미 했구나! 감쪽같이 당했다. 좋아 두고 보자!”

그렇게 말하고는, 조끼의 안쪽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내주며,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고는 미끄러지듯이 산을 내려갔다.

인철은 잠시 말도 않고 움직이지 않은 채, 멍하니 바위에 걸터앉아 있었다.

천 원. 그것은 이미 청기와집으로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큰돈이었다.

‘악당, 저런 악당에게 미연 씨가 가당키나 한가!’

서모가 가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기도 했지만, 여름 내내 거의 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조부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조부에게 얘기한들 별 수 없는 일이라, 인철은 부친에게 말을 꺼내 보았다.

“또 일을 저질렀구나! 바보 같은 녀석이…….”

그러나 화를 내봤자 별 수 없음 깨닫고는,

“하는 수 없지. 피아노를 팔아 버려라! 아마시타악기(山下樂器)에 얘기하면, 금방 인수해 줄게다.…… 아니, 그것으로는 부족하겠군. 내가 나갔다 오지!”

부친은 그렇게 말하고 막 읽기 시작한 『철인(哲人)』을 ‘턱’ 소리를 내며 덮고는, 안채 쪽을 향해,

“게 누구 없느냐?”

“부르셨습니까?”하고,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연이 나타났다.

“미연 씨네? 미안하지만, 옷을 갖다 줘. 갈색 옷이야.”

“네.”

부친을 배웅하고 나니, 인철은 폐허에 쓸쓸히 혼자 남았을 때의 그 공허한 기분에 휩싸였다. 누군가에게 안겨 마음껏 울고 싶은 기분이라도 들면, 닥치는 대로 모조리 부숴 버리고 싶은, 어찌 할 도리 없는 기분도 드는 것이었다. 그는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양손을 뻗었다. 그러나 안긴 것은 커다란 허공뿐이었다. 허공만큼은 무작정 푸르다.

“미연 씨, 당신은 왜 모른 채 하십니까? 무슨 말이든 해주세요. 무슨 말이든…….”

그는 입 밖으로 그렇게 외쳤다.

‘불쌍한 사람!’

수봉의 방을 정리하면서, 아까부터 창 너머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미연은 이렇게 작게 마음으로 외쳤다.

죄와 벌

어두운 밤에 등지를 차고 날아오른 작은 새가 칠혹 같은 하늘을 아무런 목표도 없이 헤매 날듯이, 유해성은 첫사랑의 상처를 입자 곧장 훌쩍 방을 나섰다.

낮에는 환영(幻影)에, 밤 또한 괴이한 꿈에 쫓겨 다니는 터라, 그는 이미 심신이 모두 기진맥진하여 완전히 지쳐 있었다.

“선생님, 또 어디 나가세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 바느질 일로 아들을 키우며 약간의 돈까지 모았다는 주부는, 추궁하듯이 말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지금 바로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만.”

“됐습니다. 친구 집에서 먹고 올 테니.”

유해성은 미연에게는 이미 편지도 받을 수 없다고 단념하고는 허둥지둥 지금의 농가로 하숙을 옮겨 버렸다. 주거도 식사도 이전 집보다 나빴지만, 뒤로는 산이 이어져 있고 앞으로는 열 정보(町步) 이상 되는 논이 이어져 있어서 경치는 좋았다. 그가 얻은 방의 창가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어 손을 뻗으면 감을 한두 개 정도는 딸 수 있을 듯했다. 장지문을 열면, 하얗게 뻗은 신작로(新作路)를 흰색의 대형 버스가 달리는 것도 보였다. 언제 돌아와도 깨끗하게 방을 정리해주는 것도 고마웠다.

그는 낮밤 구별 없이 불쑥 나가는데, 일요일 같은 때는 하루 종일 이 버스를 바라보기도 하고, 산 너머 강둑에 앉아 푸른 물을 내려다보며 지냈다. 뒷산에 오르면, 산기슭 일부가 깊은 숲을 이루고 있다. 이쪽 산은 대체로 나무가 우거졌는데, 이 산이 이어진 곳에 커다란 묘가 있었다. 묘 앞에는 혼유석(魂遊石), 그 앞에 상석(床石)과 제석(祭石) 모두 섬돌로 구분되어 있고, 양측에는 장군석(將軍石)과 망주석(望柱石)이 공수(拱手)하고 주옥 멈춰서 있다. 주위는 노송으로 뿍뿍이 둘러싸여 있지만, 전방(前方)만큼은 산기슭까지 아름다운 잔디가 산읍(山邑)을 향해 펼쳐져 있다. 그것은 묘라기보다는 능이라 할만했다.

유해성은 이 잔디에 큰 대자로 누워 봄을 보내고 초여름을 맞이했고, 나날이 높아지고 그리고 푸르러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쪽빛 하늘에 ‘미(美)’ 자와 ‘연(燕)’ 자를 크게 그려 보는 것이다.

‘아름다울—미…제비…연…미…연…미…’

이 얼마나 최상의 글자인가. 이 두 개의 글자를 몇 백, 몇 천 번이나 그는 썼던 것일까.

학교에서는 운동장 한쪽 구석에, 하숙으로 돌아가면 원고지에, 강으로 나가면 모래 위에 썼다. 잔디에도 하늘에도 썼다.

‘미(美)—아름다운 글자다. 제비(燕)—또 얼마나 귀여운 글자인가.—나는 평생, 이 귀여운 두 개의 글자를 미워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유해성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아무래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어째서일까. 태어나 처음 바친 참으로 존엄한 남자의 순정을 짓밟고 농락한 여자를 원망 한 마디도 할 수 없

으니, 나는 정말이지 기개가 없는 남자인 걸까?

‘허영 덩어리다. 이 아름다운 산읍에서의 단정한 삶과 사랑보다도, 도회의 화려한 생활에 눈이 먼 여자다.’

그는 애써 그렇게 믿으려 했다.

‘그 여자는 지금쯤 이미 새로운 사랑에 세월이 가는 것도 잊어버린 게 틀림없다. 지금 여자에 닮고 닮은 늙은 남자에게 안겨, 2년간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도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던 남자를 비웃고 있을까?’

그녀를 이렇게 경멸할 수 있는 동안은 아직 괜찮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시치미 떼고 있는 것을 깨닫고는 크게 웃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하하하하.”하고 마음껏 웃어도 보았지만, 이내 그는 웃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울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하여 부산스레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었다.

“역시 여기 있군.”

같은 문학 지망생 이완규(李完圭)가 이 홉짜리 병에 오징어 명태 따위를 들고 바람처럼 나타났다. 시가지만 아니라면, 이(李)는 어두운 밤이라도 그가 있는 곳을 용케 찾아냈다.

시가지의 뉴스를 갖고 오는 이도 그였다.

“어떻게 강남(江南) 여자에게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어?”

그렇게 말하고 이는 그림자처럼 옆에 엎드려 누웠다. 이는 미연을 언제나 이렇게 불렀다.

[주] 강남이란 남쪽 나라의 의미다. 제비는 음력 3월 3일 강남에서 와서 9월 9일에 강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또냐? 보기 싫은 녀석!”

“그래도 그 여자 얘기를 듣지 못하면 쓸쓸할 걸.”

“바보! 그런 여자가 일 따위, 나는 이미 완전히 잊었어.”

“미와 연의 두 글자는 못 잊으면서?…….”

“…….”

“하지만 이제 적당히 일단락 지으라구.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에게 붙들려 지금은 시골에 처박혀 있지만, 아버지마저 돌아가면 떠날 거라고. 그때도 나는 정말이지 알리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자네가 일단 단념한다면 침착하게 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지. 하지만 뭐, 좋아. 자네는 뭐라 해도 행운아야. 자, 한 잔, 오늘 술은 정말 좋은 놈이야. 그녀가 몰래 보내 준거야.”

그는 남원에서 왔다는 요릿집 시골 기생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다. 술을 좋아하는 이는 마지막 잔을 기울이고는,

“뭐, 돌아가 두 글자 연습이라도 해야지?”

하고는 황망히 돌아간다.

— 미연이 떠난 이래 유는 이 이외에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다. 품행이 방정한 여학생처럼, 학교

가 끝나면 쏠살같이 하숙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도 신작로를 지나면 상당히 가까운데도, 일부러 밭이랑을 따라 아카시아 숲을 지나고, 가는 모래천의 징검돌을 건너 산기슭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오는 것이다.

“어머, 선생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진흙…….”

과부는 진흙투성이가 된 신발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신작로를 지나오면 괜찮은데. 선생님은 언제나 그 길이니, 어떻게 된 거죠?”

“재미있으니까요.”

“재미있다고요? 설마, 재미있을라구요?”

그러면 유는 진지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첫째, 먼지가 나지 않지요. 버스가 지나가면, 정말로 참을 수 없다니깐요. 그러나 이 길로 오면, 아침에는 이슬이 주옥처럼 빛나고, 가련한—귀여운 풀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또 종달새가 발 밑에서 날아오르고…….”

시라도 낭송하듯 읊조리자, 주부는,

“어머, 선생님 달라지셨네.”하고 놀란 얼굴을 했다.

일단 학교에서 돌아오면, 유는 시가지에 다시 나가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방에 틀어박혔다. 그렇지 않으면, 묘지나 강으로 나간다. 달밤 같은 때 저녁 식사도 거르고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일도 있었다.

그날도 유는 묘지 잔디밭에 누워서 초저녁의 산업을 내려다보면서, 문득 산골짜기의 온천 시가지를 생각했다. 그러자 언제나처럼 이가 오래된 술을 갖고 와서는,

“자네, 이상한 소문 들었나?”

“무슨?”

흥미 없는 듯이 중얼거리자,

“이봐, 좀 더 가까이 와봐. 자네 자신에 관한 거야. 자네 여옥에게 뭔가 구두로 언약이라도 했는가?”

“여옥에게?”

유는 여옥이라는 말을 듣고는 별떡 일어나,

“여옥이 어쨌다는 겐가? 어떤 소문이지?”

“자네, 정말 구도로 언약 따윈 하지 않았지?”

“자네에게 얘기한 대로야. 그 여자에 관한 거라면 조금도 가감없이 얘기했다구. 뭔가 있는 겐가? 무슨 소문인데?”

“여옥이 말이지, 부모가 아무리 결혼 상대를 권해도, 자신은 상대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모두 딱 잘라 거절하고 있다는군. 그중에는 소지주의 차남으로 여옥에게는 분에 넘치는 상대가 있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했지만, 완강히 듣지 않았던가봐.”

“그래서?”

“그럼, 누구냐? 상대를 밝히면 납득하겠지만, 거짓말이라면 죽여 버릴 거라고 부친이 화가 나서 서슬이 대단했던가봐. 그러는 동안, 그 소문이 신랑 집에 들어가서 그런 여자라면 쥐도 안 받는다고 거

절했던 듯하고. 그래서 부친이 옥해서는 때려눕힌 것 같아.”

유는 무언가 요부의 얘기라도 들은 듯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여옥이 자백했다는 건가?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자네의 이름까지 말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학교 선생님이라고 말했나봐.”

“그래?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성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뭘, 좋아. 나는 이 연극이 누구의 각색이고 누구의 연출인지 정도는 대충 알고 있어. 각색은 그녀의 사촌 언니야. 저 강 건너편에 사는 그 똥똥보 계집년이지. 연출은 먼저 번 하숙집 주부고. 이유는 내가 하숙집을 나왔으니깐. 나는 식사비 외에도 세탁비라든가 하숙하고 있는 예의상 여분의 몫을 냈었거든. 그게 그녀들에게는 좋은 별이가 되었었는데, 내가 나와 버리니 그만 옥이라도 내뱉고 싶어진 게지.”

그를 깊이 믿고 있는 이(李)조차 어딘가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침묵했다. 그런 이의 태도가 몹시 그를 우울하게 했다. 불쾌하기도 했다. 슬프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그를 납득시키는 것은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가신 생각이 들어,

“하지만 이런 소문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 아무튼 하루 이를 생각할 시간을 주게.”

그렇게 말하고 이를 돌려보냈다.

유는 혼자가 되자,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여옥이 자기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에게 특별한 얘기도 없는데, 그것을 거절할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모르는 체 했다.

처음으로 여옥이 그와 교섭해 온 것은 그녀의 사촌 언니를 통해서였다. 정에 약한 그는 얼굴을 마주하고 냉정하게 거절하게 할 수 없어서,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옥 씨는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을 뭔가 불구라도 되는 듯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결혼하게 된다면, 도회 여자는 사양입니다. 농촌 처녀가 순박하고 좋지요.”

이렇게 회피했다.

‘결국 실수는 내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때의 내 얘기는 그들의 교양과 이해력에 비추어 지나치게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웬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다란 죄를 지은 듯한 기분마저 드는 것이었다.

‘좋다. 어쨌든 여옥을 만나자. 여옥의 얘기를 듣고 부친과도 만나 주자.’

그렇게 결정하고는 주부를 불러,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만, 부탁 하나 들어 주세요. 극히 비밀입니다만…….”

오해받으면 도리어 이상하게 되어 버릴 지도 모르겠기에, 유는 일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편지를 몰래 전해주도록 부탁했다.

주부는 잠시 뭘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약간 거무스름한 여자지요? 선생님.”하고 대꾸했다. 유가 깜짝 놀라자, 주부는 뿌듯하다는 듯이,
 “벌써 사오 일이나 되었으니까, 내일쯤 올 텐데.”
 그는 점점 더 여우에게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여자가 아주머니 친척 됩니까?”
 “아니요.”
 “그럼, 전부티 아는 사이군요?”
 주부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유는 몹시 초초해져서,
 “그럼, 뭘니까? 어째서 아주머니에게 오는 거지요?”
 “선생님의 빨래를 하러 오지요. 오룩 일에 한번씩은.”
 “제 빨래를 말입니까? 언제부터요?”
 “선생님이 이사하시고 나서 곧.”
 “바보 같으니!”

유는 심하게 한 방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다. 가슴이 막혀 숨쉬기조차 괴로웠다. 심한 울분과 비애가 입 밖으로 나오려고 서로 앞을 다투어, 두 개의 걱정이 모두 목구멍에서 막혀버리고 말았다.

뭘가 얘기하려고 초조했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해도, 욕설을 퍼붓든지 아니면 울음을 터트리든지 그 어느 쪽이 되었을 게 틀림없다.

간신히 기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으로서는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며,

“아주머니, 그 사실을 왜 제게 숨겼습니까? 네? 그 여자에게 그렇게 부탁받았나요?”하고 물었지만, 역시 거칠었는지 주부는 겁을 집어먹고는 고개를 약간 끄덕여 보였다. 그것을 보자, 이미 꼴도 보기 싫어져 팡 하고 장지문을 닫고는, 온돌 바닥에 몸을 던져 버렸다. 그는 신음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하숙집 여자 셋이서 함께 나를 함정에 빠트리라고는! 그 여자와 나는 뭘가 숙명적으로 이어져 있더라도 한 걸까. 그 느려터진 감동이 녀석 밥벌레와…….’

유해성은 나오는 대로 욕설을 퍼부었다. 얼마간 욕을 퍼부어도 여전히 어딘지 부족했다. 그 까만 여자애가 손이 닿는 곳에라도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이 흠씬 패주고 싶은 충동을 어떻게든 할 수 없었다.—그 흥분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여름밤의 새벽녘은 성급하다. 약간 어둠이 벗겨지는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미 산읍 너머로 솟아 오른 산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안개가 가랑비처럼 내리기 시작해 산읍도 산의 자태도 다시 깊은 젓빛에 싸였다. 오늘도 또 날이 겹 것이다.

유는 고무신을 신고 산에 올랐다.

산읍의 흰 담벼락들만 아득하게 보이고, 안개가 먼 지평선에 길게 뻗어 있다. 안개 깊은 바다 같다. 점점이 흩어져 있는 흰 담벼락도 범선을 연상케 한다. 바라보고 있는 동안, 유는 문득 바다가 그리워졌다. 이미 여름방학도 가까워지고 있다. 여름에는 한번 동해안으로 가보자. 그렇게 생각했다.

아침식사도 적당히 마치고, 유는 책보도 없이 학교로 갔다. 오늘쯤 여옥이 올지도 모른다고 들은

터라 오전 중에 돌아올 작정이었다. 그런데 심한 두통이 찾아와 한 시간만 마치고는 기무라(木村) 선생에게 담임 일을 부탁하고 서둘러 돌아왔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날도 여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튿날 학교를 쉬고 기다렸지만, 역시 헛 일이었다.

‘좋아, 오늘 밤은 내 쪽에서 가 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여느 때처럼 작은 길로 나왔다. 아름다운 별 밤이다. 아름답게 빛나는 별을 올려다보고 있자니, 문득 미연들과 안대영 씨의 장지(葬地)에 갔던 날 저녁이 생각난다. 미연은 아무리 기다려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산을 내려온 것은 이미 해질 무렵이었다.

미연은 길에서도 줄곧 울었다. 미연의 오른쪽에는 그녀의 어머니의 먼 친척뻘 아주머니, 왼쪽에는 유와 이가 나란히 걸었다. 물론 한 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그는 행복했다.

‘이번 일요일에는 안 선생님 성묘를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모래천을 건너 아카시아 숲의 입구로 나가니, 이쪽으로 다가오는 사람 그림자가 눈에 띄었다. 흰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다.

분명히 여자다.

여자도 이쪽을 확인한 듯, 얼른 걸음을 멈추고 잠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 그늘에 길을 열어주었다.

유는 문득 어떤 예감이 들어 지나는 길에 끝까지 지켜보니, 과연 그녀다.

“여옥이! 여옥이 맞지!”

여옥은 묵묵히 매미처럼 나무에 바싹 붙어있었다.

“잘 만났어. 나도 지금 당신 집에 갈 작정으로 나온 참인데. 자, 아무튼 이쪽으로 나오지.”

유는 명령하듯이 말하고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성큼성큼 아카시아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옥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왔다. 아카시아 숲은 작은 시내를 끼고 포플러가 심겨진 작은 제방과 서로 마주하고 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작은 시내는 간신히 흐름을 유지하고, 흰 모래가 별빛을 받아 길게 가로누워 있었다.

유는 이 모래 위에 자리를 잡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낼 지 망설였다.

여옥은 주뻗주뻗하며 손 둘 곳을 몰라 곤란해 하고 있는 모습이더니, 가져온 온 보따리로 손을 가져가 잠시 주저하다가는, 가까스로 결심한 듯,

“이거, 선생님.”하고 그에게 쪽 내밀었다.

“뭐지, 그건?”

“저…….”

여자는 부끄러운 듯 양 어깨를 움츠리고는,

“선생님께 드릴 생각으로…….”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냐고 묻지 않아?”

“저……옥수수예요.”

“바보 같으니! 누가 이런 걸 먹고 싶다고 했어?”

유는 격한 분노에 사로잡혀 소리를 지르고는, 보따리를 냇가 맞은편으로 던져버렸다.

“내가 네게 이런 걸 먹고 싶다는 말 따위 하지 않았잖아?”

머리를 움켜쥔 채, 때려눕히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다가 문득, 일주일 전에도 책상 위에 옥수수가 놓여 있던 것을 떠올리고는,

“그럼, 요전에 내 책상 위에 가져다 놓은 것도, 네가 한 짓이냐?”

“네.”

“그리고 언제가의 참외도?”

“네.”

“참외도 말이지?”

“네.”

“아—.”

유는 신음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오랫동안 모래사장에 몸을 내맡겼다. 돌맹이에라도 부딪쳤는지 머리가 아팠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수많은 별들이 당장이라도 자신을 향해 쏟아져내릴 것 같다. 유성(流星)이 동남쪽 하늘에 길게 드리웠다.

긴 침묵이었다.

오랜 침묵 뒤에 유해성은 아까의 그 격한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분노는 슬픔에 사르르 녹아 화가 나도 화낼 낼 수 없는 기분이다.

‘그래, 이런 무지한 여자에게 화내는 놈이 바보다. 나는 이 여자에게서 여러 가지 것을 받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옥수수에……수박에……참외에……고구마에……아니, 그리고 보니, 전에 밤늦게 구운밤도 받았고, 감도 받았고…….’

무지를 웃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화낼 이유가 있을까. 유는 여욕이 불쌍해졌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몸을 일으키고는, 여자의 어깨에 손이라도 얹을 듯한 음성으로,

“여욕아, 내가 나빴다. 자, 옥수수를 가져와. 함께 먹자.”

여자는 눈물을 흘쩍이면서도, 신이 나서 일어섰다.

여욕은 보따리를 펼치며,

“옥수수가 아주 연해요. 선생님.”

“아, 고마워.”

유는 복수라도 하듯 걸신들린 듯이 옥수수를 먹어댔다. 먹으면서,

“옥수수가 맛있구나. 아주 맛있어.”하고 마치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다.

여욕은 이제 완전히 조금 전의 겁에 질린 모습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유가 자기 뜻을 따라 주었다고라도 생각한 듯,

“선생님께 드릴 생각으로 거름을 듬뿍 주어 키워어요. 선생님께서 맛있다고 하시니, 저는 눈물이 나와서…….”하고 정말로 흑흑 흐느껴 울고 마는 것이었다. 이렇게까지 되자, 유는 이제 화나 있는

자신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를 상대로 더 이상 결코 화내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에게 맹세했다. 그래서 그는 여옥이,

“이거, 손수건과 넥타이…….”하며 네 번 접은 것을 건넸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받고는 예의를 표했다.

“고맙다.—그런데 여옥아, 최근 좋은 신랑감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언제 식을 올리지?”

“식어요? 그만두었어요.”

“왜?”

여자는 침묵했다.

“응, 말해봐.”

“선생님, 화내시면 슬퍼요.”

“아니, 절대로 화 안낼게. 봐, 지금 그대로 웃고 있잖아.”

“정말이에요?”

“정말이고말고. 그러니 여옥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모두 말해.”

“저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옥은 기죽지 않고 말하고는 물러났다.

무슨 소리에 놀랐는지, 산기슭에서 꿩이 새된 소리를 지르며 별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하지만 여옥아, 만약 내가 다른 자리에 결정된 곳이 있다면 어찌지? 나는 말이지, 이미 진작부터 아버지 쪽에서 결정한 여자가 있어. 지금은 돈도 없고 나이도 아직 안 차서 이러고는 있지만…….”

그는 마치 담임 맡은 아이를 잘 타이르듯이 순박하게 타일렀다. 그가 우려한 대로, 여옥은 그가 말한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생님께서 장가드시게 되면, 선생님 댁 부엌일이라도 할게요.”

여자는 그렇게까지 말했다.

‘엄청난 비극이다!’라고 해성은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 여자는 평생 나를 따라다닐 작정이란 말인가. 웃으려야 웃을 수도 없고, 화내려야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울고 싶어도 울 수도 없었다.

‘이 무지함을 사람들은 순정이라든가 소박함이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순정이라 치자. 소박함이라 치자. 그러나 나는 평생 이 순박함에 묶인 채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유가 이렇게 초조해하고 있자니, 여옥이,

“나도 알고 있어요. 미연 씨 일을. 하지만 선생님, 미연 씨에게는 제가 부탁해 두었어요.”하고 태연히 말했다.

유는 바로 화가 나서 발끈해졌지만, 간신히 가라앉히며,

“미연 씨가 그래, 뭐라고 말했지?”

“제게 선생님을 줬어요.”

“바보 같으니!”

마침내 그도 울화통이 터져 버리고 말았다.

“이 바보 같으니! 내가 옥수수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네가 미연을 떠나가게 했구나! 빌어먹을!”

그는 발광이라도 한 듯 큰소리로 외치면서, 여옥의 옆구리를 발로 차며 일어섰다. 그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달렸다.

여옥의 슬픈 오열이 어디까지고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떤 철새일까. 별 하늘을 비명을 지르며 스쳐 지나갔다. 개구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울고 있었다. 어느새 시가지에 도착했는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 개 울음소리를 듣고, 여옥은 꿈에서 깬 듯 몸을 일으켰다. 개구리만 몹시 소리 내어 울고 있다. 단조로운 음이 주위의 정적에 융합하는 듯하고, 주위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바짝바짝 가슴이 조여 온다.—그런 정적이었다.

그 정적이 또 새로운 슬픔을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버림받은 거야…….”

그녀는 그 슬픔을 부채질하듯이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또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사랑의 말 한 마디 속삭여주시는컸녕, 큰소리로 꾸짖고 발로 걷어찬 애인. 밤이면 밤마다 꿈에 보았던 그는 마침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원망의 한 마디도 할 수 없는 그녀였다. 다만, 신랑이 되어 주지 않아도 좋으니, 하녀가 되고 싶다는 마지막 바람조차 거절하는 선생님의 본심을 알 수 없었다.

‘나는 아내로 맞아 달라고는 하지 않았어. 밥 짓는 사람으로 고용해주면, 죽을 때까지 곁에서 선생님을 볼 수 있다.—그것으로 좋다고 했는데…….’

남이 들으면, 그것은 꾸밈이었다. 그러나 여옥은 진지했다. 곁에서 식사와 빨래를 도와줄 수 있고, 평생 곁에 있을 수 있다—그것만으로도 커다란 행복이었다. 그 최소한의 행복마저 선생님은 거절했던 것이다.

‘나는 죽는다. 살아 있어도 무슨 좋은 일 따윈 없는 걸.’

여옥은 그곳을 떠났다. 두세 걸음 걷다가 보따리를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되돌아와 보따리를 집어 들었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 쓰러질듯 걸으며 발두둑을 따라 발을 옮겼다. 얼마간 걷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발이 유해성의 하숙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잠시 망연자실했지만, “그래, 어차피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이다. 문구멍으로라도 한번 잠깐 봐두자.”

그녀는 또 걷기 시작했다.

유해성은 없었다. 책상 위에는 원고지와 책이 흩어져 있었고,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여옥은 물릴 줄 모르고 어슴푸레한 실내를 바라보며, 책상에, 사진 액자에, 벽에 매달려 있는 오래된 옷에, 하나하나 작별을 고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곧 다시 돌아와서는, 보자기에 싸인 옥수수를 정성껏 책상 위에 꺼내 놓고 뒷산의 숲 쪽으로 사라졌다.

뒷산은 야산이었는데, 크고 작은 나무로 뒤덮여 있고, 강까지 이르는 길은 대낮에도 어슴푸레했다. 여옥은 그다지 무섭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강안으로 나갔을 때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강은 별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동안, 넓은 신작로가 펼쳐지기도 하고, 많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이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띠를 고쳐 매고 눈을 감고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의 순서로 이야

기하듯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오랫동안 기도했다.

“선생님, 제가 나뻐습니다. 저는 행운아입니다. 선생님께 참외도 감도 드릴 수 있었고, 선생님께서는 손수건과 넥타이도 받아 주셨어요.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미련 같은 건, 그런 건…….”

언제부터 흐려지기 시작했는지, 번개가 여기저기서 번쩍이는가 싶더니, 이윽고 우르르 쿵쿵 천둥이 치고, 굵은 빗줄기가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1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비는 토사가 되어 내리고 말았다. 천둥소리도 점점 커지고 더 격렬해졌다.

“아, 무서워!”

이렇게 외치는가 싶더니, 여옥은 정신없이 산에 올라가 산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에 몸을 웅크린 채 비를 피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서도, 그녀는 그다지 부끄럽다거나 이상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강물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읍내로 왔습니다.”

“읍내로 와서는?”

“술 마시며 다녔습니다.”

“그곳에서의 일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읍내에 도착한 것은 몇 시경이었습니까? 시간과 장소와 인물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읍내의 돌다리에 이른 것이 마침 9시였습니다.”

“시계를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기분이 우울해져 술이라도 한 잔 하고 싶었는데, 늦어지면 친구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본 것입니다. 먼저 성 밖의 이완규 군을 찾아갔습니다만 만나지 못했고, ‘청조(靑鳥)’에 가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자니 그곳으로 이가 왔습니다. 다음으로 춘심관(春心館)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하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부보(警部補)의 보안 주임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천천히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후로는 일체 여옥과 만나지 않은 거군요.”

“만나지 않았습시다.”

“그렇습니까?”

“주임님, 속 시원히 말해주세요. 여옥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참기 어려워 유해성은 물어보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여옥의 부친이 타일러 달라고 부탁해 와서……”하고 가볍게 얼버무리며, 주임은 또 얘기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그러면 유 선생님, 당신은 전혀 여옥의 몸에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에게 맹세코.”

“만일, 임신하고 있었다면?”
주임은 험악하게 유를 노려보았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쩔 건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내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맹세합니다.”
“본인은 죽어도 당신의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과 만나게 해 줄까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옥의 몸에 닿은 것은 어젯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 구두코뿐이었습니다.”

‘쿵’ 하고 주임이 탁자를 두드렸다. 귀가 오랫동안 ‘윙’ 하고 계속 울렸다.
“그렇게 자네를 생각하고 있는 여자를 차는 건 뭐가? 그것이 인정인가? 더구나 정(情)을 주지로 삼는 교육자의 처사인가! 나는 자네가 여옥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을 꾸짖고 있는 게 아니야. 자네는 무지하다든가 이해부족이라고 수없이 되풀이하며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모든 잘못을 여자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데, 그건 적어도 무지와 이해부족을 계몽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닐 텐데! 모르면 잘 깨우쳐주고, 나쁘면 훈계하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것이 자네의 천직이 아닌가. 하물며 서로 사랑한 사람을 발로 걷어찬다는 것은 무슨 경우야?”

실내 분위기가 급변하는 것을 느끼자, 유해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기분을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고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러자 주임은 ‘짹’하고 긴 칼 소리를 내며 일어서서는,
“자네에게 발에 차여 여옥은 죽었어! 바보 같은 놈, 너는 이제부터 살인범이야! 이봐, 하야시(林) 군, 이 교육자를 잠깐 부탁해.”

그렇게 말하더니, 마루를 빼걱거리며 걸어가 옆방으로 사라졌다.
유치장에 갇힌 것은 아니었지만, 유해성은 다다미 세 장 크기밖에 되지 않는 유리창 높이의 작은 빈방에 갇힌 채로 밤을 맞았다. 몸에 두를 것을 허락받은 것이 그나마 우대였다. 점심 식사를 막 마치려던 참에 교장에게 호출되어, 학생들 앞에서 포승줄에 묶이진 않았지만, 사복형사에게 내쫓겨 온 것이 1시경. 이후로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했다.

막 어두워졌을 무렵, 식사가 운반되었지만 젓가락도 들지 못했다.
‘살인범!’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오싹 오한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만한 일로 인간이 죽는단 말인가.

‘그런 일이 다 있는가. 금붕어도 아니고, 사람이 구두코에 약간 채였다고 그렇게 쉽게 죽을 수 있던 말인가.’

궁하면 인간은 누구든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게다가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찬 것도 아니다.’
그는 일그러진 의자에서 일어나 부서진 탁자와 의자, 서류 상자 등의 잡동사니 사이를 누비고 걸으면서,

“그럴 리가 없어!”하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그때 문득 어릴 때의 추억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가 아직 보통학교(자금의 국민학교 전신)에 다니고 있을 때니까, 이미 20여 년 전의 일이다.

‘신랑 괴롭히기’라는 풍속이 있었다. 신랑이 신부를 얻으러 오면, 마을의 젊은이들은 새끼줄과 나무 방망이를 준비해서,

“신랑을 즉각 붙잡아 온다!”하고 외치기가 바쁘게, 신부 집에 몰려가 신랑을 데리고 왔다. 마을 청년들은 신랑의 손발을 묶어 올려 물구나무 세운 채, 한 사람이 발을 어깨에 걸치고는 나무 방망이로 철썩철썩 두드려 패는 것이었다.

“자, 우리 마을 처녀를 채가는 거니, 잔뜩 내놓아야 해. 자, 술이 한 말, 좋아. 그리고? 고기가 열 근—열 근이면 부족하다. 더 쳐라! 좋아, 스무 근…….”

[주] 조선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틀 밤을 자고, 사흘째에 신부를 데리고 돌아온다.

그런데 묶은 새끼줄이 풀려 신랑이 주먹으로 걸쳐 멘 사람의 아랫배에 일격을 가하는가 싶더니, 맞은 사람이 그만 풀썩 쓰러져 부글부글 거품을 뿜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것은 남에게 들은 얘기도 아니고, 그 자신이 목격한 일이었다.

‘살인범! 사람을 죽인 선생!’

식은땀이 이마에 흘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음의 균형을 얻었다. 깨끗이 단념했다.

‘죄에는 별이다. 사람을 죽인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나는 깨끗하게 벌을 받자!’

해성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렇게 결심하자, 그의 마음은 다소 가벼워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옥의 애처로운 죽음에 생각이 미치자, 고개가 푹 숙여졌다.

‘살인자로서의 형을 받아 내 죄 값을 치르자. 하지만 여옥에 대한 죄는?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탓으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 손에 죽은 참으로 가련한 여옥에 대한 속죄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유해성은 외쳤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살아서 평생 나를 따라다니고자 했던 그녀가 뜻하지 않게 죽어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그는 『죄와 벌』의 대학생을 생각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인간 흡혈귀를 죽인 것이다. 악마의 화신을. 그러나 나는 참으로 선량하고 소박함 그 자체인 가련한 여자를 사랑해준 대가로 죽인 것이다.……나는……나도 죽자. 죽음으로써 라면, 여옥도 용서해주리라.’

그는 결심했다. 그리고 방법을 생각했다. 실내를 둘러보았더니, 부서진 탁자 아래의 한 다발 새끼줄이 눈에 띄었다. 용도는 모르겠어도, 그것은 분명 삼베 끈이었다.

여름 아침의 산읍이 꿈나라의 그림처럼 깊은 안개로 덮여 있다. 안개는 구름을 연상케 하며 천천히 골짜기로 흘러 사라졌다. 그러자 또 다른 안개의 흐름이 산꼭대기로부터 조용히 내려오고 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산읍은 흐릿한 달밤의 호수를 떠올리게 한다. 산꼭대기를 붙

들고 조용히 그 호수를 뒤흔들고 있는 듯도 하다. 호면(湖面)에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나타났다. 그곳에 수많은 신비가 감추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리는 동안 안개가 걷히고, 동쪽 산 하늘에 새벽의 아리따운 눈썹달이 하얗게 빛났다. 얼마간의 소금기마저 느끼게 하는 습기 많은 아침 기운이, 8월의 햇살을 받아 열은 자색으로 뿌옇게 흐려 보였다. 졸음마저 재촉하는 정적이 산읍의 상공을 뒤덮듯이 펼쳐지고 있다.

“어—히, 어—히 어—히, 어—히—.”

남부 조선을 관통하는 포플러가 늘어서 있는 신작로를, 이상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침 정적을 깨트리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빨강, 파랑, 노랑, 녹색의 원색으로 칠해진 상여(喪輿)에, 좌우로 나누어져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모여들고 있다. 방울 잡이는 장송곡의 슬픈 가락에 맞추어 조사(弔辭)를 소리 높여 부르고 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히, 어—히.”

그러자 상여를 멘 사람들이 따라 부른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히, 어—히.”

“칠십 평생을 다 살아도, 여전히 한은 다함이 없는데, 어—히, 어—히, 이팔청춘 꽃봉오리 채로 시들리라고는, 어—히, 어—히, 청산(靑山)에 계시는 보살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히, 어—히. 죄로구나 사랑도. 어—히, 어—히.”

장례식이란 것도 없는 쓸쓸한 상여였다. 깊은 생각에 빠진 채, 여옥의 부친이 가로수 아래를 터벅 터벅 걷고 있다. 상주 대신 소학생인 그녀의 남동생이 묵묵히 뒤따르고 있다.

상여에서 조금 떨어져, 두 사람의 청년이 상여를 뒤따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궁상맞은 상여에 어울리지 않는 양복 차림으로 한 사람은, 팔에 삼베로 된 상장(喪章) 차고 있다.

“자네, 괜찮은가? 아무 것도 먹지 못했는데.”

검색 상의에 하얀 바지를 입은 불그레한 얼굴을 한 청년이, 상장을 찬 청년을 쳐다보며 가까이 다가갔다.

“괜찮아.”

상장을 찬 청년이 간단히 대답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말게. 이제 모두 지나간 일 아닌가. 자네의 기분은 알아. 알지만, 자네는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고의로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모래사장에서 죽었다면, 아무튼 강으로 나간 다음 또 자기 집 근처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서 죽은 거니까, 자네는 책임을 느끼지 않아도 돼. 오히려 책임은 여옥의 부친에게 있지. 그 소지주(小地主)에게서 돈을 3백 원이나 빼앗았다고 하잖아. 돈을 빼앗으려 한 게 애당초 원인이지.”

상장을 찬 청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짝사랑하다 죽은 여자에게 자네는 할 수 있는 한 해준 게 아닌가. 장례비를 부담하고, 손가락 하나 건드린 일 없는 여자를 위해 상장까지 샀어. 여옥으로서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영광이지. 필시 그녀도 기뻐할거야. 게다가 묘까지 만들어 주고.”

“내 구두에 차인 채 죽어준 게 나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마침내 상장을 찬 청년도 입을 열었다.

“어차피 나는 살인자야. 법적인 형벌은 면했지만, 양심의 형벌은 피할 수도 없어. 법의 형벌이 내게는 얼마나 가벼운가 몰라.”

상여 행렬은 어느 사이엔가 신작로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장송곡이 홀로 소리 높여 그리고 슬프게 불려지고 있었다.

“사람의 경우(境遇)라는 건 바로 하나의 언어가 외국어로 번역되는 것과 같은 거지.”하고, 그도 상여를 따라 비틀비틀 좁은 길로 접어들면서 말했다.

“이 우주에 완전하게 일치하는 두 개의 물체가 없듯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도 하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것이 제삼자에게 재현(再現)되는 것도 아니라면, 어떤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슬픔과 기쁨을 그대로 제삼자가 맛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아무리 위대한 예술가라고 해도, 지금의 내 감정을 그대로 자네에게 전할 수는 없을 걸.”

“하지만 그건—”하고 이가 말하려 하자,

“아니, 좀 더 말하게 해줘. 그래서 우리들은 러시아면 러시아, 프랑스면 프랑스 문학의 하나의 사상(事象)—사실은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대로의 감정을 체험하는 건 지극히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자네도 이번 나의 사건에서 자네가 지금 말한 사실은 보고 느끼고 하겠지만, 지금의 내 심경을 그대로 체험할 수는 없어. 어떤 문학이 몇 개의 외국어로 번역될 때마다 삭감되거나 과장되는 것처럼, 자네가 느끼는 방식도 좋고 나쁘고를 떠나 얼마간 왜곡되거든.”

“그럴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모르지. 아무튼 맹수처럼 사납게 굴고 있던 남자가 여자에게서 옥수수를 받았을 때의 울레야 울 수 없고 웃을 래야 웃을 수 없는, 그 기분을 이해할 리 없지. 그 여자로부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 가지 것을 받았고, 그녀는 나의 땀에 젖은 내의조차 빨아 주었지. 그것도 줄곧.”

“제발, 이제 그만 해!”

이는 애원하는 어조로 말했다.

“뭘라 하든, 자네는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야. 사실은 이해받을 수 있지만, 감정만큼은 이해받을 수 없다는 얘긴데, 그걸로 됐어. 자네는 너무 지쳐 있다구.”

왈자지껄하고 상여 맨 사람들 쪽이 시끄러워져, 그들의 대화도 거기에서 끊겼다. 마침 산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터라 잠깐 쉬는 가 했더니, 그렇지도 않다. 상여를 앞뒤로 흔들면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얼마간 쉼 주십시오. 관례니까.”

그렇게 말하자, 이는 5원짜리 한 장을 방울잡이에게 쥐어줬다.

“어—허, 어—허, 염라대왕님께 비나이다. 어—허, 어—허, 새삼 싫다고는 않으시는구나. 어—허, 어—허.”

상여는 조용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묘지에 도착한 것은 정오 가까이였다. 상여 맨 사람도 조문객도 젖은 쥐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다.

막걸리 잔이 들었고, 담배와 권련이 조금씩 건네졌다.

관을 묻을 구덩이는 이미 파여 있었다. 입관 전후 두 번, 남동생과 여자들이 곡을 하자, 해성도 나아가서 조례(弔禮)를 행하며,

“여옥아, 조용히 잠들어라.”하고, 마음으로 기도했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조강지처라도 묻는 듯한, 틀림없는 남편의 슬픔이었다.

석회(石灰)가 뿌려지고, 땅을 메우기 시작했다. 여자들의 곡소리로 인해 뜨겁게 내리쬐는 더위는 더욱 숨 막힐 듯했다. 여옥의 부친도 마침내 주먹으로 눈을 비볐다.

“너희들의 슬픔은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이, 여자들의 곡소리에 산이 응답하고 있었다.

해변

여옥을 죽산(竹山) 기슭에 묻고 유해성은, 낮잠에서 아직 덜 깨어났을 때의 그 멍한 얼굴을 하고 부모 곁에서 여름을 보냈다.

부모들은 그런 줄은 모르고, 아들이 여름방학이 되어 돌아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해성아, 학교가 시작하려면 얼마나 남았니? 네 이불 빨래라도 할까 해서.”

모친에게 그런 말을 듣고 해성은

“아직 괜찮아요. 어머니.”하고 대답했다.

“그렇게 말해서야……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두 번이나 추궁을 당하자, 아들은 금방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었다.

“아직 괜찮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 됐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얼굴을 대하자,

“이상한 녀석이네. 요즘 몹시 화를 잘 내고.”

그러나 이튿날 아침이면 또 어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해성아, 아직 괜찮니? 이쪽 아이는 모레부터 학교에 간다고—그렇게 말하던데.”

궁핍하면, 인간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걸까? 요 몇 년이래, 모친은 몹시 푸념이 많아진 듯했다.

“아버지는 어장 따위에 손을 대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녀의 푸념은 그의 부친이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도를 더해갔다.

“이제 아버지도 적당히 어장에서 손을 떼면 좋겠는데. 돈은 없어지고, 땅은 저당 잡히고……, 해성아, 이 상태로는 결국 밥 먹는 것도 곤란해질 게다.”

그는 부친의 어업보다도 모친의 푸념에 더 힘이 빠졌다.

“자네가 아침저녁으로 그렇게 양양거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남자의 사업에 거침없이 말참견하는 어떤네가 어디 있어?”

부친은 곧잘 화를 냈지만, 자기 싫어하는 모친은 한번도 지지 않았다.

“잘 되면 제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고 싶지요? 생각해보세요. 인간 세상에 돈을 뿌리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바다 속 물고기에게 조상대대로 돈을 뿌리고 있으니…….”

“입 닥쳐! 닥치지 않으면 패줄 테니!”

“어머니, 이제 적당히 하세요.”

언제나 아들이 중재에 나서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아들도 아버지를 두둔했다는 것이다.

“좋아. 나는 이제 결코 입을 열지 않을 테니. 해수(海秀)도 언제나 너처럼 굴지.”하며 그녀는 울었다. 해수는 작년에 경성의 중학교를 졸업한 남동생이다. 늑막을 앓고 반년이나 놀고 있었다가, 올봄부터 산업조합에 나가고 있다.

여름방학도 끝나고 별레소리가 가을다워지자, 해성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책을 읽거나 뒷밭의 배추를 손질하기도 하면서 날을 보내고 있다가,

“좋아, 나도 경성으로 나가자.”

이렇게 결정하고는 동생에게 상의했다. 학교를 그만 둔 것도 여옥의 사건도 그에게는 털어놓은 터라, 해수도 좋게 찬성의 뜻을 나타내 주었다.

“그래도 형, 김혜영 씨 건은 해결해주세요.”

김혜영은 그가 근무하고 있는 조합의 조합장 딸이었다.

“아니, 나는 결혼 같은 건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돼. 좀 더 기다려 줘. 그 사람들을 부양할 어렵이 생길 때까지는 결혼 같은 거 안 해.”

“그 사람들이란? 아, 그 여자의”

해수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뒷걸음질치면서,

“무슨 얘기지요?”

“넌, 몰라.”하고 형은 잘라 말했다.

“이해할 것도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어째서 형에게 그 사람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요 전에는 형이 풀이 죽어 있어 나도 조심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물론 형의 입장에 서야 뭐든 한 가지는 하고 싶겠지요. 그 기분은 압니다. 나라도—하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했다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지만 저금한 것도 모두 주었고.”

“그래.”

“백 원 이상 돈을 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바로 그거예요, 형. 예금을 인출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야지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은 여자의 장례를 위해 돈까지 빌린 건 이미 허영이에요. 게다가 가족의…….”

“해수야, 잘 들어.”

해성은 엄숙한 표정으로 가로막았다. 그 엄숙함에 눌린 듯, 해수도 묵묵히 형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해수야, 네 해석은 어쨌든 옳아. 곁에서 봤을 때, 나는 싸구려 인도주의자처럼 보일 지도 몰라. 이

군도—그 이완규 군이다—너와 똑같은 말을 했지. 나는 너희들의 해석이 틀렸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피상적인 그런 해석 방식은 달갑지 않아. 전에는 나도 자세히 말할 수 없었지만, 자, 우선 이걸 봐 줘.”

해성은 그렇게 말하며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 정사각형으로 접힌 하얀 천을 꺼내어,

“이게 뭘지, 한번 봐 줘.”

해수는 마법 상자라도 꺼내진 것처럼 멍한 얼굴을 하고는 포장된 물건과 형의 얼굴을 잠깐 번갈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주의해서 잘 봐 달라는 거야.”

아무리 다시 보아도, 그것은 한 장의 손수건과 비단에 매화를 닮은 꽃 모양과 나비를 수놓은 조선식 댕기였다. 색채의 조화도, 자수도 몹시 서툴렀다.

“분명히 손수건과 댕기야. 그러나 댕기치고는 좀 다르지 않니?”

해수는 더욱 의아한 얼굴을 하고는 댕기를 찬찬히 확인했다. 하지만 이것을 댕기 이외의 다른 명칭으로 부를 수는 없었다.

“넥타이다!”하고 해성은 내던지듯이 말했다.

“하긴 여육이 넥타이라고 말한 거다만—.”

형제는 넥타이를 앞에 두고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해수도 그 말에는 과연 눈시울이 뜨거워진 듯, “그래? 넥타이었어?”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 정도로 무지하다. 얼핏 보아 넥타이가 댕기와 유사지만, 넥타이와 댕기를 구별할 줄 모를 정도야. 그런 여자에게 나는 사랑을 받은 거야. 그 여자는 그 모래사장에서 강으로 나가 죽으려 했어. 하지만 강에서 죽지 않고 일단 자기 집 근처까지 돌아간 흔적이 있으니, 다시 나와 목을 졸린 것까지는 내게 책임이 없을 지도 몰라. 집에 돌아가면 또 부모에게 당한다는 생각에, 나와 마지막 담판을 하는 기분으로 집을 나왔던 거지. 그런 그녀를—나는 견어찬 거야. 나를 위해 넥타이를 수놓은 무지(無智)는 사주면서, 생명까지 바친 무지는 사주지 않아도 좋을 걸까? 그래, 해수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조합장의 따님은 형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조합장의 따님?”

해성은 이미 아무런 관계도 없는 먼 과거에 묻힌 지인의 이름이라도 부르듯이 하며,

“혜영이라 했던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얼마나 열심히 신데요. 조합장도 혜영 씨도 무척 기뻐하고 있으니, 형이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딱하잖아요.”

“딱한 것은 내 쪽이 아닐까.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하다니—. 여자 쪽에서 생각해주는 그런 거 이제 절대로 싫다. 나 좀 내버려 둬.”

그는 애원하듯,

“부탁한다.”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상태라면 허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해수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해성에게는 아직 비밀로 해 두었지만, 혜영과의 얘기는 모친들끼리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다.

혜영과는 작년 가을부터 본인들끼리 얘기가 있었지만, 그 무렵은 해성이 미연을 남몰래 사모하기 시작했던 터라, 얘기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너는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언제까지 너를 독신으로 둘 수는 없다. 누군가 상대라도 있다면 별 문제지만…….”

그렇게 모친이 다그치면,

“따로 상대 같은 건 없습니다.”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삼십이나 된 큰 녀석이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잘 타는지. 결혼 얘기만 꺼내면 금방 얼굴이 새빨개지니.”

모친은 남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덕도 참, 남자가 다 그렇지. 우리 영감은 신셋에 장가들었는데, 그래도 부끄러워하더라니까……아, 정말이야. 합환주를 든 손이 이렇게, 이렇게 떨렸어. 남자란 혼담 얘기가 들어오면 다들 수줍음을 탄 다니까.”

수다쟁이 기름집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모친은,

“그럼, 할머니. 서방님 손이 떨리는 것만 보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뭘 부끄러운 일 같은 게 있을라구. 내가 마흔셋의 봄이었고, 과부가 되어 20년간이나 벌거숭이 남자와 계속 일 해왔는걸. 부끄러움 따위 안중에도 없었지. 나는 그저 기쁘고 기뻐서.”

모두 ‘와’ 하고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다.

“아주머니, 싫다고 발을 동동 구르지 않는 한, 대개 괜찮습니다. 빨리 정하는 게 좋지요.”하고, 전에 면장을 하다가 지금은 원산의 아들한테 가 있는, 모친에게는 먼 친척뻘인 조카도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를 북돋워 주었다.

— 그러나 형과 혜영의 일을 해결해 준 것은 뭐니뭐니해도 해수였다.

“미연이 그렇게 도망가고 여옥이라는 여자도 그런 죽음을 맞았으니, 형은 마침내 흔들렸는지도 몰라요. 저렇게 어리둥절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지요.”

그는 어려워하고 있는 모친을 오히려 격려하는 한편, 좋아하기는 해도 여옥의 사건을 알고 있는 터라 얼마간 뒤로 물러나기 시작한 혜영에게,

“형도 상당히 낙심해 있습니다. 당신에게 확실히 보호받게 되면, 저도 안심이겠어요. 형도 노골적으로 말은 않지만,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형님이 그렇게 마음이 움직였다구요?”

혜영도 그래서 마침내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해수도 그날은 더 이상 권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도 생각했다. 그리고 얘기가 정리된 것은 당분간 숨기기로 했다.

해성은 어느 날 아침 동해안의 작은 어촌으로 나갔다. 태평양과 이어진 일본해의 한 쪽에 작은 어장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친 유근택을 만나기 위해서다.

어느 공사장의 헛간 같은 느낌을 주는 간이역에 내린 것은 초가을 햇살이 상당히 서쪽으로 기울고

난 후였다. 부친의 어장까지는 채 일리(一里)도 안 되었다. 그는 해변을 낀 길을 따라 모래사장으로 갔다.

이마 위에 손을 받치면, 니이가타(新潟)나 홋카이도(北海道)의 부두가 눈에 들어올 것 같은 쾌청한 날씨다. 가느다란 실 같은 선으로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쪽빛 바다가 나뉘어져, 그 지평선 위에 배의 작은 그림자가 물마루 너머로 사라졌다가는 나타났다가는 했다.

‘물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집안에 해(海)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벅서벅 하얀 모래를 밟으며 걸었다. 그러자 갑자기 바닷물에 발을 적시고 싶어져 맨발이 되었다. 갈증이 나서 수분이 있는 과일을 씹었을 때의 그 기분 좋은 미각과 닮은 촉각이 발바닥에 느껴졌다.

부친은 바다에 나가 있었다.

“잠깐 기다려요. 아이 녀석을 보내지.”

이미 몇 번이나 왔던 터라 안면이 있는 노파가 허둥지둥 나왔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나가지요. 그 형제 섬 있는 곳이지요?”

“아니, 연주암에 계시다네.”

“그래요? 어장이 바뀌었습니까?”

“응. 아무리 지켜봐도 물고기가 전혀 들어와 주질 않아 지금 그곳에 그물을 치고 계시지.”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지요.”

더 얘기해 봤자 노파의 입에서 좋지 않은 소식만 자꾸 듣게 될 것 같아서, 해성은 부친의 방으로 눈길을 돌렸다.

어장주(漁場主)에서 그물주(主)로 영락(零落)한 부친의 궁상(窮相)이 실내에도 그대로 느껴졌다. 후출근해진 내의(內衣)가 몇 벌 벽에 걸려 있고, 편지지라든가 편지 온 것, 기차 시간표, 원산의 시황표(市況表)와 신문 따위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다. 방금 전까지도 자고 있었던 모양인지, 목침이 방 한가운데 뒹굴고 있다.

‘아버지도 마침내 이제 물고기에게 잡아먹히는구나.’

암담하게 그는 중얼거렸다. 동생이 나가고 있는 산업조합에서 마지막으로 천 원가량 융통했다고 해수에게 들었던 터라, 한층 더 어두운 기분이었다.

노파가 말한 대로, 부친은 연주암에 있었다. 그를 확인하자, 그래도 쾌활하게 말했다.

“네 녀석이었냐? 잘 왔다.”

부친은 아직 오십도 안 된다. 그는 아들 앞에서 궁상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성격인 터라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피로로 인한 초체함은 감출 수가 없었다. 최근 이삼 년 동안 부친은 제법 늙었다. 그 근사한 콧수염에, 기분 탓만이 아니라 확실히 흰 터럭이 섞여 있었다.

“아무튼 좋은 때에 와 주었다. 오늘은 좀 나은 편이지만, 어제 같은 날은 몹시 풀이 죽어 우울했거든. 너도 여러 가지로 피곤할 테니, 저 근처라도 걸으면서 이삼 일 느긋하게 지내렴.”

그렇게 말하고 나서 부친은 또 덧붙였다.

“네게 꼭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네가 있어 주면 곧 기운을 차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저도 그럴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해성은 웬지 부친이 딱하게 느껴져 그렇게 말했지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 조합장 딸 애기를 꺼내도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부친의 어두운 얼굴과 서글픈 어조에서 갑자기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어색하게 허둥졌다. 도시로 나가겠다는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바다는 끊임없이 거대한 파도를 육지로 밀어내고 있었다. 굉장한 힘으로 밀려와서는 바위에 부딪쳐 부서졌다. 그때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일었다가는 환상처럼 사라져 간다.

그날 밤, 부자는 실로 오랜만에 베개를 나란히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지, 두 사람 다 쉽게 잠들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잠기운을 재촉하는 온화한 파도 소리도, 오늘밤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한 시를 지나고 얼마 안 있어 부친이 가볍게 코고는 소리를 내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부친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다. 싸리에 무슨 해초로 엮은 대문을 나가자, 금방 해변으로 이어졌다.

‘아버지는 죽을 작정인가?’

그것은 이미 예감이 아니라 하나의 또렷한 실감으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나운 파도처럼 언제나 원기 왕성했던 부친이었는데, 오늘 그 풀이 죽은 모습은 어떻게 된 일일까.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⁶⁴⁾,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내 어찌하랴.”

아버지는 그렇게 탄식하지 않는가. 게다가 세세하게 부채에 관한 것, 가계(家計)에 관한 일 등을 들려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오길 잘했다.’

바다와 흰 모래가 간신히 구별되는 시커먼 어둠 속에 서서, 그는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참으로 멍청한 놈이다. 아버지가 설마 이렇게까지 약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썩썩 하고 바다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섬도 해변도 보이지 않는다. 고기잡이 등불이 두세 개 사라지더니, 그것조차 사라져 버린 어둠 속에서 하얀 파도만이 긴 칼처럼 날카로운 빛을 내고 있었다.

잠자리로 돌아온 것은 세 시를 지나서였다. 그도 마침내 잠기운의 재촉을 받으며 자리에 들어 깜빡 잠들었는가 싶더니, 부친의 잠꼬대에 깨고 말았다. 부친은 시라도 읊고 있는 모양인지,

“비어(飛魚)⁶⁵⁾에 묻노니, 낭환(浪環)의 땅은 어디뇨.”

고 읊조렸다. 기름등을 켜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일그러진 비통한 부친의 얼굴이 언제까지고 눈에 자꾸만 어른거렸다.

그는 마침내 밤을 새고 말았다.

해성은 낮에는 부친과 함께 어파(魚波)를 지켰고, 밤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부친과 함께 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부친의 우울함은 가시지 않았다. 부친은 개구리처럼 눈을 크게 뜬 금붕어를 두세 마리

64)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

65) 날치.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금붕어를 들여다보며 지내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어장에서 돌아오자, 부친이,

“얘야, 해성아. 금붕어가 자살을 했구나.”하고 불쑥 얘기를 꺼냈다.

“죽었습니까?”

“흑반점 있는 놈이 죽었어. 거꾸로지, 인간과는. 인간은 물에 뛰어 들어 자살하는데, 물고기는 물에서 뛰어 나와 자살을 하니.”

“싫어요, 아버지.”

“뭐가?”

“금붕어가 자살했다는 그런 말—.”

“하하하하, 그래? 싫어, 하하하…….”

부친은 묘한 웃음소리를 내며 웃었다.

‘이런 상태라면 아버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부친의 마음에 지긋이 귀를 기울이며, 해성은 깊이 생각에 잠겨 아득해졌다.

그 후 사흘 쯤되는 날 밤(이라고는 해도 이미 새벽녘이었지만—), 해성은 문득 잠에서 깨어 여느 때처럼 옆자리의 부친을 더듬어 찾았지만 없었다. 팡 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나 불을 켜지만, 역시 부친의 잠자리는 비어 있었다. 유서 같은 것도 없다.

그는 튀어 오른 고무공처럼 집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곧 어둠에 휩싸였다.

“아버지!”

해변으로 나가 그는 소리쳤다. 아무런 대답도 없다. 형제섬에도 연주암에도 달려가 보았다. 하지만 허사였다. 정처 없이 그는 달리며 부친을 불렀다. 바다는 곁곁 계속 웃어댔고, 어둠은 조용히 벗겨져 갔다.

“아버지!”

“여기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기분 탓이었다.

부친이 급히 만든 들것에 실려 집에 온 것은 그럭저럭 낮이 가까워져서였다. 그는 인사불성 상태였다. 설 새 없이 영문을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내뱉었다.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 근사한 콧수염에는 거무스름한 핏덩어리가 뭉개져 있고, 흰자위가 드러난 눈동자는 만들어 박은 눈깔처럼 표정이 없었다.

— 어찌 된 일인지, 그는 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는 변산(邊山)의 깊은 골짜기에서 발견되었다. 잘게 부서진 망원경이 몸 가까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물고기의 흐름을 확인하려고 산에 올라간 듯했다.

그러나 해성이 이 만큼 알아 낸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간단한 약밖에 팔고 있지 않은 작은 어촌인 탓에, 자전거를 타고 시가지의 간이학교로 달려가 알코올에 탈지면으로 응급조치를 취하고는 고성읍의 공의(公醫)에게 달려갔다. 의사가 돌아가자, 이번에는 부친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식염 주사를 계속해서 두 대를 맞고 수혈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심한 출혈에 머리를 심하게 바위에 부딪친 터라, 의식을 되찾는가 싶더니 이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정오 가까이 되어 어제 저녁 전보를 받은 해수가 달려 왔다. 알코올에 소독면과 붕대는 물론, 진통제, 포도당 등의 주사기, 알코올램프까지 준비한 데에는 머리가 숙여졌다. 아버지가 부상을 입었다고만 알렸는데, 용케도 한밤중에 이 만큼이나 챙겨온 것이다.

“아파. 다리가 아파.”

의사 표시가 이 정도로 또렷해진 것도 저녁이 가까워서였다.

“아프세요?”

머리 부위에 지나치게 신경쓰느라, 무릎 쪽에서 발목 주변까지 부어 오른 것을 알아차린 것도 부친이 통증을 호소하고 나서였다.

“이치올도 갖고 왔어요.”하고, 해수는 가방에서 부력관(賦力罐)을 꺼내서 플란넬⁶⁶⁾에 비벼댔다.

“의사 동생이 있어 도움이 되는군.”

어부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밤부터 조금씩 열이 났다. 그 열이 새벽까지 계속 되다가, 39도 8분을 고비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흘째에 공의가 또 불러왔다. 입원을 시키고 싶다고 하자,

“그래요? 하지만 아직 일러요. 입원시켜도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의 조치도 불가능하니. 솔직한 얘기로, 다행히 동생 분이 주사를 놓을 수 있어서 좀더 이곳에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런 타박상으로 외적 이상(異狀)을 일으킨다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현기증입니다. 인간은 피만 충분하면 견딥니다. 게다가 의식이 혼탁할 지도 모릅니다. 다분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소화불량과 영양부족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세하게 주의를 주고, 의사는 자전거로 돌아갔다. 읍까지는 3리나 되었다.

일주일만 지났을 무렵, 환자는 그럭저럭 가벼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다리의 부기도 조금씩 빠졌다. 그러나 아무래도 의식이 확연하지 못하고,

“오늘은 바다가 거친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가 싶더니,

“이 배는 너무 흔들려서 안돼. 일등선실로 바꿔 줘.”

그런 말도 했다. 천정 벽지의 꽃 모양이 별집으로 보이는 듯,

“별이 정말 많구나. 저것 좀 봐! 일별이 암별의 목을 자꾸자꾸 조이고 있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나 천정바닥의 꽃무늬는 해성이 봐도 별집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얼마간 관찮았지만,

“저거 고등어다! 고등어 떼다. 해성아 그물을 당겨!”하고 소리칠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런 헛소리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해성의 부재중에 혜영과의 얘기는 부쩍부쩍 진행되어 갔다. 혜영의 나이도 새해가 되면 스물넷이 되는 터라, 그녀보다도 그녀의 모친 쪽이 서둘렀다. 혜영도 최근 삼사 년 여기저기서 혼담은 들어오고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막 상처한 아이 딸린 사람이든가 처가 교육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혼한

66) 방모사(紡毛絲)로 짠 털이 보풀보풀한 모직물.

사람뿐이었다. 그래서 풀이 죽어 있던 참이라, 해성 쪽에서 얼마간 꺼리는 모습은 엿보여도 결정할 수 있다면 결정하고 싶었다.

“고작 시골 교사 아니에요? 뭐, 그렇게 추켜세우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 나는 꿈보도 아니고 애꾸 눈도 아닌 걸요.”

어느 나라 왕자라도 맞아하듯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어느덧 입을 삐죽 내밀곤 했지만, 돈이 없는 것이 역시 유다른 애깃거리였다.

“그러고 보면, 그 사람 좋은 점도 있어요. 재산 같은 거 그렇게 많아도 곤란해요. 오히려—.”

미연에 관한 일은 그녀도 어렵듯이 알고 있었지만 미연이 경성으로 나갔으니 신경쓸 일도 없고, 여옥의 일도 자초지종은 해수에게서 들었지만,

“역시 그 사람에게는 좋은 점이 있어.”

살짝 상기된 얼굴로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학력은 대학을 나오든가 적어도 전문학교 졸업에 재산은 십만 정도면 좋겠고, 장남이 아닐 것, 성격은 극히 명랑하고 진취성이 풍부할 것, 키는 오 척 일곱 자 정도에 문학과 음악에 취미가 있고 독립된 생활력을 갖춘 사람—

이것은 일찍이 그녀들이 여학교를 졸업하기 전, 서로 얘기하고 맹세했던 표어였다. 그러나 그녀들의 뜨거운 꿈은 얼음 같은 현실에 부딪쳐, 지금은 이미 하나의 전설이 되어 버렸다. 피아노가 있는 문화주택에, 구두를 신겨주는 하인에, 미국 영화의 가르침을 그대로 삼켜버렸던 그녀들에게, 그것은 너무도 덧없는 꿈이었다.

그녀들의 상대가 될 연령은 9할 가까이가 이미 버젓한 처자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미혼자라는 것만으로도 됐어.”

이것이 지금 그녀들에게는 그런대로의 위안이었다.

그 덕분에 해수도 줄곧 해변에 있었다. 그가 나가고 있는 산업조합의 고기잡이 구역이 부친이 있는 해변의 바로 앞 역까지로 되어 있어 출장의 형식을 취했다. 게다가 상당한 출장비도 나왔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주에 한번 정도는 조합에도 들르지 않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은 댁에도 들를 수 있는 거지요.”

“그거 잘 됐군요.”

이렇게 해준 것도 혜영이었다. 그러나 해성은 그런 것도 모르고 진심으로 기뻐다. 부친에게는 해수가 살짝 귀땀해둔 상태였다.

이삼 일 지나자, 조합장인 장만업 씨가 나무상자를 가지고 일부러 병문안 하러 와주었다. 배가 나온 커다란 몸집에 사냥 모자를 오도카니 쓴, 상당히 활동가라는 느낌을 준다. 사냥복도 그에게는 잘 어울렸다.

“큰일이군. 그러나 참고 견뎌야지. 아버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은 분이었어. 혜영이도 온다고 했지만, 이 다음에 오기로 했어.”

조합장은 그런 말을 하고는, 야간에 외금강으로 나갔다.

조합장의 정중한 문안 글과 해수의 봉급, 그리고 정성을 담은 수제(手製) 안주류를 가지고 혜영이

문안하러 온 것은, 산읍의 이완규가 이틀이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간 낮 무렵이었다. 대화할 상대도 없고, 게다가 미연이 조만간 추수하러 올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해성은 몹시 풀이 죽어 있던 참이었다. 그녀의 부친이 돌아가고 나서 사흘 째 되던 날이었다.

그녀는 환자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일러준 대로 해변으로 나갔다.

“해수 씨.”

두세 번 불러 보았지만, 파도 소리에 묻혔다. 모래사장에서 바위를 따라 바위섬 쪽으로 나가자,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두런두런 형제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해수 씨.”

한번 더 불러보려는 순간, 혜영은 갑자기,

“그 여자…….”하는 말이 탄환처럼 귀에 날아들은 터라 곧 발을 멈추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여자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또렷한 해수의 목소리였다. 혜영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해성은,

“생각하고 있지.”하고 소리 높여 얘기했다.

“하지만 새삼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지 않겠니? 지금은 이미 죽산의 한줄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걸—.”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 여자가 아니에요. 안대영 씨의 따님 말이지요. 분명히 미연이라든가 했지요?”

“아, 그 여자 말이냐?”

해성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 괴로운 듯, 눈을 멀리 지평선으로 던졌다. 바다제비가 그를 놀리듯 눈앞을 스치며 희미한 원을 그리고는, 떼를 지어 노닐고 있다.

파도가 자꾸만 발밑의 바위에 부딪혔다가 부서져 내렸다.

혜영 자신이 정신차려야 할 침묵이다 싶어 당황스러울 만큼, 그것은 긴 침묵이었다. 그런데 곧 해성이 입을 열었다.

“그 여자를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 그다지 생각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일단 안심했지요. 아무튼 형이 없는 때를 틈타 도망갈 정도의 여자니까.”

“그건 너의 오해야.”

해성은 작은 돌을 주워 계속 바위를 두드리면서,

“나도 한 때는 그런 오해를 했지.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간 게 아니야. 여옥에게 졸려서, 결국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그래도 이상해요, 형. 졸라댄다고 애인을 다른 사람에게 주다니—”

“아니. 하지만 그녀라는 사람을 알면, 그것이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이 없어지지. 그녀는 여옥에게 감쪽같이 속았던 거야. 내가 여옥에게 굳은 약속이라도 했다고 생각해서 물러난 거지. 더구나 여옥 자신이 내게 곧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녀만 질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잠깐 얘기를 끊었다가, 작은 돌을 ‘퐁’ 하고 바다로 던지며,

“아무튼 지금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더구나 여자에 관한 일은. 나는 지금 아버지의 어장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있어. 그런 건 이제 어찌 할 도리가 없으니, 차라리 경성으로 나갈 생각

같은 건 그만두고 그물 걸이라도 할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언젠가 얘기했던 조합장 딸—그 얘기도 분명히 거절해줘.”

파도에 신경이 쓰였던 탓인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혜영에게는 들으란 듯이 말하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의 가슴에도 파도가 높이 일었다.

“하지만 형. 오해받으면 곤란하지만, 사실 혜영 씨와의 얘기는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 버렸어요.”

“뭐?”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머니가 상당히 걱정했어요. 어머니가 집은 넓고 혼자서는 쓸쓸하다고 해서, 요전부터 혜영 씨가 우리 집에 와주고 있을 정도예요.”

“바보 같으니!”

혜영이 깜짝 놀랄 정도의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내 허락 없이 누가 그런 여자를 집에 들이랴. 그 여자와 내가 결혼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바보 같으니!”

조금 있다가 해성은 이렇게 선언했다.

“아무튼 나는 그 여자와 결혼 같은 거 생각 없으니, 너도 그렇게 알아라. 그 여자에게는 네가 그렇게 단호히 거절을 해줘.”

해수가 거기에 대해 뭔가 말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혜영은 이미 그곳을 떠났다. 그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적당히 인사를 하고, 곧장 역으로 달려갔다.

해성들이 부친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게 된 것은 두 시간 가까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11시 기차에는 시간을 맞출 수 없었을 테니,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괜찮다면 형도 같이 가지 않을래요?”

해수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하자, 해성은 어찌할까 궁리하며 잠깐 생각하다가,

“가도 괜찮지만, 아버지도 안 좋으시니 혼자 다녀올래?”하고 회피했다.

사실 부친도 얼마간 열이 있고, 눈동자도 빨간 기운을 띠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눈이 빨개지기 시작하면 곧잘 발작이 엄습해오는 것이다.

“하지만한 시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으니……”하고 해수는 말을 꺼냈지만, 숨김없이 뭔가 얘기에 와도 곤란하니,

“그럼, 아버지를 부탁합니다.”하고는 신작로로 나가자마자 달리기 시작했다.

역까지는 15, 16정(丁)⁶⁷이나 되었지만, 작은 숲을 빠져 나가면 거의 일직선이다. 간이역의 의자에 앉아 맥없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던 혜영은, 멀리 것처럼 보이는 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역 뒤쪽의 나무숲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이제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해수는 간이역 앞에 멈추어 서서, 마치 축이 없는 공간의 도깨비 상자처럼 내부를 다 드러내고 있

67) 정은 정(町)과 같은 거리 단위로, 1정은 약 100미터 정도.

는 대합실을 언제까지고 바라보았다. 세 평도 안 되는 대합실 구석구석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데도, 그는 안쪽으로까지 발을 옮겼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역시, 그 기차 시간에 맞춘 걸까.’

걱정이 되어, 그는 대여섯 채 밖에 되지 않는 역 앞의 마을로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혜영을 보지 못한 듯했다.

‘역시, 시간에 맞췄나…….’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해변을 따라서 터벅터벅 귀로에 올랐다.

‘어쩌면 해변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해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혜영은 역 반대쪽에서 숲을 빠져 나가 선로를 가로 질러 마을 뒤쪽을 지나 바다로 나갔다.

하얀 모래 해변에는 무척이나 오래 된 목선이 한 척 가로 놓여 있었다. 혜영은 그 목선의 키(舵) 쪽에 몸을 숨기고는, 꼼짝 않고 멀어져 가는 해수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짹 깨물었다. 하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다. 슬픔이 북받쳐 오를 때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를 앙다물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바다 저편으로 한없이 눈길을 주고 있었다.

이제 완전한 가을이다. 쪽빛이 지나쳐 검게 조차 보이는 해면에 불쑥 떠있는 작은 섬이 노란색의 커다란 꽃송이처럼 가을빛을 띠고 있다.

혜영은 또 해변을 따라 눈길을 주었다. 이제 해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슬픔이 치밀어 올라 어깨를 움츠린 순간, 분명히 남쪽에서 기적소리가 들리고 기차가 지축을 울리는 듯했다. 시계를 보니 2시다.

‘5시 전에 한 차례 더 있었지!’

그렇게 마음으로 작게 외치며 역으로 달려갔다.

북행(北行) 기차는 숲을 돌아 위세 좋게 역으로 돌진하고 있다.

‘어머, 됐어. 고마워라!’

혜영은 무거운 슬픔을 떨치고는, 손뼉을 칠 듯이 기뻐했다. 기차는 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역도 그녀의 존재도 확인하지 못한 듯, 그대로 통과하고 말았다.

‘모든 기회는 자기만 남겨 놓고 지나가 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녀는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로 사흘 전 첫서리가 내리고 고산지대의 낙엽수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는데, 해성은 무더운 하룻밤을 지새웠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가 버리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좋아해 생명까지도 던져버린 게 나란 사람 이야. 누군가에게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겠어!’

혜영이 자기들의 얘기를 엿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해성은 이렇게 자신을 격려했던 것이다. 그러

나 잇사이로 숨어드는 냉기가 해변의 가을밤의 적막을 더욱더 가슴 깊이 스며들게 하는 한편, 한여름의 열기에 고개 숙이고 환상과 환영에 쫓긴 채 잠들지 못하는 불면의 고통이 한밤 내내 엄습해왔다. 세 여자의 각각의 얼굴이 묘한 웃음을 퍼붓는가 싶더니, 박물관 표본실의 두개골처럼 이를 앙다물고 있는 턱을 덜덜 떨게 만들며 시시각각 다가온다. 바닷속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의 얼굴이 쑥 튀어나오는가 싶더니, 그것이 점점 해영의 얼굴로 엄습해 오기도 한다.

‘해영도 그 여자처럼 죽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 평생 두 명의 여귀에게 쫓기는가…….’

그런 생각만으로도 몸이 부르르 떨렸다.

“우우우—아프다! 아프다!”

베개를 나란히 하고 누웠던 부친은 밤새 신음을 했다. 밤에는 많이 괴로운 것이 통레이겠지만, 최근 이삼 일간 고통이 훨씬 심해진 것은 어찌된 일일까.

바다는 거칠고, 부친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친다. 벌레 울음소리는 바늘 같은 적막감으로 무턱대고 가슴을 찌른다. 아름다움과 추함이 뒤죽박죽된 여러 여자의 얼굴에 쫓기고 쫓기다 간신히 잠깐 즐았는가 싶은 순간,

“내 어장을 망치는 자가 누구냐! 빌어먹을! 그놈을 끌어내라! 목을 졸라! 손발을 꺾어라!”하고, 부친이 큰 소리로 외친다.

해성은 몇 번이나 잠자리를 뒤척이다가, 웬지 누워 있는 것이 무서워져서 일어났다.

“잠이 안 와요?”

해수가 누운 채로 말을 걸었다.

“잠이 안 오네.”

“추워서 그런가?”

“춥기는커녕, 가슴이 메스거릴 정도로 나는 숨 막힐 듯 더운데.”

해성은 내던지듯이 말하고는, 차가운 대기 속으로 뛰어나가는 것이었다.

별도 추운 듯 떨고, 파도는 쉬지 않고 물을 물어뜯고 있다. 맹수의 포효를 떠올리게 할 만큼 거칠다. 간신히 냉기로 머리가 식혀지자, 해성은 삶의 격한 공허를 느끼는 것이었다.

‘—남자가 되어가지고, 고작 여자의 환영에나 쫓기고……바보 같으니!’

모질게 자신을 욕하는 것이다.

‘좋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과거를 청산하자. 그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개척하는 거다. 여자 일로 끄꿍 앓거나 훌쩍훌쩍 눈물 짜는 게 능사는 아닐 터!’

그는 힘껏 가슴에 힘을 주어보았다. 터질 듯한 정력과 용기로 전신이 단단해지는 것 같다.

‘무슨 추태냐. 사내답지 못하게. 나는 남자다!’

그는 힘껏 양 어깨를 뒤로 젖히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었다. 아랫배에 가득 힘을 주자, 바위산의 저 늠름함이 팔에서 다리로 흐르는 것 같다.

그런 마음 탓인지, 바다의 도전도 어느 정도 온화해진 듯한 기분마저 드는 것이었다.

탕약과 고약을 갈아대는 것 이외에는 딱히 해야 할 일이라고는 없는 무위(無爲)의 날이 계속되었다. 뚜렷한 목표는 없어도 뭔가 위대한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해성에게, 그것은 안타까운 날들이었다.

해영과의 그 사건 이후, 해수와는 형제이면서도 왠지 서먹한 생각이 들어, 얼굴을 마주해도 이전처럼 대화도 활기를 띠지 못했다. 해수도 묵묵히 형을 대하는 것에 일종의 갑갑함을 느끼는지, 격일이나 때로는 사나흘에 한번 꼴로 밖에 부친의 병상을 찾아오지 않았다.

“해수는 오늘도 안 오는 게냐?”

부친도 정신이 들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듯, 장남의 얼굴을 뚫어지도록 바라보았다.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이쪽 어기(漁期)도 끝나가니, 조합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여하튼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괜찮다면 아버지도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해변은 너무 차요.”

“이쪽은 벌써 찬가.”

부친은 그렇게 말을 하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침묵으로 빠져 들어갔다.

머리 쪽의 상처도 완전하지는 않아도 대부분 나았고, 다리도 밟으면 아픈 듯해도 누워 있으면 많이 괴롭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부친은 해변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때까지도 두세 번 그는 돌아갔으면 하고 부친에게 권해보았지만, 그는 그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가로 저었다. 확실히 세 번째였을까, 그는 비로소,

“나는 노인이 되기 전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와 있는 곳이긴 해도, 이곳이 편안해. 마을 사람들과도 친숙해졌고, 파도 소리도 가깝고.”

부친은 띄엄띄엄 여기까지 말을 꺼내다가 갑자기 푹 말이 끊긴 채, 여느 때처럼 눈을 감고 깊은 사색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린 눈동자가 흐려지고 눈썹에 격하게 조금씩 경련이 시작되어 흔들흔들 두세 번 이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입술 색깔이 시든 꽃잎처럼 윤기를 잃어갔다.

눈은 이미 충혈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허사였다. 부친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고 마구 지껄여대는 것이다.

“바보 같은 자식! 뭘 우물쭈물 거리고 있는 거냐. 자, 빨리 배를 내. 해성아! 그동안 빈틈……”

그런 말을 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위협을 하며,

“뭘? 뭐라고? 차압? 흥, 누구 권력으로 내 가재도구에 손을 대는 거냐! 응? 누구 권세로? 고소할 테면 고소해봐!”하고 호통을 쳤다.

헛소리였지만, 부친이 속내를 드러낸 것은 그것이 처음이다. 그는 이제서야 부친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귀신을 위협할 때의 부친의 얼굴은 옆에서 보니 눈물을 자아냈다. 원한과 회한, 반항에 포기과 같은 여러 감정이 최근 이삼 년 사이에 현저히 격앙되었고, 그것이 서로 뒤엉키고 혼란해진 실로 복잡한 것이었다.

‘불쌍한 아버지!’

그렇게까지 바다에 허우적거리면서도, 여전히 바다에 연연해하는 부친의 심경을 생각할 때, 그는 불행한 부친을 위해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곧잘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죽여 울었다. 그리고 언

제부터랄 것 없이, 그는 부친의 생애를 무참하게 짓밟은 바다에 도전하려는 마음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완전히 네게 졌다. 좋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해성은 그렇게 소리치고는 휘청거리며 바다로 나갔다.

삼화 하나

해성이 폐인에 가까운 부친을 데리고 바다를 떠났을 때는 이미 가을도 깊었다. 부친은 머리 쪽 상처도 눈에 거슬릴 정도도 아니고, 다리 쪽도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병문객이 오면,

“아, 고맙습니다. 정어리 놈한테 물려서……”하고 동안(童顏)을 무너뜨리고 처녀같이 수줍어하는 얼굴을 한다.

“하지만 가진 것을 완전히 잃은 건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나는 졌지만, 이번에는 해성이가 대신 나가 준다고 하니까 재미있어졌지요. 그렇지, 해성아.”

부친은 아들을 돌아보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어쩌면 아버지에게는 잘된 일일지도 몰라요.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그는 어머니에게 살짝 말했다.

“정말이지 그렇구나.”

어머니는 벌써 콧물을 훌쩍거리고 있었다.

“어머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도 모처럼 아버지 기분이 좋았는데, 어머니가 울고불고 해서 발작을 일으킨 거 아니예요?”

그렇게 아들에게 모진 얘기를 들으면,

“알았다, 이제 우는 일 따윈 하지 않을 테니.”

“진짜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울면, 저도 속이 메스꺼워 온다구요.”

“이제 울지 않는다. 봐라, 보라고. 이렇게 웃고 있잖니.”

그런데도 모친의 웃는 얼굴에는 눈물이 그칠 것 같지도 않았다. 아니, 그렇게 모친을 타이르고 있는 그 자신조차 솟는 눈물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해수는 언제나 우울해 있을 뿐이고, 혜영의 집과는 그 후로 거의 왕래도 끊어졌다. 아니, 가운(家運)이 기울면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다고들 하더니, 파산 이후 그들의 집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게 되어 폐허에 홀로 남겨진 우울한 날이 언제나 계속되었다.

가지라고는 해도 대부분이 농가고 남은 집도 거의 반농(半農)이라 이 즈음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계절이었지만, 올해는 대체로 흉작이었다. 그래도 사변(事變) 첫 해를 맞은 천재(天災)에 관민 모두 힘을 냈고, 천수답에는 밀과 보리농사가 대신 지어져 이른 아침부터 도급기(稻扱機)가 붕붕 소리를 냈다. 작년부터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 있는 집 주변의 논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벗단 윤반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텃마루 끝에 서서 상심한 듯 이 썩나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친의 입에서는, 실 새 없이 한숨이 새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해성은 슬그머니 배에 접근하여 갔다.

“어머니, 저, 이삼 일 나갔다올게요.”

“어디를?”

“산읍예요. 어떻게든 이 집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그래, 할 수만 있다면.”

“저런, 또 우시네! 어머니답지 않아요. 벌써 몇 번이고 굳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그럼, 웃어 보일 테니 보렴.”

“그거예요, 어머니. 지금 우리들의 처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좋았어요. 저는 요즘 근처를 걸어 다녀 보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난 흉작이에요. 그래도 모두 활기가 넘치지 우리들처럼 풀이 죽어 있진 않아요. 그건 우리가 위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말하자면 지나치게 요행에 의지했어요. 굳은 신념 없이 요행에 빠지는 건 도박입니다. 불행히도 아버지는 도박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신념으로 할 생각입니다.”

“뭐냐, 또 바다로 갈 작정인게냐?”

“예, 갑니다.”

이튿날 아침, 해성은 출근하는 길에 동생과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자전거에 올라탔다. 라지 마크의 이 일륜(一輪)차가, 넉넉했던 유 씨 집안의 단 하나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유산이었다. 기름을 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체인이 도는 것도 매끄러웠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뒤 돌아보며 손을 흔들고, 페달을 힘껏 밟았다.

그 옛날의 추억의 길이다. 낮은 바지에 역시 끝이 해진 잠바에서 커터 셔츠⁶⁸⁾의 옷깃이 보이고, 머리에는 등산모를 썼다. 해성은 길모습으로 보아서는 구태를 벗지 못했다.

숲과 경작지와 하늘이 실로 선명한 색채로 구분되어 있다. 새의 솜털 같은 가벼운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간다. 탄탄한 신작로는 몽롱한 꿈길처럼 산 속으로 산 속으로 뻗어 있다.

신작로가 끝나면, 산골짜기. 산골짜기를 지나면, 고개다. 그것이 수십 번 되풀이되고 산읍의 서쪽 하늘이 무엇을 수줍어하는지 빨강계 물든 저녁 무렵,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고개까지 가까스로 도착했다.

고개 정상에서 쉬면서, 해성은 노인처럼 오른쪽의 성황당에 돌 하나를 휘 던져 주었다.

[주] 조선의 고개에는 당(堂)이 있다. 빨강, 파랑, 노랑, 보라의 색 형질이 드리워져 있다. 당이라고 해도 대개 풀숲이나 나무이다. 당 앞에는 돌이 쌓여 있다. 이 앞을 지나갈 때 돌을 하나 던지고 침을 세 번 뱉으면 액을 물리친다고들 하는데, 실은 돌싸움을 위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방적 행사였다.

언덕을 내려가면 이제 산읍이다. 해성은 길에서 책 보따리를 어깨에 멘 몇 무리의 아이들을 만났다. 시가지에 들어서자, 가능한 한 뒷길을 지나 곧장 변두리 쪽 이완규의 집으로 갔다.

68) 본래는 상품명, 칼라가 붙박이로 되어 있는 보통 와이셔츠.

이는 여전히 머리도 수염도 더부룩했다.

“자전거인가, 어이구, 들어와.”하고, 이는 조금 전 어딘가에서 헤어진 사람이라도 맞아들이는 것처럼 불러들였다.

무언가 쓰고 있었는지, 책상 위에는 원고용지가 잔뜩 흩어져 있다. 그것을 정리하지도 않고, “강남 여자 배웅하러 왔나?”하고 웃었다.

“지겨운 녀석.”

그녀의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써서 벌써 습관이라도 된 듯한 말을 지금도 되풀이하면서 태연하게, “와 있냐?”

“역시 신경이 쓰이는가 본데.”

“하지만 모르는 체 할 수는 없잖아. 와있군, 정말로…….”

“저, 그 얼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듣고 해성은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도 돼. 오지 않았으니까. 자네 얼굴을 본 순간, 오늘이 우연히 9월 9일이라는 사실이 생각나서 말해본 것뿐.”

“아, 오늘이 9월 9일인가. 그럼, 그녀도 마침내 강남으로 떠났을까.”

일부러 그런 농담을 해보았지만, 역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이에게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는 눈을 책상으로 돌렸다. 책상 유리 밑에 놓인 소설구상 약도에 문득 눈길이 머물렀다. 나이 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얼핏 보아서도 그 자신에 관한 것임을 금방 알아챘다.

“가로채인 듯하군.”

“응, 최근에 쓰기 시작했어. 더욱이 자네라는 사람은 쓰기 어려워서. 요즘 청년층은 모두 사소한 일로 끄끙대고 있으니—이렇다 할 만한 특징이 없으니까.”

“그럼, 특징이 없는 남자라고 쓰면 되겠네.”

“좋은 표제(表題)군.”

밤에는 둘이서 술을 마셨다.

하룻밤 목을 예정이었으나, 산책과 낚시에 사흘이나 허비하고 하루는 이의 아이들을 상대하며 보냈다. 하지만 중요한 용건은 아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해성은 최소한 천 원가량의 자금을 융통하러 온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정버정해도 별 수 없어서, 5일 쯤에는 결심하고 떠보기로 했다.

“결국 할 생각인가?”

“하겠어! 자네의 소설 재료를 위해서도 해보이지. 파란(波瀾)이 있어야 좋겠는데. 나는 동해안에 머무르지 않고 칠대양(七大洋)의 어족과 한 판 승부를 벌일 각오야.”

“그런 얘기를 듣자니, 자네의 기분도 알 것 같군.”

이는 해성의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지만 그만한 사업을 천 원가량의 돈으로 꾸려갈 수 있겠나? 그 점에서 자네는 아직 깊이 생각이 부족한 게 아닐까?”

“물론, 부족해. 부족하지만, 그 이상은 자네도 곤란하지?”

“곤란해, 그건— 하지만 적당한 셈으로 불시에 천 원이라고 하면 더 곤란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하고, 해성은 눈으로 재촉한다.

“그러니까 이 참에 자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나를 좀 더 사업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나도 지금의 생활 방식에는 크게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네.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자네의 그 의기와 거센 열정으로, 나라는 인간도 단련시켜 주게. 물론 한꺼번에는 곤란하지만, 일만 원까지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알겠네. 고마워!”

생각했던 것보다 얘기가 간단하게 정리되자, 해성은 역시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군, 나는 이번 일로 실은 좋은 걸 배웠어. 동(動)과 정(靜)의 차이 말이야. 집에 있었다면, 나는 요즘 낮잠을 탐내든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든가 하고 있겠지……그런 내가 조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바라는 일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니 고맙지! 이걸 신조삼아, 나는 지금부터 자꾸자꾸 움직일 거야. 움직인다. 이것은 나와 자네에게 한정되지 않고, 우리들 조선인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해. 특히 젊은 지식층에게—.”

이튿날 아침 일찍, 은행과 금융조합에 협의하러 집을 나선 이와 해성은 읍내 입구의 나무다리 있는 데서 헤어졌다. 가능한 한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뒷길을 돌아, 바깥쪽에서 학교 뒷산으로 올라갔다. 아이들의 모습을 잠깐 보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 5학년인가 6학년의 체조가 막 시작된 참이었다.

아이들은 벌써 날씨가 찬데도 상반신은 알몸뚱이었다. 푸른 하늘에 은색 날개를 나란히 하고 훌륭한 공중제비를 도는 독수리의 저 정연한 미관을 보이며, 아이들의 팔과 다리는 역동적인 신축운동을 하고 있다. 굳건히 대지에 버티고 서서 하늘을 찌르는 백 수십 개의 팔. 유는 아이들의 체조에서 일종의 통제미와 강한 집단력을 느끼는 것이었다.

“건강하게 자라라! 그리고 이 땅에 적이 손가락 하나 대게 해서 안 된다. 아시아의 육지와 바다는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마음껏 날개를 펴고 오래도록 번영하여라!”

유는 얼굴을 들었다. 산읍은 흡사 한 폭의 유화였다. 그것은 노숙한 화가의 것이라기보다 빨강과 노랑과 초록의 원색을 큼직큼직하게 칠한 소학생의 유화를 연상케 했다. 가지각색의 가을 색으로 산읍은 완전히 채색되어 있다.

산 깊은 산읍의 생명선인 두 개의 하얀 신작로가 동북과 서남으로 뻗어 있다. 그 하나는 그가 다니는 길이고, 지금 이 길은 경부선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 서남의 신작로에 때 마침 한 대의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읍내로 질주해 온다. 남북으로부터 귀한 손님과 새로운 뉴스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승합버스이다.

버스가 읍내로 들어오자, 해성도 산을 내려갔다.

그러나 그가 이 버스 승객 가운데 아는 얼굴이 타고 있으리라고 예감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는 다만 정오에 이의 집에서 그와 만나기로 한 약속 때문에 내려온 것이다.

차에서 내린 승객 중에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섞여 있는 걸 알았다면, 유해성은 어떤 안색을

했는지.

그러나 다행히도 해성은 뒷길을 택했다.

“어때요, 무척 대단한 시골이죠?”

소복을 입은 희랍의 조각을 연상케 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동반한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자에게 말했다.

“그러네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는 않지요?”

그렇게 말하며 함께 온 여자는 그녀들의 뒤에 가까이 있던 남성들을 향해 동의를 구하는 듯한 눈길을 보냈다.

“어딘가 깊은 산 속의 온천가 같다고 미연 씨가 곧잘 말했지만, 정말 그대로네요. 좋은 동네 아닙니까?”

남자는 요즘 상당히 장만하기 어려운 스코치 양복에 골프 바지를 입고, 모직으로 된 긴 양말에 불그스름한 갈색의 코드반을 신고 있다. 왼손에는 커다란 악어가죽 가방을 들고, 오른손에 굵은 스틱을 쥐고 있다. 까만 소프트 모자가 근사한 콧수염이 있는 하얀 얼굴을 더욱 희게 보이게 했다. 나이는 많아야 사십이삼 세쯤 되어 보인다.

함께 온 여자는 스물둘, 셋쯤 되었을까. 흰색 상의에 검색 니트 치마를 입고, 에나멜 단화에 손에 프랑스 자수가 놓인 핸드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잠깐 산책하러 나왔다는 느낌을 준다.

—이미 독자들도 알아챌겠지만, 미연과 인임 부녀다.

“아무튼 여관을 잡도록 하지. 어디 깨끗한 곳이 없을까?”

“있어요. 학미(鶴尾)라는 곳이 저 강 근처에 있긴 한데, 상당히 시골구석이라…….”

“아니, 그것으로 충분해. 안내해줘요.”

학미는 3정(丁) 정도 앞에 있었다. 목조로 된 2층 건물로, 꽤 오래된 집이기는 해도 낡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인임은 이 층으로 올라가 시가지를 둘러보고는,

“그러네. 정말 근처 어디선가 온천이라도 솟아날 것 같은 동네야. 온천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야.”

“아니 있기는 있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어때, 인임이 네가 한번 발굴해서 돈을 벌어 보면.” 등나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수봉이 말했다.

“온천여관 인텔리 아가씨. 하하하하, 뭔가 안 어울려요. 그렇지, 미연 씨.”

“어울리는데요?”

옆에서 수봉이

“자, 역시 네 자신이 인텔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하고 놀리자, 인임은 미연의 어깨 뒤에 숨어 혀를 날름 내밀었다.

잠시 뒤 미연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폐가처럼 풀이 무성한 게 어쩐지 쓸쓸했다. 고추를 절구에 빻고 있던 아주머니가,

“어머나.”하고 외치는가 싶더니, 앞치마로 눈을 비볐다.

안채는 얼마간 농가답게 처마 밑은 벧단이지 보릿단인지로 채워져 있다. 석양을 받아 눈부시게 빛

나는 레그혼⁶⁹⁾이 벼 껍질을 쪼고 있었다.

부친의 사랑(舍廊)은 굳게 자물쇠가 채워진 채였고, 부친이 호랑이 새끼처럼 아꼈던 창가의 석류나무에는 빨간 열매가 일여덟 개나 열려 있다. 그중에 어떤 것은 하얗게 빛나는 살구빛의 아름다운 알갱이를 보이며 미소 짓고 있다. 그것은 마치 중년 여성의 육감적이고 아름다운 치아를 연상케 했다.

미연은 석류 앞에 웅크린 채, 언제까지고 물릴 줄 모르고 바라보았다. 어딘가 부친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녀는 가지에 매달려 있는 짙 부스러기를 하나하나 조심스레 떼어냈다.

“언니가 왔다!”

뒤돌아보니, 아주머니의 만딸이 소 고삐를 끌고 돌아온 참이다. 학교를 파한 듯, 어깨에 책 보따리를 매고 있다.

약속보다도 늦게 미연이 여관으로 돌아오자, 인입은 추운 밤 혼자 집을 보고 있던 아이가 엄마를 보았을 때처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저는 오늘밤 못 돌아오시나 했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꽤 오랜만이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게 많겠죠.”

“재미있었어요?”

“네, 굉장히.”

실은 너무 슬펐다고 말하고 싶은 참이었다. 해성과 여옥의 후일담을 이것저것 듣게 된 것이다.

“아버님은?”

인입은 턱으로 옆방을 가리키며 소리를 낮추어,

“지금까지 설교 들었어요. 아까 그 인텔리 건 말이에요. 인텔리 여성이라면 이 정도 일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장개석이니 영국의 극동정책이니 자꾸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저는 신문이라면 소설밖에 읽지 않는데, 알 턱이 있나요. 앞으로의 여성은 적어도 신문의 정치란 정도는 읽어야 한다고—하긴, 그 얘기도 맞지요.”

바로 그때, 수봉이 소리쳤다.

“거기, 인입아. 미연이가 돌아온 게냐?”

“네, 지금 돌아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연은 그렇게 말하고 사과를 했다.

“그럼, 들어서 얘기하거라. 나는 잠깐 동네를 돌아보고 오마.”

“하지만 술 드시면 싫어요. 아버지.”

애교부리는 듯이 인입이 말하자,

“아니, 안 마신다. 하긴 잠깐 한 잔 할지도 모르겠다만—.”

얼마간 마음 좋은 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수봉은 모자를 쓰지 않은 채 스틱을 짚고 나갔다.

인입은 계단 위에서 부친을 배웅하고는,

“미연 씨는 행복한 분이예요.”하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69) 닭의 한 품종.

“화로를 갖고 싶어.”하며 웃었다. 간신히 웃음이 멈추자,

“지금 무슨 얘기죠?”

“아버지가 말이죠, 미연 씨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미연 씨가 이끌어 주어서 인택도 좋아졌다. 인택은 어머니가 떠나서 득을 본 것 같다.—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겠어요, 미연 씨는. 할아버지가 소중히 생각하시고 아버지에게는 칭찬 받고, 또 오빠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귀여움 받는다고 하면 이상한가?”

“이상해요!”

미연은 얼굴이 새빨개져 말했다.

“이상한가?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제가 부러울 정도라구요!”

“못된 사람!”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나란히 안대영 씨의 묘에 성묘하러 갔다. 수봉은 남도 특유의 사투리를 쓰는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과음을 했고, 미연과 인임은 또 여옥의 슬픈 후일담으로 잠도 부족한 상태였지만, 초겨울의 아름다운 전원 풍경은 그들의 피로를 풀어 주었다. 탄탄한 신작로도 좋았지만, 밭두둑을 따라 고랑을 넘어서니, 가느다란 시골길이 낙엽 깊은 숲으로 안내해 준다.

시골 길은 어쩐지 로맨틱하다. 그 길의 끝에는 위대한 신비와 꿈과 전설이 그들을 위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위로 여행?……아버지도 자리에 누워 눈여겨보고 계시는군……’

그는 권 노인의 의중도 모른 채, 이렇게 혼자 쓴 웃음을 지었다. 성희는 상하이 방면으로 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도쿄에서 여러 소문이 전해졌다. 최근에는 독창회 건으로 낮 두껍게도 그의 친구에게 협조를 부탁해 왔다는 얘기도 들렸지만, 이제 그는 성희의 일에서는 졸업한 상태였다. 그래서 부친은 위로할 생각으로 이번 여행을 권한 것이라고 수봉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권 노인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수봉 일행이 집을 떠나자마자 손자 인철을 불러서는,

“지금 네 모친을 찾으러 갈 테니 옷을 갖춰 입거라.”하고 명령했던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 돌아오지 않을 텐데요…….”

인철이 주뻗주뻗 이의를 달자,

“돌아온다. 그것은 내가 보증할 테니까 어서 옷 갈아입고 와.”

“도쿄에 말인가요?”

인철이 어안이 병병해있자, 권 노인은,

“무슨 허튼 소리하는 거야! 바보 같으니!”

하고, 담뱃대로 주물로 만든 재떨이를 탕탕 두드리며,

“성희가 아니라, 진짜 네 어미 말이다. 내쫓은 사람은 되부르는 것이 의무야. 인정(人情)은 떠난 사람을 붙들지 않는 법이다. 왜 맞아준단 말이나.”

점점 더 인철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아버지와 상의하는 게…….”

“바보 같으니!”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다. 남자도 여자도 상대의 얼굴은커녕 사진조차 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거역할 수 없는 도덕으로 되어 있는 가풍으로 보면, 의기투합해서 삼 남매를 낳은 여자를 되불러 오는데 어찌 아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으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 것도 ‘청기와집’의 하나의 전통인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나사변(支那事變)의 종국(終局)을 보고 죽고 싶었는데, 이 상태로는 어렵었다.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다.”

권 노인은 지나사변은 중국의 승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인철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권 노인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몇 번이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인철은 조부에게 대국(大國, 지나를 권 노인은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관념을 버리라고 진언했지만, 이론에 지자 조부로서의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었다.

만리장성도 한 개의 폭탄으로 먼지가 된다는 사실을, 조부는 아무래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무지함을 가련하게 여기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죽기 전까지는 모두 매듭을 짓고 싶은 게다. 이 참에 수진이 세모자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줄 테다. 네 모친이 돌아오면, 청기와집도 그럭저럭 되어 나갈 테지. 한 때 마가 끼었던 계야. 네 모친을 돌려보낼 때 나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언했다만, 완전히 그대로 됐어.”

— 그런 것을 수봉이 알 까답이 없는 것이다.

안대영 씨의 묘는 생각했던 것보다 빈약했다. 하지만 노송과 어린 소나무로 삼 면이 둘러 싸여 있어, 여하간 문인의 안식처로 어울렸다.

미연의 슬픔은 인임이 덩달아 울게 할 정도로 깊었다.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인간은 울고 싶은 만큼 울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아버지,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미연은 부친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다가, 문득 잔디가 벗겨진 적토(赤土)에 새로난 신발 자국을 발견하고는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러자 인임이,

“누굴까? 이쪽에 앉아있던 흔적도 있고, 미연 씨 오빠인지도 몰라요.”

“설마.”

그러나 미연은 이미 눈시울이 젖어 왔다.

“정말 그런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지만 공연한 생각이예요. 저는 이미 단념했어요. 그보다 인임 씨, 어젯밤의 그 여주인공의 묘를 보러 가지 않을까요?”

아, 이 근방이었어요? 가지요. 아버지 괜찮죠. 아직 시간이 이르니까.”

신발 자국은 해성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에 늙은 스승을 떠올리며 자전거를 주막에 맡기고는, 아까까지 묘 앞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 여옥에게도 얼굴을 내밀까 하고, 막 언덕을 넘어간 참이다.

“그럼, 그 뭐라든가 하는 학교 선생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어요. 어머, 여기에도 신발 자국이 있어요! 그럼, 분명 그 여자의 오빠쯤 되겠군요.”

“그 사람에게는 오빠가 없는 걸요. 분명히…….”

‘해성 씨일까?’

미연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때 그가 이 산읍에 있을 리도 없고 해서 그냥 산을 내려서는데, 공동묘지의 무덤 사이에서 한 청년이 불쑥 일어섰다. 옷차림은 형편없었지만, 분명히 그다.

해성이라는 것을 알고 미연은 움찔하여 순간 달아나려고 생각했지만, 인입이 사정을 알아차려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앞으로 다가섰다.

인입에게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해 두었던 것이다.

해성은 그다지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은 채 미연을 맞으며,

“아, 미연 씨였군요?”

“오랜만입니다.”하고 미연은 가능한 한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났군요. 아버지 성묘하셨습니까?”

“예.”

“저도 지금 막 성묘를 한 참이에요. 여옥의 묘를 보러 오신 겁니까?”

“예.”

“그랬군요. 여옥도 분명 기뻐할 겁니다. 이쪽입니다.”

‘박여옥지묘(朴如玉之墓)’—그것은 분명히 눈에 익은 필적이었다.

수봉 부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다.

미연은 소개를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수봉을 돌아보며,

“선생님, 소개 할게요. 유해성 씨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많이 신세를 진 분입니다.”

“권수봉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전부터 성함은 안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안대영 씨의 말년 중심으로 얘기가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 무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까, 수봉을 보는 해성의 시선에는 뭔가 가시 돋친 것이 느껴지는 터라 미연은 옆에서 조마조마해하고 있었다. 보통이라면 해성은 수봉 교수를 ‘선생님’으로 예우해주어야 할 터였다. 그런데 그는 태연하게 ‘당신’이라고 부르려는가 싶더니, 수봉을 조금 더 낮추어서 부르기도 하고, 자신을 가리킬 때도 ‘저’라고 하지 않고 ‘나’로 통했다.

자기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미연은 일종의 경멸마저 느꼈다.

미연은 얘기가 중간에서 끊길 때를 기다려, 인입을 재촉하며 일어섰다. 해성에게는,

“내일 이맘때쯤 이곳에서 만나지요.”

하고 살짝 얘기해두었다. 그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도, 꼭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해성에게서 멀어지자 미연은,

“지금 만난 사람이 그 선생님이예요.”하고 말했다.

“역시, 그랬군요. 나도 웬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기특한 사람 아니예요? 지금도 성묘했잖아요?”

“네, 그렇지요.”

“기특하네.”

“뭐냐, 지금 그 애긴?”

옆에서 수봉이 끼어들자, 인입은 대충 사건을 설명하고는,

“사랑하지도 않았던 여자의 성묘 같은 걸 하다니, 기특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아버지.”

“기특하군.”

이튿날 미연은 오전 시간을 적당히 가늠해서 부친의 묘에 갔다가 공동묘지에 들렀지만, 해성은 와 있지 않았다. 어제는 어수선했던 탓인지 알아채지 못했지만, 분묘 앞에는 작은 들국화가 한 포기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차라리 해성 씨와 결혼해 버릴까.’

미연은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이 사람을 구원할 여자는 나 말고는 없을 지도 몰라.’

수봉들이 청기와집에 돌아간 것은 예정보다도 사흘이나 뒤의 일이었다.

산음의 예정에는 차질이 없었지만, 사흘 전에 왔던 길을 돌아가기 싫어 거리는 꽤 되어도 그들은 동해안으로 나가기로 했던 것이다. 만일 마음이 내키면 온정리에서 1박 해도 좋고, 해금강에서 총석정까지 배로 돌아보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튿날이 마침 일요일이었던 터라 해뜨기 전부터 등산객이 싸구려 여관의 복도를 뺨겨거리며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들도 얼떨결에 산에 오를 생각이 들어 등산대에 휩쓸리고 말았다.

모쪼록 고려국(高麗國)에서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다고까지, 지나의 문인들의 감탄을 자아냈던 명산은, 바야흐로 산 전체에 단풍을 뿜내고 있다. 일만 이천 봉우리들이 마치 불타오르는 햇불처럼 시퍼런 가을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올려다보면 웅대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장엄하다. 지극히 섬세한 자수처럼 선과 색을 누빈, 이런 웅장함이 어디서 빚어진 것일까. 잡목 한 그루도 제 자리를 벗어난 것 없고, 돌 하나도 제 위치를 벗어나 있지 않으니, 아름다움과 기이함을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정말 좋구나. 금강산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보면 볼수록 좋고, 경이로움 그 자체다.”

비교적 강경파에 속하는 수봉도 이르는 곳마다 탄성을 올렸다.

“금강산을 종종 그림이나 시, 미녀에 비겨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하지만, 조금도 들어맞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 말하련다. 일만 이천의—이천인가 삼천인가는 모르겠지만, 용맹무쌍한 장군이 손에는 긴 칼을 들고, 입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림이라고. 긴 칼로는 악을 징벌하고 미소로는 선(善)을 보호한다…….”

수봉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구룡연의 비말(飛沫)을 맞으면서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미연은 인입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트리며 마는 것이었다.

어째서 울음을 터뜨린 것인지 나중에 물었을 때도, 그녀는,

“나 자신도 모르겠어요. 저 그냥 울고 싶었어요!”하고 믿기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비로봉의 산장과 장안사에서 각각 1박을 하고, 기차를 타고 나서도 금강산에서 받은 흥분은 말끔히 가시지 않았다.

해성이 약속을 어기고 마침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을 떠올린 것도, 기차 안에서 인임이 해성의 근황을 물어왔기 때문이었다.

‘맞아, 그이가 완전히 나를 바람맞혔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정도가 있지.’

미연은 새삼 화가 나서,

“글쎄요, 사실 저는 그 사람 잘 몰라요. 아버지한테는 종종 찾아왔던 것 같은데. 학교도 그만두었다고 하니, 지금은 대부분 부모님 곁에서 지내겠죠.”

저는 그 사람 정말 동정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거의 없지요.”

패기가 없는 게 아닐까? 애인도 직장도 빼앗은 여자의 묘를 찾다니, 더군다나 사랑하지도 않은 여자의—.”

“하지만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애인은 그 후 어떻게 되었지요?”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 미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시집갔다고 해요.”

간단히 대답했다가,

“엄청난 부잣집의 후처가 되었다지요. 아이도 셋이나 되고. 좀 불쌍해요.”하고 덧붙였다.

여행—그것은 인생에서 실로 흔한 작은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산읍 여행 정도의 작은 여행은 그들의 인생 기록의 여백에도 남지 않을 사소한 삽화 정도에 지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수봉 교수는 이번 여행으로 얻은 것이 많았던 듯하다. 그는 오는 손님을 붙들고 말하곤 했다.

“당신은 금강산에 가보셨습니까? 몇 번 정도나? 한번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세 번 정도는 가보지 않으면 안되지요. 금강산이 명산인 까닭은 모릅니다. 철학에서는 칸트, 문학에서는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것이지요. 금강산은—보면 볼수록 금강산의 매력을 알게 됩니다. 몇 번이고 보지 않으면 그 산의 매력을 알 수 없지요.”

어느 날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수채화가가 청기와집에 들렀다. 화가는 며칠 전부터 화신 갤러리에서 금강산 수채화전을 하고 있었다.

“당신의 전람회에는 두 번이나 갔어요.”

“그렇습니까?”

화가는 감사의 뜻을 담아 말했지만, 수봉은 계속해서,

“하지만 그건 금강산에 대한 모독입니다. 당신은 그 산을 심미적인 눈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아름답지요. ‘석풍(石楓)’인가 하는 그림은 정말 잘 그렸어요. 하지만 그저 그것뿐이지요. 아름답다, 그것만으로 됐다고 보는 취향도 있겠지만, 그 산이 명산인 까닭은 미의 상징에 있는 것이지 드러난 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 산은 색채의 산이 아닙니다. 위대한 정신이 나무 하나, 돌 하나에까지 깃들여 있지요. 그 골짜기의 고요함, 그 준엄한 봉우리의 웅맹스러움, 그 암석의 참을성, 그것이 포착되지 않으면 그 부드럽고 푸근한 미소는 창부(娼婦)의 교태스런 미소로 끝납니다. 아직 당신의 붓으로 이를 수 있는 경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화가는 비참한 얼굴로 담뱃대의 물부리를 계속해서 딱딱 깨물었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의 히

스테리를 연상케 하는 얼굴로,

“그건 산으로 뒤덮인 신문소설이지요. 좀 부끄러워도 일 없습니다!”

화가는 수봉의 후배이기도 했다. 그래서 낄 소리도 못하고 맥없이 돌아가자, 수봉은 그 길로 곧장 외출하여 지금 그의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20호 정도의 그림을 익명으로 샀다. 수봉은 그 젊은 화가의 재능은 인정하기도 했고, 아끼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이제 골짜기의 바위 같은 삶은 살지 않겠어. 의연하게 저 금강산의 봉우리들 같은 삶을 살겠어. 금강산의 봉우리들은 신념이고 희망이야.’

그렇게도 그는 말했다.

그러한 수봉의 심정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가 본처가 돌아온 놀랄 만한 사건을 의외로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었다.

물론 본래대로 부부생활은 하지 않았지만(그녀는 이미 그럴 나이도 아니었지만), 이미 그녀를 보는 수봉의 시선에는 혐악함이 없었다.

이 작은 삽화가 인임에게도 단순한 삽화는 아니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묘에서 만난 청년에게 열중하는 동경을 품게 되었던 것이다.

직접 입밖에 꺼내지는 않지만,

“그 유 선생님, 나 어젯밤 꿈에서 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이 쪼어요.”

에둘러서 곧잘 화제로 꺼냈다.

“그 사람이 은밀하게 인임 씨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미연도 그것을 알아챘지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언제나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그렇까. 그래도 이상해요.”

“하지만 그런 일도 있어요. 잠깐 얼핏 본 것만으로 평생 잊히지 않는—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주소를 알려 줄까요? 그러면 당장 편지가 오겠지요.”

미연이 그렇게 놀리면,

“싫어! 싫어! 그건!”하고 크게 당황해하는 인임이기도 했다.

인임은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이 해성에 대한 생각으로 따뜻했다.

분류(奔流)

십수 년인가 되는 가뭄에 대한 반동일까. 그 해 겨울은 살을 에는 듯이 추웠다. 12월 중순부터 하순에 걸쳐 따뜻한 날이 계속되었던 터라 사람들의 마음은 긴장이 풀어져 있었다. 거기에 계절에 맞지 않는 찬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한밤중부터 어느덧 폭풍우가 되고, 그것이 또 싸라기눈이 되기도 하고 우박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날씨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비가 그치자, 이번에는 영하 이십 도 대의 혹한이 덮쳐 왔다. 폭풍이 왔다. 함석 지붕이 벗겨지고, 기와가 날아갔다. 거미줄처럼 시가지를 덮고 있는 전선은 마구 비명을 질렀다. 한낮인데도 대담하게 어둠이 찾아왔다. 황토비가 내렸던 것이다. 그 어둠은 온실에서 자란 도회인에게 건디기 힘든 불안을 주었다. 황토 빗발이 손에 잡힐 듯했다. 흙비에는 굵은 모래알도 섞여 있어 사람의 얼굴을 마구 때렸

다. 겁이 많은데다—의심이 많아 기상의 이변에는 익숙하지 않은 도회인들을 더욱더 떨게 만들었다.

그들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겁에 질린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실제 추위보다도 그 관념에 쫓겨 필요 이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래서 추위는 더해질 뿐이었다.

“이거 정말 못 견디겠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모두 동사(凍死)시킬 작정인가.”

“정말!”하고 누구나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이야. 이렇게 추워본 적은.”

도회인은 허풍을 떨기도 한다.

“광고에는 거지가 무지 많이 동사했다고 하데. 그럴 거야. 이 추위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주] 경성 종로에 있는 다리 이름. 우기(雨期) 이외에는 거지들의 거처가 되기도 한다.

“서서 오줌을 누면, 금방 얼음 줄기가 되더군.”

조금 과장이기는 하지만, 온실에서 자란 약한 도회인에게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추위였다. 청기와 집은 높은 곳에 있는 만큼, 바람도 한결 더 했다. 맨 먼저 비명을 지른 사람은 권 노인이었다.

가을이래 약해진데다가 감기 기운으로 발열을 보이려는가 싶더니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가래가 굳어져 천식이 되어, 그는 추운 긴 겨울밤을 쿨럭쿨럭 기침으로 날을 썼다.

“소향아, 나는 이제 가망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저 천명을 기다릴 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조낭자(趙娘子, 점치는 여자의 이름)에게 갔더니, 대감은 아흔아홉까지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작은새 집에서든 만세 장수는 보증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죄야. 나는 그런 죄 받을 만한 나쁜 짓을 한 기억은 없어. 부탁이다. 적당히 죽게 해줘.”

이런 정도의 대화도 계속되는 기침으로 중단되었다. 훌륭한 용모로 칭찬이 자자했던 귀인의 얼굴도 지금은 불만한 데도 없고, 오래 써버린 걸레 같았다. 옆에서 봐도, 권 노인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다.

권 노인의 옛 친구는 대부분 죽었고, 그의 쓸쓸한 병상을 찾는 사람은 집안사람 외에 민 자작(子爵) 등 두 세 사람 있었지만, 그들도 이미 팔십이 넘은 고령이라 입동 이래로는 발길을 뚝 끊었다. 지금의 위문객이라면 말이 통하지 않는 와타나베 교수 정도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두 사람의 사상은 서로 달랐다.

“불청객이 또 왔구나!”

교수를 보면 권 노인은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맞았다. 그러면 교수도,

“대감의 정담(政談)을 삼가 들으러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꿈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움 살만한 말을 내뱉는 것이다.

“발칙한 학도(學徒)같으니! 노인을 놀릴 생각인가.”

노인의 꿈이란 저 사대사상(事大思想)이다.

권 노인은 사실 와타나베를 미워하고 있었다. 적어도 경원(敬遠)하고 있었다. 그렇게 미워하고 경원하면서도 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면,

‘교수가 감기라도 걸렸는가?’하고 은근히 신상을 걱정하는 것이다. 권 노인은 내심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구석도 있었다.

“약식(藥食)은 이제 없느냐? 와타나베 몯을 좀 갖고 오너라.”

[주] 찹쌀에 밤, 대추, 소나무 열매 등을 섞어서 찐 붉은색 밥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권 노인은 와타나베의 박식함을 존경하고 있었다. 현대의 어떠한 학자도 그는 일소에 부처버리는 것이지만, 그 애초의 동기는 그가 학문이라는 것을 일종의 조화(造花)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와타나베는 한학에도 깊은 조예를 갖고 있어, 필담(筆談)이나 수봉의 통역을 통해서이긴 해도 곧잘 얘기가 활기를 띠었다.

“와타나베는 세상에 드문 재주를 가진 사람이다. 양명학에도 매우 훤히 다. 이자설(異子說)도 꽤 공부했고. 게다가 정직하고 근면하고, 우선 예의작범에 바르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데도 바르고. 귀여운 녀석이야. 와타나베는 분명 고향 마을에서 명문가의 자식인 게 분명해.”

하지만 또 그의 두뇌가 지나치게 좋다고 말하는 것이다. 두뇌가 좋은 만큼 요설(饒舌)을 지껄여 청기와집에 좋지 않은 사상을 침투시킨다는 것이다.

“인철아! 오늘 교수가 네게 무슨 얘기 없든?”하고, 교수가 돌아가면 곧잘 손자를 불러 묻는 것이다.

“와타나베는 재능이 있는 남자지만, 아무래도 안돼. 우리 삼대 사이에 골을 만들려고 하거든. 네 애비는 확실하니까 괜찮지만, 네가 교수의 뒷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되는구나.”

“할아버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들리지 않겠지만, 그 분이 말하는 것은 대체로 진리예요. 우리들은 일본 제국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집착도 있겠지만, 세계의 대국(大局)을 보면…….”

“바보 같으니! 너희 부자가 머리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 바보로구나. 대국(大國)은 황제가 만드신 나라야. 네 애비도 대국이 진다고 하더라도, 너야말로 네 애비보다도 바보 같은 말을 하는구나. 어찌된 일이나?”

‘대원군 스타일이군.’

인철은 혼자서 탄식했다. 1에 2를 더하면 3이 된다는 엄연한 사실이 조부에게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는 가능한 한 온건하게 할아버지의 사대사상을 바로 잡아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그는 손자가 얘기하는 과학에까지 완고하게 눈을 감고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대원군을 비롯해 우리들 조상들은 이렇게 편견으로 정치를 했던 거야!’

인철은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일종의 모욕감마저 느꼈다.

바로 그 무렵, 인철은 한말(韓末)의 사정을 기록한 두세 권의 책을 읽고 있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면 좋을지 혼란해 하고 있던 인철은 고민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조부의 꿈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부친의 영미(英美) 제일주의는 좀 당황스러웠다. 그가 첫째 목표로 하는 바는 청기와집을 부흥시키는 것이었다. 도쿄에서 돌아온 이래, 그는 이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청기와집을 구하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신념이라는 것이 현실은 물론 다음 세대를 이어갈 강렬한 사상이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그기 그 사상의 소재를 책에서 찾기 위해 와타나베 교수에게 상담했더니, 교수는 감탄했다.

“역시 자네는 다르군. 훌륭해! 바르게 청기와집을 구할 수 있는 건 경제가 아니라 사상이지!”

짜라기눈이 내리던 날 밤, 와타나베가 드디어 와 주었다. 인철은 그 책들을 탐욕스레 읽어 나갔다. 한말의 정계는 급진파와 온건파 등으로 서로 얽혀 온통 사투(死鬪)를 연출하고 있다.

대충 그럴 것이라고는 진작부터 짐작하고 있었지만, 읽어보니 그는 비로소 한말의 어수선함을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처음에는 대강 읽어 내려갈 생각이었지만, 그 혼란스런 모습을 아무래도 속독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왕실을 중심으로 한 세력다툼은 물론, 여기에 청과 러시아 같은 외국의 책동이 더해져 한 사람의 성격이나 활동도 일정한 계통도를 그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러한 혼란이 착종은 눈이 핑핑 돌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러한 착종과 혼란 속에서 용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잘도 싸웠구나.’

하고, 오늘날의 조선을 쌓아올린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감탄하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역시 선경 지명이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혼란 속에서 완고하게 흔들림 없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당당히 싸웠던 그 이성과 정열에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 예를 들면, 일진회 회원 등은 조선의 오늘날을 미리 예상했을까요?” 하고, 인철은 어느 날 수봉과 와타나베 교수의 격한 논쟁이 끊긴 틈을 타서 이렇게 질문해보았다.

오늘날에 대한 논쟁은 종래 그들 두 사람 사이에서 곧잘 오고 간 것이었다. 바로 젊은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었다.

“그건 예상하고 있었을 거야.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생명을 던졌던 게지.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의문이 든 겐가, 자네는?”

“어째서랄 것도 없지만, 일진회 등은 대부분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지성으로 용케 그만한 일을 알아차린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본성인 게지. 일종의 직감력이고. 진리란 높은 곳에는 없어. 지상의 어딘가에 흩어져 있지. 2에 3을 더하면 5가 된다. 이것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알 수 있지. 하지만 이 덧셈을 훌륭한 학자에게 시켜보게. 어렵 없을 걸.”

“이렇게 말하면 자네는 아직도 오해할지도 모르지만—.”하고 수봉은 아까의 논쟁의 계속인 듯이 뜨거운 차를 부으면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 싶군.”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건……”

와타나베도 손수 차를 따라 마시며 말했다.

“즉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문제를 견강부회(牽強附會)하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길세.”

인철은 책을 읽고 있는 체하며 부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수봉은 말했다.

“이른 얘기지만—이 청기와집만 해도 그렇지. 집에서 어엿한 애국자는 인택이야. 그 다음이 저 애고. 그리고 인철이 다음이 나일 걸세.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가 하면,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지. 이 집의 손자와 아버지의 사상의 차이는 천양지차야. 자네는 곧잘 내가 나쁜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모양인데, 지금의 내 기분이 가장 정직한 애국자지 싶네. 내 쪽에서 보면, 인철이 들은 건강부회하는 무리가 아닐까 생각돼.”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로서도 밀려오고 밀려오는 현실의 파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듯이, 자신의 위치를 조용히 반성해보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인철은 종래의 부친에게 있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추위가 가까스로 물러나기 시작한 어느 날의 저녁 무렵이었다. 인철은 수봉과 교대로 외출하고 있던 터라 두 사람이 동시에 노인의 머리맡을 떠나는 일은 없었는데, 그날은 부친의 외출 후에 불일이 생겨 나중에 시가지로 나가게 되었다.

인철은 다방에서 역시 사업열에 불타고 있는 동창인 곽주용과 만나, 강원도의 동해안에 있는 미개간지 개척에 관한 의논을 일단 정리하고 밖으로 나갔다. 국유지였던 터라 불하(拂下) 교섭은 꼭이 담당하기로 하고, 그는 자금 조달을 맡았다. 그러면 투자해도 좋겠다는 이들이 두세 명은 있었던 것이다.

개인은 살찌고 국가는 부유해지지 않는 길을 거슬러 국가가 부유해지고 가정이 살찌는 사업을 모색하던 중, 거의 1년이나 걸려서 정리된 것이 미개척지를 개간해서 나라가 요구하는 것을 생산하는 계획이었다. 처음에는 북만주에서 북지(北支)⁷⁰⁾ 방면에 뜻을 두었지만, 인철의 수수한 성격 탓에 조선으로 얘기가 정리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아무튼 조만간 현지 조사를 하러 가지. 모든 것은 그 후에 하고.”

“알았네.”

곽과 헤어지자마자 조부의 병환이 걱정되어 돌아가면서도, 비틀거리는 다리가 또 본정(本町)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그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요 4, 5일 동안에 그의 가슴에는 가스가 가득 차있었던 것이다.

인철은 비본(秘本)으로 되어 있는 한말 사정에 대한 대부분의 책을 독파했다. 무척 혼란스러워 책을 덮으면 벌써 모든 것이 몽롱해졌지만, 단 하나, 그들 선각자가 엄청나게 착종된 세대의 한가운데서 내선(內鮮) 합병에 의한 조선의 황토화(皇土化)가 조선을 낙토(樂土)로 만들 수 있다는 이념에 도달한 것과, 후에 황민이라는 영광을 후세에 전해주기 위해 얼마나 용감하고 진지하게 싸웠을까 하는 감격은 또렷하게 마음속에 새겨졌다.

아무튼 이욕으로 가득 찬 현실 앞에서, 또 커다란 역사의 임무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소리아득(小利我得)에 의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위대한 감격이었다.—그 걱정이 나날이 가슴에 쌓이고, 그것이 3, 4일이나 계속되자, 이제 가슴에 통증마저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 걱정에서 오는 통증을 영화관은 훌륭하게 진정시켜 주었다.

70) 중국의 화북 지방.

“꽝, 꽝!”

터지는 포탄 소리에 대지에 퍼지는 포연(砲煙), 산산이 흩어져 내리는 적의 토치카—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슴에 가득 찬 가스가 후련하게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즈코시(三越) 앞에 다다랐을 때, 인철은 군중 속에서 부친의 옆얼굴을 발견한 것이다. 한 노파가 센닌바리(千人針)⁷¹⁾를 돌리고 있었다. 수봉은 이제껏 본 적이 없는 진지한, 아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달라졌어.’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경성일보 뉴스관으로 들어갔던 것인데, 돌아 나오는 길에 문득 돌아보니 오른쪽 구석에 서서 열심히 화면을 보고 있는 부친을 이곳에서도 발견한 것이었다.

일찍이 부친이 내지의 영화는 물론, 뉴스 같은 것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부터 권 노인의 용태는 내리막길인 듯, 쇠약함이 현저해졌다. 어쨌든 구십의 노령인 터라 어느 때 어떤 이상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수봉은 자리를 병실로 옮기고 수진과 인철이 수시로 수봉을 대신하기로 했다.

소향과 수봉의 처 윤씨, 미연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에 힘쓰기로 했다. 그러나 윤 씨는 대부분 취사 쪽에 매달렸고, 소향은 바느질에도 의식(儀式)에도 어두워, 대부분이 미연에게 할당되어 있는 듯했다. 미연은 또 성희의 자식인 인택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미연이에게는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부러먹기 위해 맡은 것처럼 되어 버렸으니.”

병이 약간 소강상태에 들어서자, 권 노인은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닥에 맡겨져 얼마나…….”

“그래, 그래, 네 마음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네 부친에게 더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런 일만 시키지는 않을 게다. 네가 왔을 때는 이미 어느 학교도 늦었어. 해 바뀌면 학교에 나가거라. 수봉아, 어딘가 있겠지?”

“저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의 성품이라면, 교육 방면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

“인재를 가르치는 일 말이나? 좋겠지. 하지만 부친의 3년 상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 혼기가 늦춰질 텐데. 어떡냐, 미연이는?”

“정말 그렇지요. 벌써 스무 살이지?”

소향이 물었다.

미연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위축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인택이도 어떻게든 해야지요. 미연이는 3년 상 중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인철이도 이제 해 바뀌면 스물여섯입니다.”

“하지만 저 보다는 삼촌 쪽이 먼저가 되어야겠지요.”

인철은 소향의 마음을 읽은 듯, 조금 언짢은 목소리였다.

71) 출정병사의 무사를 빌어 천 명의 여자가 한 땀씩 붉은 실로 천에 매듭을 놓아서 보낸 배두렁이 따위.

미연은 살짝 자리를 떴다.

“안돼요. 저런 물렁한 녀석에게 누가 딸을 준 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물렁한 사람을 맞으면 되겠네요.”

인철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소향 모자가 무척이나 미연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가을이래의 미연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때로는 자신을 피하고 있는 듯한 기색마저 보여 못 견디겠는 것이었다.

‘나 자신이 최근 몹시 번민하고 있어서 미연 씨가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던 게 틀림없다.’

그는 미연의 슬픈 듯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자신을 타일러 왔다.

‘초조해 할 건 없어.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상이 끝나지 않으면 결혼 같은 건 할 수 없을 테니. 그렇다. 수진 삼촌을 어떻게든 빨리 결혼시키는 수밖에.’

그렇게 생각하고 인철은,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 삼촌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좀더 안정되겠지요. 삼촌은 몹시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니, 부인이 생기면 분명 좋아질 거예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허사야. 그 애라면—”

소향은 그렇게 말하는가 싶더니, 무섭고 날랜 눈으로 좌중을 빙 둘러보고는,

“그래, 미연이 정도라면, 제대로 좋은 말로 잘 타이를 수 있을 지도 모르지. 하지만 귀염받는 딸로 가정교육을 받은 그런 아가씨라면 도저히 안돼!”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인철은 소향 모자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엄격히 했다. 3년상이 끝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지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어느 날 인철은,

“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니, 정말로 이번 봄에는 미연 씨를 어느 학교든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하고, 수봉을 움직여 보았다.

수봉은 겨울 내내 문을 닫아 두었던 서양식 서재에서, 스토브를 켜고 긴 의자에 앉드려 누어 『조선 평론』을 읽고 있었다.

‘아, 아버지도 역시 읽고 계시는구나.’하고 인철은 생각했다.

『조선평론』은 신년호의 대부분을 할애해서 ‘지나사변과 조선인’이라는 표제 특집을 다루고 있었다. 사상은 물론 온갖 문화부문과 생산부문에 걸쳐 무척 상세하게 다룬 대 특집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소년에게 주는 글’이라는 K씨의 논쟁이 커다란 화제였다. 권두 논문도 아닌데 일단(一段) 처리한 것은 이 잡지로서는 창간 이래 처음이라고, 특집 후기에 실었을 정도다. K씨는 수봉과도 동년배이지만, 글과 화술 모두 능해서 조선 지식층에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철도 신문에서 광고를 보고는, 곧장 달려가 구입해서 읽었다. 역시, K씨는 훌륭하다고 감탄의 대상이 되었던 무렵이기도 하다.

인철은 꽤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윽고 수봉은 잡지를 덮더니 다소 떨떠름한 얼굴로,

“미연이 어쨌다고?”

“미연 씨가 너무 안됐으니까, 올봄부터는 학교에라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만,”

“아, 그 일 말이나? 나도 진작부터 생각해 두었지. 그런데 본인의 희망은? 어느 학교가 좋을까?”

“X 전문학교의 음악과 쪽을 희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하긴 본인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았 습니다만.”

“음악과는 안돼. 첫째, 그 아이의 성격에 맞지 않을 게야. 가사과나 보육과 어느 쪽으로 하지.”

“보육이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보육이라면, □□보육이 좋을까. 거기는 2년제야. 4년이면 미연도 애가 타겠지.”

“그리고 삼촌의 혼처도 빨리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만— 할아버지에게 만일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상 기간까지 3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고 하니.”

“그래서 나도 애가 탄다. 실은 미연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누가 말입니까? 삼촌이 말입니까?”

“그래. 모자 모두 같은 생각인 듯하다. 그게 너무 열심히야. 할아버지께서 재산을 분배하겠다고 했 더니, 그런 거 한 푼도 필요 없다, 그 대신에 미연과 결혼시켜 주면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다고 말하 고 있다만, 미연이가 지금은 어떻게 안 되니까……, 하지만, 뭐, 기다리지.”

‘무서운 일이다!’

인철은 마음으로 외쳤다. 미연에게도 얼마간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노린 음모인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간파했지만, 그날은 침묵했다.

같은 처마 밑에 살면서도, 미연과는 아침저녁 인사 외에는 서로 이야기할 기회라고는 없었다. 그는 그것이 안타까웠다.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미연이 삼촌 모자의 뒷에 걸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저 탐욕스런 모자가 재산 분배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얘기했겠다! 어쨌든 할아버지의 의견을 물어 보자.’

그런 식으로 기회를 노리는 동안, 권 노인에게는 점점 최후의 시간이 긴박해 왔다.

“그래, 그랬어, 그러고는?”

“황군은 패한 적을 쫓아 진격에 진격을 거듭하여 적이 최후의 의지처로 삼은 □□를 목표로 돌격하 고 있습니다. 패한 적은 완전히 퇴로를 차단당했고, 일부는 배수(背水)의 태세를 취하고…….”

“배수진이라…….”

“그렇습니다. 산악과 계릴라 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적은 혈안이 되어 반격을 시도했습니다만, 강력한 기계화 부대와 정확하기 이를 데 없는 공군의 중압에는 어떻게든 할 수 없어 속속 우리 진영 에 투항하고, 지금은 완전히 주머니 속의 쥐가 되어버려…….”

이즈음 권 노인이 특히 아끼던 한매(寒梅)가 초봄의 별을 받아 피기 시작한 아침 무렵, 권 노인은 손자가 소리 높여 읽어주는 전황을 들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어 갔다.

죽음이란 이렇게까지 조용한 것일까 싶을 정도로 권 노인은 조금의 괴로움이나 슬픔도 보이지 않 고 잠이 들듯이 눈을 감았다. 요즘 저렇게 대국의 반격이 왕성하여, 청기와집의 지난날의 번영을 되 찾는 꿈에 마음이 들었던 권 노인에게는 너무나 조용한 죽음이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사상이 아니라 의지였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인철은 와타나베 교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교수도 거기에 동의하며,

“근거 없는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런 거지. 하지만 죽을 때가 되어 그렇게 깨끗하게 단념할

수 있었다는 건 할아버지가 의외로 대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계셨기 때문으로 보이네. 어쨌든 청기와집에는 이제 현실을 무시한 꿈은 할아버지와 함께 묻힌 셈이야.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대가 된 걸세. 자녀의 이념대로 집이 되어 가겠지. 열심히 하라구!”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인철의 어깨를 툭 두드렸다.

인철은 교수의 손에서 엄청난 무게를 느꼈다—그것은 한 세대의 무게이기도 했다. 『한말풍문록(韓末風聞錄)』이라는 책에 보면, 우치다 료헤이(內田良平)가 어깨를 두드리자 일진회의 이용구(李容九)는, “나 같은 비재(菲才)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인철이 느낀 무게가 바로 그것이였다.

권 노인은 그날 새벽 가족들과 이런저런 담소까지 나누면서도, 이렇다 할 유언다운 유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흥의 선산에 매장을 마치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자, 실로 극히 상세한 유서가 나왔다.

수봉은 모두들 앞에서 이것을 큰 소리로 읽었다.

“인철에게 고함. 내가 너를 무척이나 사랑했기에 이 글을 네게 준다. 너는 이 할아버지의 뜻을 명심하여 유감(遺憾) 없기를 기하거라…….”

그것은 뜻밖에도 손자인 인철 앞으로 보낸 것이였다.

또 하나의 의외인 것은 생전의 그 푸념 많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였다. 그는 청기와집의 가통(家統)을 설명하고 그 부활에 오로지 뜻을 두고 있지만, 조상에 대한 결례를 경계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엄격한 주문도 없었다. 그저 가족 전원에게 하나하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그는 몸종인 입분에게도 그녀의 신상에 관한 것까지 주의하고 있었다.

“수진에게는 따로 언급해 둔 집안 재산을 나누어 주더라도, 가능하면 함께 살기 바란다. 의는 결과라 면 별거도 어쩔 수 없겠지. 미연은 내 친구의 사랑하는 딸이니—”하고 읽고 있는데, 갑자기 미연이, “선생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저에 관한 부분만큼은 저만 따로 읽고 싶습니다만…….”

“미연 씨가 희망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미연의 이 의외의 말에 모두들 적잖이 당황했다. 수봉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의 안색을 살피기도 하듯이,

“나로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한 터라, 가능하면 모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 역시 당신에 관한 부분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지요.”

수봉이 문득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각자에게 어떤 의심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였다. 소향이 낳은 자식인 수진 남매를 비롯해 인철과 인택의 체면도 있을 것이고, 선량한 인택은 그다지 불쾌한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인철이나 그들 모친에게는 일단 말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소향 모자에게는 특별히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다음으로 옮겨서,”하고, 수봉은 부친의 유언을 계속해서 읽었다. 수봉의 처에게는 마을에서 7년간의 생활이 무척 양호했고 아녀자의 모범이었다고 칭찬했으며, 가장의 내조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순순히 타일렀다. 그리고 인택이 제 모친(성희)을 생각지 않도록 단속하고, 입분이에게는 좋은 상대를 찾아 혼인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마련해주도록 하라는 등, 실로 자상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청기와집 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미연은 홀로 수봉에게 불려가 권 노인의 유언을 보게 되었다.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녀의 덕을 칭찬하고, 물심양면으로 무너지고 있던 청기와집에 좋은 모범을 보여준 것에 예를 표했고, 3년간의 학비와 혼인비용 등이 주어져 있었다.

“저는 이렇게까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으로도 3, 4년간의 학비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요.”

“이것은 나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 청기와집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니, 당신의 뜻이 어떻든 우리들은 이 유언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실은 일시에 결정된 돈은 현재로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학교는 역시 2년제 보육학교로 정해졌다.

미연과 교대로 인철이 불려왔다.

수봉은 아들을 앞에 두고 지금 유언을 펼쳐들고 다시 읽으면서,

“이 유서는 당연히 내 앞으로 주어지는 게 마땅하지만, 할아버지는 네 앞으로 남기셨다. 그만큼 너도 네 자신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지워졌는지 충분히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단만, 할아버지의 영혼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다오. 너는 이제 명실공히 이 유서 있는 가통을 잇는 것이다. 내게 꺼릴 것은 추호도 없다. 사상적으로 너와 나는 다소나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도 네 기분은 알아볼 생각이다. 아니, 나도 내 자신이 억지로 갖다 붙인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끽끔 거렸던 것만큼 알고는 있다. 나도 때가 되면 너희들 젊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겠지. 그런 점에서, 나도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다. 너와 나와 사상의 차이는 이제 물과 불의 차이는 아닐 것이다.”

태고의 여성

권 노인의 유서에 그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무엇보다 미연을 안심시켰다.

미연은 실로 조마조마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것이 일종의 쓸쓸함을 느끼게 한 것도 사실이었다. 웬지, 한 마디 정도는 언급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완전히 제외되었어.’

—그런 쓸쓸함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감정은 모두 다 그녀의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앞의 감정은 인철이나 수진이 결혼상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안심이고, 뒤의 것은 그 두 사람 다 권 노인에게서 완전히 제외된 것에 대한 불만에서 오는 것이었는데, 이 혼란스런 심리가 지금 그녀의 거짓 없는 기분이기도 한 것이었다.

만일 권 노인이 그녀에게는 인철을 배필로 정해주었더라면, 그녀는 거기에 따랐을지도 모른다. 또 수진을 배필로 정해주었더라면, 그녀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을 지도 모르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필경 그녀가 그 어느 쪽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도 되고, 아직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증좌(證左)도 되는 것이었다.

지금의 미연으로서는 그것이 진심일지도 모른다.

미연은 연애라든가 사랑이라는 것을 죄라고 교육받으며 자라온 여자였다.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성애에 대한 호의는 결국 음란한 것이었다. 새로운 교육을 받았지만, 그녀는 그 새로운 학문과 지식과 관념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으로 그 새로운 학문과 관념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녀의 부친인 안대영 씨도 그러했다. 그는 타협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에 비하면, 권태식 씨는 비교적 융통성을 갖고 있고, 그 차이가 결국 두 사람을 결별시켰던 것이다. 그런 안대영 씨의 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그 시대에 상응하는 교육까지 받고 있었던 그녀에게 소녀시절부터 깊이 영향을 주어, 바느질에 친숙한 그런 여자로 만들고 만 것이다. 이미 일개 농부로 영락해 있으면서도, 마음만큼은 어디까지나 높아서 아가씨든 공주든 가져서는 안 되는 몸가짐을 강조하며,

‘여자의 맨발은 음란함의 상징이다.’라고 하여, 여름에도 숨을 넣은 버선을 신게 한 것이다.

‘여자의 대답에는 그저 ‘예’가 있을 뿐.’이라고 배웠고,

‘남편이 부르면 여자는 따르는 게 제일이다.’라고도 가르침 받은 터라, 연애라든가 사랑과 같은 용어에서 비릇되는 신선함은 그녀에게는 음란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았다.

‘여자의 성씨와 남편은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얼마간의 부자연스러움도 불평도 느끼지 않는 그녀이기도 한 것이었다.

그래서 인철의 모친이 남편의 쓸쓸한 생활에 깊이 동정하고, 성희를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은 평생 기꺼이 곁에서 섬기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인입들처럼 웃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님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바보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림받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니?”

“그럼, 어머니는 정말로 그래도 괜찮아요?”

“그야, 좋을 리야 있을라구. 하지만 아버지가 즐겁게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그쪽이 내겐 훨씬 즐거워. 그렇지요, 미연 씨.”

“아주머니의 기분, 저는 잘 압니다.”

인입은 기가 막혀서 외쳤다.

“어머, 그럼 미연 씨도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역시 그렇게 나갔다가?”

“경우에 따라서는요.”

“어머, 놀라워라! 당신들은 정말 태고적(太古的) 여성이로군요.”

북악산 꼭대기의 잔설이 점점 면적을 줄여갈 무렵엔, 경성의 시가지는 이미 완전한 봄이다. 삼면이 산에 둘러싸여 커다란 하나의 분지를 이루고 있는 이 고도(古都)의 상공은, 새벽녘의 호수처럼 안개로 덮여 있다. 봄 햇살을 받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가로수의 새싹은 소곤소곤 봄을 속삭이고 있다. 잎을 갖지 않은 나무만큼 살풍경한 것은 없다. 그것이 도시의 가로수라면, 한층 더 사람의 기분을

황량하게 만드는데, 대체로 나무가 없는 경성도 이즈음에는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북악산 기슭의 고가(古家)에도 불안한 발걸음으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지금은 이미 주인도 없는 큰사랑 앞의 일찍 핀 벚꽃에 산새 한 무리가 지저귀고 있다. 작은 새는 더 이상 주물로 된 재떨이에 놀라는 일 없이 즐겁게 봄을 즐기고 있다.

“인임아, 너는 요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게냐?”

“그래도 추운 걸요.”

“바보로구나. 새가 조잘조잘 잘도 지저귀고 있는데, 그런 모직 옷을 입고 있으면, 처마 밑까지 찾아온 봄이 다시 돌아갈 게다…….”

큰사랑 주인과의 대화도 완전히 양상이 바뀌었다. 이 방 주인의 물건에도 이미 옛 주인의 체취는 없었다. 책, 책상, 서랍 등 권 노인의 생전과 그다지 다를 바 없고, 수봉도 적어도 상 기간까지는 마(麻)로 된 헐렁헐렁한 상복에, 머리에는 상관(喪冠)을 쓰고, 발에는 솜을 넣은 하얀 버선과 같은 지극히 구식 차림새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옛날의 음울함이나 완고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 어제는 잘 못 주무셨지요?”

“응, 못 잤다. 너도 깨어 있었냐?”

“아니요. 잠깐 잠이 깨서 얼핏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책은 무슨?”

“이거 말이냐? 역사다, 조선의.”

“아, 그거요? 그럼, 아버지는 오빠보다 한 걸음 늦으시네요. 오빠는 벌써 훨씬 전에 읽었는데.”

“아, 그래?”

수봉은 잠시 생각다 못한 얼굴로,

“그래, 그건 나보다도 한 시대 앞설지도 모르지. 그러면, 너는 어느 시대에 속한 게냐? 태고적 여성과는 거리가 멀고, 신여성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양이 없고, 삼대(三代)의 혼혈아쯤 되냐?”

“싫어요, 아버지. 저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구요. 시대를 초월하고 있지요.”

“그래? 그럼, 초월형 아가씨인 셈이구나.”

원래는 범해서는 안 될 문지방도 지금은 누구라도 넘을 수 있다. 가족끼리 누구라도 서로 얼굴을 대해도 좋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괜찮았다. 악의가 없는 한, 농담 한두 마디는 건네도 지장이 없는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태고적 아가씨, 시험 준비는 잘 돼 갑니까?”

수봉은 모두들 앞에서든 곧잘 그런 말로 미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헛수고일 듯싶어요. 아무래도 6, 7년이나 멍하니 있었던 터라.”

“경서(經書)에서 시험문제가 나오면 좋겠군요.”

수봉이 그렇게 말하자, 인임도,

“정말이지 결국 헛수고라고 판명되면, 금립식(金笠式)에 한번 골려줘야지.”

밤이라도 남녀가 모여 담소해도 괜찮은 것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면, 미연이 거처하는 방에도,

“실례합니다.”라고 말하고 들어가도 되는 것이다.

그래서 태고적 여성은 수진에게 무척 괴롭힘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혼자 있을 때는 삼가주세요. 공부를 하니까요.”

때로는 이렇게 얼굴을 대놓고 항의하는 일조차 있었지만, 수진은 술기가 있을 때는 싱글싱글하며 들어오는 것이었다.

나가 달라, 나가지 않겠다는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한번은 운 나쁘게 인철에게 걸려,

“뭘니까? 그 꼬락서니는…….”하고 호통을 맞기도 했다.

수진도 지고 있지는 않았다.

“뭐가 어쩐다고? 바보 같으니!”

그날 밤은 큰일로 번지지 않고 끝났다. 권 노인의 생전에는 무언가 구실을 붙여 연장해온 빌린 돈이 최근 무턱대고 독촉을 받는 터라, 그 공작을 하러 나갔던 수진이 적당한 때 돌아와 준 것이다.

“삼촌도 좀 삼가 주세요. 지금은 죄인의 처지가 아닙니까? 죄인의 몸으로 술을 입에 대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철은 그렇게 꾸짖었지만, 수진은 ‘흥’하고 콧방귀를 끼었다.

[주] 부모가 돌아가신 것은 자식이 불효한 죄라고 하여 죄인이라 불렀고, 3개월간은 주색은 물론 일체의 외출을 하지 않는 규칙이다. 상 기간은 3년으로 하여, 이 기간에는 결혼, 환갑잔치 등도 금지되었고, 외출할 때는 대나무 우산(竹傘)을 쓰고 나갔다.

그러한 감정은 그 후에도 쭉 계속되었다.

인철은 옆에서 보면 조마조마할 정도로 수진에게 냉혹하게 대했다.

“삼촌! 조금은 스스로를 반성해주세요. 이제 슬슬 자신이 칠칠치 못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해도 좋을 때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유서 깊은 청기와집도, 빌린 돈을 청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 3분의 1은 당신 거라구요!”

“당신? 이 청기와집에는 이제 손윗사람 손아랫사람도 없어졌구나. 당신? 그래, 잘도 그런 말을 지껄이는구나. 당신이라고.”

논쟁에 지자, 수진은 말 쓰임새에 트집을 잡았다.

[주] 당신은 타인칭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손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관습이다.

그러자 소향은 곧 제 자식을 편들고 나서는 것이었다.

“괜찮다, 수진아. 호랑이가 없어진 산에서는 토끼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게지.”

그렇게 말을 하는가 싶더니,

“원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게다. 인철이는 조카라도 엄연한 정실부인의 손자인데, 너는 아무리 삼촌이라도 기생 출신인 소향의 자식이 아니냐? 조금은 네 분수도 알아야지!”

‘— 이제 산음으로 돌아가자. 권태식 씨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도리가 있겠지만, 그 자손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없으니.’

몇 겹이나 되는 무대에 끼인 미연은 밤에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게다가 청기와집은 이미 옛날처럼 생활에도 여유는 없는 터였다. 수봉 이하 이 집안의 경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심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수봉은 빌린 돈 문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집에서 새삼 학교 애길 꺼내는 게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할아버지의 호의라고는 하지만, 이쪽에는 또 이쪽의 도리가 있는 게니—. 학비 정도라면, 내 저금만으로도 어떻게든 해 나갈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돈은 인숙이가 받는 것이 당연하지.’

학교 얘기가 나온 이래 인숙이 은근히 선망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미연은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다. 인숙 앞에서 그런 뻔뻔한 짓은 할 수 없다고, 학교에 가는 일에 골똘해 온 자신의 경솔함을 새삼 부끄러워하는 것이었다.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면, 지금까지처럼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산읍으로 돌아갈 것인가. 산읍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해성에게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자니, 웬지 두려운 느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옛 인연에게 삶을 맡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자포자기의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 그러나 그녀는 어디까지나 태고적 여성이었다. 미연은 자신에게 향한 운명을 결국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막상 산읍으로 출발하려니, 역시 뒷걸음질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읍에서의 슬픈 추억에 위협을 느껴서이기도 했지만, 역시 그녀는 청기와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종의 애정을 느끼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 애착을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막상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 밑바닥에서 슬픔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다.

“미연 씨, 당신은 2년 동안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말고 착실히 공부하세요.”라고, 인철은 간절히 바라듯 말했다.

“저는—저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 청기와집을 일으켜 보일 겁니다. 이 유서 있는 청기와집을 오늘날과 같은 비운에 빠트린 것은, 자손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역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잘못된 세계관, 시대를 무시한 완고함, 멍하니 있으면 지나(支那)가 어떻게 해줄 거라는 막연한 공상 탓이었습니다. 그 퇴폐적인 사상이 수진 삼촌을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무능함이 양반이고, 무위도식만이 양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하고, 그는 불타는 듯한 눈빛을 그녀에게 보이며,

“솔직한 얘기로, 일본은 지금 백년대계의 전쟁을 하고 있고, 국민의 무제한적인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청기와집에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가장은 사대사상에 이끌려 지금의 대세에 눈을 감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영미(英美)에 물들어 국가존망의 대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의 옛날에조차 우리 조상들은 조선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가를 깨달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실로 분개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할아버지의 퇴폐사상은 할아버지와 함께 묻혔습니다. 아버지도 최근

에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에도 여명기가 온 것입니다.”

미연에게는 그가 하는 말이 잘 이해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로서도 오늘날 조선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어렵듯이 알고 있었다.

“그래요, 미연 씨. 청기와집의 암흑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이제부터는 일어설 겁니다. 국가에 반항하여 집안이 번영하는 법 있습니까? 국가를 받들어 국가가 번영하지 않으면, 청기와집도 영원히 영락하는 것입니다. 미연 씨, 당신은 2년 동안 착실히 지식을 쌓아서 제게 협력해주세요.”

권 노인의 죽음과 함께 ‘손아랫사람에게는 입이 없음’이라는 규정이 깨진 것은 수봉 교수에도 불렀다. 아들은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반박해 오는 것이었다.

“아버지도 국법에 거스르지 않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여기지 말고 기꺼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전에 흥국원(興國園)에서 애국 강연을 거절당한 기분을…….”

“이제 됐다, 인철아. 그래서 나도 최근에는 엄청나게 시국 공부를 하고 있단다. 나도 네 기분을 안다. 다만 나는 내 안에 침투해 있는 옛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니.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

미연은 자신을 둘러싼 온갖 남자—도피적인 부친이나 소극적인 유해성으로부터는 느낀 적이 없는 늠름함과 믿음직함을 인철에게서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일종의 존경이었다.

1년제였지만, 인숙을 가정과에 나가게 해 준 것도 그녀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해주었다.

인숙의 노력의 효과였을까, 청기와집은 봄을 맞아 무척이나 밝아졌다. 정원 구석구석까지 청소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게까지 손길이 미쳤다. 정원의 잔디는 밭으로 일구어져, 이미 봄나물이 파릇파릇했다.

안채에서는 주부로 돌아온 수봉의 처가 아침 일찍부터 가사에 힘쓰고 있고, 이미 서모가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인임 자매도 옛날과는 달라져 있었다. 집의 밝은 분위기에 걸핏하면 침울해하거나 뼈뺏하게 보던 소향에게도 윤씨는,

“어머니.”하고 친해져 훌륭하게 꾸려나가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 도련님 생각해서 명주를 한 필 부탁했는데, 마침 손에 들어와서 갖고 왔습니다. 무척 두꺼워서 마치 소가죽 같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며느리라도 그렇게 말하면,

“그래, 어디 보자꾸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에는 파국이냐?”

“예, 어젯밤 수진 도련님이 술을 드신 것 같아서요. 어머니 드릴 국은 따로 만들었습니다.”

소향은 파를 특히 싫어했다.

인철은 최근 외출이 잦았다. 미연들과 같이 나가, 늦은 밤이나 되어서야 돌아왔다. 때로는 12시 무렵이나 되어 들어오는 날도 제법 있었다.

“인철이도 곤란해. 요즘은 외출이 눈에 띄게 늘었어. 젊은 사람이 술이나 마시고, 돈을 여기저기

뿌리고……나는 정말이지 대감의 영전에 죄송스러워서.”

소향은 며느리에게도 들으라는 듯이, 곧잘 인철의 험담을 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 아이가 지금 무언가 커다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어느 커다란 골짜기를 막아 벌판을 논으로 만든다든가 했습니다. 그러면 큰 돈이 된다고 합니다만.”

“누가 알아? 강원도가 종로도 아닌데. 매일 밤낮으로 나돌아 다니니.”

인철의 계획은 그 무렵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다. 앞으로 사흘 후, 일행이 현장에 뛰어든다는 계획으로까지 진척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곳의 백 정보나 되는 큰 벌판을 개척해서 좋은 논으로 만들고 집단농장을 설치하는 한편, 이주민 자제(子弟)를 모아 스스로 문맹퇴치에 관여할 계획이다. 잘만 되면, 삼천 사십 오백 석의 전투 식량이 나올 터였다. 당국에서도 그들의 뜻을 높이 사고, 최대한의 원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점점 본격적으로 진행 되면, 너희들에게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취사는 여전(女專) 가사과 출신, 보육은 미연 씨에게—열심히들 하고 있겠지.’

인철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이렇게 서슬이 대단한 인철의 모습도 이해(利害)를 같이하지 않는 소심한 소향에게는 시샘의 대상일 뿐이었다. 며느리나 친척들 앞에서 인철을 깎아내리는 것도, 그녀가 진심으로 인철의 소행을 의심해서는 아닌 것이다.

그녀는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는 자기 자식을 붙들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다.

“수진아! 너도 좀더 분명히 해야지. 인철이를 봐라. 그 아이는 너와 같은 나이인데도, 삶을 헤쳐 나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질 않느냐?”

“괴로우니까. 나는 외롭다구. 사실 미연은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게 그놈들의 흥계로, 나를 경계하고 있는 거라구.”

“그런 여자 따위, 큰맘 먹고 끝내려무나, 수진아. 왜 너 답지 못하게 구느냐. 그런 부모 없는 음란한 여자의 어디가 좋다고. 패기 없기는.”

모친에게 그런 얘길 듣자,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다.

“안돼, 안돼. 난 평생 그 여자만큼은 단념할 수 없어.”

수진의 이런 태도에는 소향도 애를 먹었다. 소향도 자기 자식의 성향을 모를 리 없다.

천민의 셋째 딸로 태어난 소향은 어머니와 언니의 권유로 기생에 적을 두었다가, 호령 한번에 북악산을 뒤흔들 정도의 권 대감의 권세에 눈이 멀어 기꺼이 첩이 되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는 ‘소향’이라고 막 불리고, 같은 자격을 가진 정부인으로부터는 ‘너’로 통용되었던 것이다.

“소향아, 이걸 네게 주는 거다.”

무언가를 거지처럼 받게 되면,

“예. 부인,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자기 자식도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도련님.”

그렇게 불러야 했다.

남편에게는 아랫사람과 마찬가지로 ‘대감’으로 받들고, 부인에게는 소인이나 소첩이라고 해서 자신을 낮추어야 했다. 극히 부조리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권씨 집안의 규칙이었던 것이다.

—수진이 겨우 다섯 살인가 여섯 살 때였다. 그녀는 때를 쓰며 울음을 그치지 않는 수진이 힘에 겨워 엉덩이를 찰싹 때린 적이 있었다. 그것이 큰 소동이 되었다. 첩이 권 대감의 피를 이어받은 도련님에게 대담하게 손을 댔다는 것이다.

가련한 어머니는 정부인 앞에 꿇어 엎드려야 했다.

“소향이는 잘 듣거라. 도련님은 물론 너의 배를 빌려 태어났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이다. 대감의 존귀한 피가 흐르는 도련님에게 손을 대다니, 무엄하구나. 앞으로는 일체 도련님 몸에 손대는 일은 금한다. 잘 기억해 두거라.”

권씨 집안의 규칙은 엄했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소향은 울었다. 모자의 정을 떼어놓는 것이 양반의 규칙이라는 것인가.

‘이런 양반보다는 천민 쪽이 훨씬 나을 지도 모른다. 남자의 손에서 남자의 손으로 놀림감이 되는 기생 쪽이 얼마나 인정미가 있고 행복한지 모른다…….’

그 무렵부터 소향은 양반가의 재미없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구실을 대고는 천민이나 기생 친구들과 어울렸던 것이다. 그것은 본능의 욕구였다. 소향은 매일의 세 끼 식사를 거를지언정 천민들과 서로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갖고 싶다고 생각했다.

수진이 열다섯 살 때부터 이미 여자와 가까이 지내게 된 것도, 권씨 집안에서는 기녀의 나쁜 피 탓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사실 양반 탓이었던 것이다.

양반만 살고 있는 권씨 집안에서 쓸쓸해지면, 소향은 수진을 데리고 천민들에게 놀러 나갔다.—그 것이 수진이 기생을 알게 된 애초의 기회였던 것이다.

그 후 수진은 몇 십 명의 여자와 접촉했다. 이미 한 가닥 하는 도락자(道樂者)였던 것이다. 장안의 예쁜 기생, 미녀들 치고 그를 모르는 여자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 수진이 일개 시골 여자에게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은 어찌된 일일까.

“패기 없기는!”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는, 소향은 이렇게 말했다.

“일개 사내로 태어나, 여자에게 채이고 훌쩍훌쩍 우는 꼬락서니는 뭐냐? 큰맘 먹고 손에 넣어라! 여자는 흠이 생기면, 훨씬 값이 떨어지는 게다. 그 아이라면, 떠구나 좋은 것은, 지금 세상에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태고적 여자라, 흠이라도 내면 그냥 넘어올 게다.”

‘이 집에는 그럴 기회가 없다. 도저히—.’

수진은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윽고 그들 모자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감시 역을 맡은 인철이 당분간 집을 비우게 된 것이다.

인철의 개간 사업은 만 1년간 심혈을 기울인 효과가 있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단계로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이다.

그날 청기와집은 아침부터 무척 어수선했다. 마침 일요일이기도 한 터라 가족 전원이 미리 축하 모임 준비로 몹시 바빴던 것이다. 5월 15일이라는 숫자에도 뭔가 의미를 붙이고 싶었지만, 가족 전원이 즐길 수 있다는 의미도 있어서 결국 그날을 택한 것이다.

축하 모임은 오후 1시경부터 갖기로 했지만, 출자자(出資者)이자 사업 동지이기도 한 곽(郭)과 장(張), 문(文) 이렇게 셋이 정오 전에 몰려 와서, 그것이 그대로 축하 모임이 되고 말았다. 밥상에는 불고기에 소갈비구이, 신선로가 올라왔다. 그리고 수봉도 가세해 총 7, 8명이 기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을 무렵, 진기하게도 와타나베 교수가 여섯 명쯤 되는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합석을 해서 자리는 한층 더 떠들썩했다.

“그런가? 그거 잘됐네. 이걸 실로 좋은 자리에 온 셈이군. 잘 대접받고, 오후에는 내가 한번 축하해주지.”

교수는 그렇게 말하며 끼어들다가,

“아이쿠, 이러면 안돼지. 대감에게 호통 맞을 걸.”하고 총총히 제사 올리는 대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술도 조금은 내겠지?”

“술 말인가?”

“준비해 두었지. 자네는 5시를 넘기지 않으면 마시지 않겠지만,”

5시를 넘기자 수봉과 두 사람은 술을 조금씩 했고, 청년들에게는 수봉이 마지막 한 병이라며 몰래 숨겨두었던 양주를 꺼내 한 잔씩 주었다. 술이 조금 들어가자 와타나베는,

“이봐, 장군(張君)—장군이었지. 오늘 나와 조선론(朝鮮論) 한판 벌이지 않으려나.”하고 말을 꺼냈다.

“그래, 해보지. 교수는 어떤 말을 들어도 화를 내거나 호소하지 않으니, 한번 솔직한 논진(論陳)을 펼쳐 보시게. 쇼와(昭和)의 우치다 료오헤이(內田良平)⁷²⁾도 무시할 수는 없을 걸.”

수봉도 기름을 부었다.

그 자신 이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부터 흥미를 갖고 있었던 참이기도 했다.

“쇼와의 우치다라고? 하하하하.”

와타나베는 호탕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를 쇼와의 우치다, 라고 부른 것은 인철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얼굴도 좀 닮았구나 하며 그는 혼자 감탄했다.

자신이 끼어들어 흥이 좀 깨어졌다고 느끼자, 수봉은,

“어떤가?”하고 말을 이었다.

“자네들 가운데는 이 청기와집의 사론(邪論)을 따라 지나나 영미가 자네들을 행복하게 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어떤가. 자, 한 잔.”

“수봉 선생의 지론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하고, 장이 술기운이 오르자 끼어들었다. 그는 각종 영미의 식민지정착을 비판하고, 상당히 인상 깊었던 모양인지 지나 각지의 영미 조계(租界)⁷³⁾에

72) 1885~1973, 우익 운동가. 1901년 흑룡회(黑龍會)를 조직해서 대륙 진출을 제창했고, 한일 합병 등의 이면공작에도 암약.

73) 2차 대전 전에 중국의 개항 도시에서 외국인의 거류처로 개방되었던 치외법권의 지역.

“개와 지나인은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솔직한 얘기로, 만주사변 때까지 우리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사변은 유색인종에게 동지끼리 싸움을 시키기 위해 영미가 피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이견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로부터 조선 청년층의 생각도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 회의파가 뿌리뽑혔는가 하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도—아이쿠 실례했습니다. 수봉 선생도 그 일파(一派)의 한 사람이 십니다만—.”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이 몹시도 주뻗주뻗해서 모두들 와하고 웃었다.

“앞으로의 정세와 내지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곧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와타나베 교수는 자리를 고쳐 앉았다.

“앞으로의 정세는 세계의 각 민족이 피의 흐름을 더듬어서 결합할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조상과 피를 나눈 인종을 찾아내 단결하고, 그것이 두 개나 세 개의 커다란 혈족으로 서로 대립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조선인은 어떠한 역사가에 의존하더라도 앵글로 색슨, 게르만의 혈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하지만, 피는 높은 곳으로 거슬러 오르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하고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봉을 향해,

“수봉 교수도 잘 듣게. 자네와 내 얘기는 언제나 제 눈에 물대기 식이었지.”

수봉은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그래, 그 다음은—.”

“화내지 않으십니까?”

“화를 내다니?”

“아니, 농담이었습니다.”하고 도망가는 것을 와타나베는 추격하듯이,

“얼버무리지 말게. 진짜 화난다구. 솔직히 화를 낼 만큼 바보는 아니잖아, 이 교수는. 그러니까 장군, 무슨 말이든 하게. 우리는 엄연히 똑같은 황민으로 대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곳곳이 살아 가도록 운명 지워져 있다는 것을 서로 자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이념을 파악하고 있는 동지로서, 솔직히 화내는 일 같은 건 있을 수 없어. 그래, 두 사람, 자네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군.”

“문 군은 우리들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시모노세키(下關)와 부산 근처에 조선연구회와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하고, 장은 스스로 술을 따라 벌컥벌컥 마시면서 말했다. 그는 이미 혀도 부자유스러운 듯했지만, 그래도 진지함은 잃지 않고 있었다.

“점점 더 내겐 이해하기 어렵군.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매일 두 번씩, 조선에서 살 각오로 처음 건너온 도항객(渡航客)을 모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침저녁으로 듣고 있어 여러 가지로 계몽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선이나 조선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부 내지인들이 옛 유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저녁 늦게까지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 어느 쪽도 다 만족했다. 커다란 이념에는 지금까지 피하는 태도를 취했던 수봉조차도 이것은 옳다고 했고, 다만 내선인(內鮮人)간의 감정의 매듭을 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는 강한 힘을 청년들에게서 느꼈다.

“저거야. 만사 제쳐 놓고—.”

와타나베가 가리킨 곳은 못가였다. 수봉의 막내아들인 인택과 와타나베의 딸이 낮은 배를 띄우고 즐겁게 물에 들어가 놀고 있는 것이었다.

“저 애들에게는 부정함이 없어. 자네들도 나도 완전한 동심으로 돌아가자구. 지금 그 동심으로 돌아갈 이념을 심는 거야.”

밤에는 와타나베의 안내로 영화를 보았다. 후손에게 대동아를 물려주기 위해 제물로 대륙에 흩어지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대한 정신에, 그들은 눈물을 삼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와타나베의 말을 들을 것까지도 없이, 일동은 숙연해지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인철은 경성을 떠났다.

인철이 강원도로 떠난 날 밤의 일이다. 소향은 닷새 후가 대감의 사후 49일째가 되니, 불제(佛祭)를 올리고 싶다고 갑자기 말을 꺼낸 것이다.

“내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니, 수봉도 죽은 부친의 심정을 헤아려 최소한의 비용이라면 하고 승낙을 했다.

“그래, 수진아.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니, 미연이에게 함께 가달라고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잘 해치우라구. 그러면 산읍의 땅도 굴러 들어오지. 일거양득 아니냐.”

소향은 의미심장하게 아들에게 웃어보였다.

소향이 마침내 최후의 수단을 쓴 것이다.

공양물 준비로 온 집안이 술렁거리고 있다. 최대한 50원(圓) 정도로 하겠다고 말은 건넸지만, 어렵 잡아도 백 원 이상은 넘을 것 같다.

하지만 수봉은 말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대감 재산으로 대감에게 드릴 공양물을 갖추는데 누가 인색하게 구느냐고 소향이 뒤에서 큰 소리치고 있다는 말도 들은 터에, 소향 세 모자와 함께 살날도 한 달이 채 안 남았고 하니, 모르는 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수봉은 외출에서 돌아와서는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문과 장, 두 청년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던 날의 일이 묘하게 머리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저 이념에까지 도달해 있는 것일까. 시대의 호흡일 것이다. 결국 우리들 연배가 해야 할 일은?……적어도 옛 관념의 추구는 아닐 터. 나는 낡았다. 나도 좀 더 젊어져야지.’

탁탁탁탁, 하고 도마 소리가 기세를 돋우고 있다.

그는 인철을 생각했다. 그렇게 격해 있으면서도 초조해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일부 급진 애국자처럼 선전이나 해대기보다 지극히 수수한 사업에 눈을 돌리는 등, 내 자식이지만 한참 올려다 볼 존재라고 생각했다.

‘저런 모습이 진정한 애국자일지도 모른다. 나도 언젠가 나가 주어야지.’

49제 전날 밤은 우레 소리조차 뒤섞인 소나기가 한 시간 가까이나 내렸다. 녹음의 먼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었다. 비가 그치자, 열이레 날 밤의 달이 분주할 정도로 빠르게 구름 사이를 내달렸다.

“자, 누가 누가 가 주시겠습니까?”

소향이 좌중을 둘러보며,

“글쎄. 인임 자매는 가주겠지? 그리고 미연 씨도. 수봉 교수도 가 주면 좋겠지만, 이런 여자의 미신 짓거리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지 않아도 괜찮긴 합니다. 내가 있으니.”

“그래요. 가도 괜찮습니다만—.”

“아, 그래, 그래. 당신은 그냥 오지 않는 편이 좋을 지도 모르겠네. 집주인이 오면 돈을 왕창 털릴 테니. 그럼, 인임이들하고, 미연이하고, 나, 그럼 되겠네. 하지만 여자들만으로는 좀 불안할지 모르니, 수진이 네가 가 주겠니?”

“글쎄요, 저는 내일 좀 사정이 있어서. 용서하세요. 어쩌면 나중에라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는 녀석이로군. 뭐, 좋아. 어차피 하룻밤뿐이니—.”

모든 것이 소향의 예상에 꼭 들어맞은 터라 내심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할머니, 아침 일찍이요? 일찍? 그럼 안돼요. 우리들은 내일 토요일라구요. 나는 내일이 요리 당번이라 조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나중에 삼촌과 오너라. 미연이는 대감에 대한 의리도 있고 하니, 반나절은 쉬도록 하고.”

“학교를 쉬는 건 이상합니다.”

수봉이 반대했지만, 미연은 가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휴강이 두 시간이나 되고 하니 아침 일찍 같이 가기로 했다.

5월 말의 아침은 상쾌했다.

아침 일찍 인숙은 틀림없이 낮에 데려가는 거라고 수진에게 확인을 하고는 마지못해 학교에 갔다. 그런데 드디어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가 되자, 인임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뒷일을 수봉 부부에게 부탁하고, 입분이를 앞세워 수향 모녀와 미연이, 지계꾼을 뒤따랐다.

“그럼, 다녀오세요. 함께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하고, 수진은 전차길로 헤어져 갔다.

웬지 꿈처럼 모든 것이 잘 되어가 수진은 매우 기뻐했다.

뒤쪽 북악산의 한 장(丈)⁷⁴⁾이나 되는 큰 바위 아래, 골짜기의 산촌을 내려다보고 있는 산사(山寺)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북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그다지 이름도 알려 있지 않은 작은 절이었지만, 전망은 좋았다.

산은 짙은 녹색으로 뒤덮여 있고, 골짜기의 물벼가 미풍에 나부끼고 있다. 깎아지른 듯한 암벽에 산철쭉이 타고르고 있었다. 사방식목(砂防植木)을 한 일대의 산 중턱은 흡사 아프리카 산(産) 얼룩말의 잔등을 연상케 한다.

골짜기는 깊은 침묵에 빨려들어 딱따구리가 쪼아대는 소리가 딱딱딱딱 선명하게 울렸다.

74) 약 3미터.

불전에는 초혼상(招魂床)이 차려져 있다. 위쪽은 가시덤불로 된 활 모양의 문으로 꾸며져 있고, 좌우로는 각종 떡에 각색의 진기한 과실이 놓여 있다. 가사(袈裟)를 입은 여승이 고깔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초혼사(招魂詞)를 암송하고 있다. 크고 작은 열 개나 되는 법고가 한결같은 가락으로 울리고 북 소리가 점점 기세를 올리자, 손을 감춘 여승들의 헐렁헐렁한 소매가 휩 펼쳐지는 것이다.

소향들은 나란히 머리를 조아렸고, 북소리 사이사이에 소향은 슬프고 가느다란 곡소리를 흘렸다. 여승들은 꽤 오랫동안 돌아다녔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지승인 듯한 사람이 갑자기, “상주(喪主)는 없는가?”하고, 얼마간 신성(神聲)을 닮은 듯한 목소리로 엄하게 신문하기 시작했다. “예, 오늘은 공교롭게도 병이 들어서요…….”하고, 소향은 머리를 숙인 채 대감에게 사죄하듯이 고했다.

“나는 상주 없는 공양물에는 젓가락을 대지 않는다.”하고, 대신승(代神僧)이 또 호통을 쳤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천벌을 받을 것은 알았지만, 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너희들에게 선고한다. 나는 공양물에 손대지 않겠다. 정성이 미흡하니, 공양물에 미칠 리가 없지. 나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소향은 손바닥을 비비며 사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대신승은 승낙하지 않았다. 상주를 위협하지 않으면, 돈을 뜯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영혼은 돌아가셨다.”하고, 마침내 선언되었다.

소향은 진작부터 준비한 돈을 뿌렸다. 두 번, 세 번 그것이 반복되었다.

저녁 무렵까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기자, 그제야 겨우 망자(亡子)의 화신(化身)을 보여 주었다. 산문(蒜門) 밑에 흰쌀이 포대로 덮여 있는데, 거기에 망자의 화신이 새라면 새의 발자국, 뱀이라면 선(線)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학입니다.”하고 여승은 말했다.

“대감은 생존 시에도 고귀한 분이셨기 때문에, 지체 높은 학으로 화신하신 겁니다.”

다시 북이 울리고, 여승이 무리(群)를 지었다— 그것이 한밤중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불제가 끝나면, 산 아래마을 소향의 친척 집에서 새벽을 맞기로 되어 있었다.

미연은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웬지 외로워졌다. 그래서 인임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두워져도 그녀들은 결국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 대신 이미 주위가 어두워지고,

“야, 피곤하지요. 불일이 길어져서 집에 들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하며, 수진만이 달려왔다.

“고마워요. 저는 웬지 쓸쓸했거든요.”

미연은 와주어서 진심으로 고마웠다.

소향은 의미 있는 미소로 아들을 맞으면서도,

“어찌 된 계냐? 이제야 느릿느릿 오고—.”하며 아들을 노려보았다.

또 돈이 필요한지, 북이 마구잡이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계주자(繼走者)

부채와 절망과 거기에 파산이라는 인생행로에서 최악의 바통을 부친에게 물려받은 해성은 산읍에서 돌아온 이래 앞에서 달리던 주자(走者)를 추월하기는커녕, 부친이 남긴 여러 부채 정리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지인에게서 지인으로 이어지는 채무는, 얽힌 실타래처럼 아무리 안달을 해도 앞을 찾아낼 길 없다. 이제 슬슬 정리된 듯싶으면, 전혀 이름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차용증서가 던져지기도 했다.

‘나도 더 이상 책임을 떠맡을 수 없어.’

그는 마침내 손가락을 집어던지며, 과감하게 파산을 선언해 버렸던 것이다. 아이가 목마(木馬)에 쏘는 애정을 부드러운 코시타 음으로 느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자전거까지도 이제 그의 손에는 없는 것이다.

‘이제 이것으로 별거승이가 되었다. 이제 이걸로 댔어.’

파산을 선언한 날 오후, 해성은 오랜만에 술집에 들러 마시는 데 익숙하지 않은 약주를 벌컥벌컥 사발로 세 잔이고 너 잔이고 들이켰다. 술을 마시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기분이 상쾌했다. 그 길로 두세 집 더 들러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이미 밤이 늦은 시각이었다.

준비금으로 이완규에게서 건네받은 5백 원의 자금도, 슬프게도 지금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다. 이 군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장 한 장 파란 지폐가 술로 바뀌어 갔다.

“해성아, 손님은 안 만나니?”

모친은 눈물로 그를 맞이해주었다.

“안 만나. 술이나 마시게 해줘. 술.”

“무슨 소리하는 거냐? 정신 차려라. 아버지는 네가 나가고 나서 쪽 상태가 좋지 않다. 어디로 갔을까, 해수는.—손님과 같이 너 찾으러 나갔는데.”

“손님—그런 거 깨나 물어가라고 해. 나는 이제 손님 같은 거 필요없어 졌다구. 어머니, 이제 아무 것도 줄 게 없으니—.”

사실 그는 최근 오는 손님에게 넋더리가 나있었다. 오는 손님도 그에게는 두려운 사람들뿐이었다.

술이 깨자 해성은 깊은 회한에 울었다. 이것이 유씨 일가의 유일한 계승자란 말인가. 자폭주(自爆酒)를 마시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일 것이다. 그렇게 자신에게 화를 내 보았다. 그러나 술에 취하면, 이미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뭔가 의논을 했던 사람들도, 인간의 얼굴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냉담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한 장면을 떠올리면, 벌써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다.

‘나도 아버지의 전철을 밟는 것인가—. 그리고 보니, 나도 그러한 소질을 충분히 이어 받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느끼자, 또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그는 여옥의 늙은 아버지에게 얼마간의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잊지 않았다. 오늘도 간신히 15원을 보내고는, 변두리의 선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귀가 길에 술에 취해 곤드레만드레 되자, 버릇처럼 포플러 가로수에 기대어 울었다. 그때,

“이봐, 해성이, 정신차리라구.”하는 이완규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동정자를 얻은 것 마냥 복받치는 울음에 못 이겨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이완규는 파산자 유해성에게 따뜻한 동정을 보내기는커녕, 무서운 사람으로 변신하여 뺨이고 다리고 할 것 없이 마구 때리고 차며 몸이 흐늘흐늘해질 때까지 두들겨 패는 것이었다.

“맹세해. 맹세 하지 않을 테냐, 이 바보 같은 자식아.”

‘꽝’하고 귀가 울렸다.

“자, 맹세하는 거다. 이제 절대로 술은 입에 대지 않는다고. 맹세해! 맹세하지 않으면 꽤 죽여줄 테니.”

그렇게 격분하는가 싶더니, 휘청휘청 해성에게 쓰러져서는 서로 꼭 껴안고 훌쩍훌쩍 울음을 터트리며 마는 것이었다.

해성이 술을 똑 끊은 것은 그날 밤부터이다.

이완규가 찾아오고 나서 5일째 되던 날, 해성이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바다로 나가자, 바다는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간밤의 격한 풍파와 같이 그가 그 간이역에 도착한 것은 그날 아침이었다. 가건물 대합실이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파도 소리가 싸아싸아 밀어닥쳤다.

이완규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와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다.

해성은 일부터 해변을 따라서 걸었다. 부친이 과거 수년간 비분의 눈물로 적셨을 모래를 저벅저벅 밟고 가자니, 슬픈 여러 가지 추억이 가슴에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술숲을 지나자, 이제 어촌의 초가지붕이 대합조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구장(區長)네 집 국기대(國旗臺)와 종(鐘)도 보였다. 구장네 뒤쪽의 돌담 집이 부친이 신세를 지고 있던 김삼보 노인의 집이다. 노인은 마른 해초로 비올 때 쓰는 삿갓을 엮고 있었다. 양 무릎을 세우고 무릎 머리에 반 정도 완성된 삿갓을 입혀 놓은 모습은 얼핏 달팽이를 연상시켰다.

“어이구, 오랜만입니다. 부친은 건강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요 며칠이래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부친의 상태를 질문 받고 그는 잠깐 어두운 기분에 휩싸였다.

해성은 이번에 자기가 오더라도 김 노인의 집에 신세를 질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마음을 바꾸었다. 웬지 아침저녁으로 부친의 비참한 환영(幻影)에 쫓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두 세 마디 바다에 관한 얘기와 어황(漁況)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바다로 나갔다.

바다는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거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큰 산과 같은 파도라고들 하는데, 이게 바로 큰 산이다. 바다는 저렇게도 노여운 것일까. 마치 격렬한 고문을 견디기 어려워, 미친 듯이 발버둥치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해성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李)는 북행(北行) 제1번 열차로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낮 무렵의 2번 열차로 왔다. 그것도 겨우 시간에 맞추었다고 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또 결투를 했어.”

“곤란하군. 자네 부인도.”

해성은 이미 왼쪽 눈두덩의 파란 멍을 알아보았다. 인간— 특히 여자의 예의범절 교육은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저 패기, 저 저돌성으로도, 지기 싫어하는 여자에게는 질 수밖에 없는 듯했다.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어구(漁區)는 이전에 해성의 부친이 실패했던 어구의 바로 옆자리이다. 처음에는 1년에 1천 원이라고 큰소리치더니, 칠백 원으로 순순히 양보해주었다.

잠자리는 어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옆 마을로 했다. 지금은 반은 농사를 짓고 반은 고기를 잡지만 내년쯤에는 농사만 짓고 싶다고, 이미 60가량 되어 보이는 주인은 말했다.

“당신들의 소문은 들었습니다. 나는 상당히 감탄했어요. 부친의 대를 이어, 그것을 만회해보이겠다는 패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거든요. 나는 간밤에도 당신들 얘기를 하며 내 자식을 훈계했지요.”

한문서당에라도 다녔었는지, 주인은 그렇게 말하며 그를 격려해주었다.

잠자리가 정해지자 이는 먼저 돌아갔다.

“확실하게 투지를 기르게.”

“응.”하고, 그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

형제섬이 파도에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고 있다. 점점 파도는 최고로 높이 일어 밀려와서는 발밑의 육지를 물었다. 그럴 때마다 유리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그것이 문득 그를 비웃는 듯이 들렸다.

“두려울 걸? 두렵지 않아? 억지로 버티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게 어때? 네 아버지를 생각해봐. 그래도 안 두려운가? 저런, 얼굴이 새파래지는군.”

“바보!”하고, 그는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건방진 놈!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구나.”

“뭐야, 이 쫓내기…….”

이렇게라도 말할 작정인지, 바다는 소나기 같은 비말(飛沫)을 머리 위로 퍼부었다. 그리고 또 하하 하하, 하고 웃는 것이었다.

이튿날부터 유해성과 바다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유는 반바지에 셔츠 한 장의 가벼운 차림으로,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바다를 향해 도전해 갔다.

슬슬 정어리 출어기이기도 하다.

“기운 내게. 아버지 원수를 갚아줘야지.”

바닷가에서 만난 구장이 그렇게 격려해주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럴 각오입니다.”

“아, 정말이지 해성 씨는 훌륭해!”

그는 용감하게 바다로 나갔다.

바닷가에는 몇 척의 목선이 대기하고 있다.

“그물주(主)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도 건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뱃사람이나 그물잡이들은 젊은 그물주를 에워싸고 축하의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주인 나리, 한 잔 어떻습니까?”하고, 어적(漁笛)을 잘 하기로 동해안 일대에 이름이 난 어부가 불쑥 잔을 내밀었다. 해성은 잔을 받아들고 높이 들어올리며,

“여러분, 아무쪼록 잘 견뎌 주십시오. 나도 술을 좋아하지만, 친구와 약속한 터라 당분간 마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잔을 되돌려 주었다.

웬지 연기 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 앞에서 그렇게 양해를 얻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어부와 그물잡이들의 버릇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구실만 있으면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러한 구실은 어디에서건 손쉽게 가져오는 것이다. 고기가 잘 잡히면 그것이 좋은 구실이 되고, 고기가 잘 안 잡혀도 또 그것이 구실이 되었다. 바다가 거칠어지면 거칠어졌다고 마시고, 달(月)이 좋으면 달이 좋다고 마신다.

그러니까 해성이 그물을 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계절로 보면 때 늦은 청어 떼가 몰려와, 뜻밖에 고기가 많이 잡혔던 날 밤, 그들은 짧은 봄밤을 새워가면서 술을 마셨다. 이튿날도술자리가 이어지고, 차차 아무 생각 없이 밀어닥치곤 했다.

“더 이상은 안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는 한 푼 안낼 테니, 모두 해산하십시오.”

해성은 목청을 높이며 손을 저었다.

사람들은 두 젊은 주인을 몹시 애먹이고 겨우 해산은 했지만, 밤이 되자 대표쯤 되어 보이는 두 사람이 숙소까지 찾아와서 어려운 문제를 얘기 했다.

아무 생각 없이라고는 해도, 뼈를 으깨며 일한 노임 아닌가, 그것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상하다는 것이다.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고향에는 늙은 부모와 처자식들이 여러분이 보내주는 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돈이 생겼다고 한꺼번에 술을 마셔 버리면, 땀 흘려 번 보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 반응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은 나날이 해성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소주가 없으면 도박을 했다. 그러나 그는 굽히지 않았다. 해성은 그들의 음주와 도박은 그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야학을 시작하고 『춘향전』, 『을지문덕전』 같은 소설책을 나누어 주었다. 여름 무렵에는 상당히 반응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여기에 육지로부터 악마의 손길이 뻗쳐와 출어진(出漁陣)은 점점 무너져 갔다.

그곳에서 10리쯤 떨어진 산기슭에 개간사업이 벌어져 인부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 인부 모집인이 그림자처럼 어촌에 몰려와, 철새 같은 그물잡이들은 속속 개척사가 되어 사라져 갔다.

거기에는 해성으로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개간 회사의 인부 빼내기는 대담하고도 악랄했다. 바다에 생명을 거는 일은 도박행위다, 개간은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닌가, 게다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도 빌려준다.

“옛날부터 어부라는 게 안정되지 않은 생업이었지. 요즘 언제 잡힐지도 모르는 정어리나 청어에

가족의 생명을 걸고 멍하니 있는 당신들의 생각을 모르겠어. 그물을 던지는 것보다는 금 캐는 쪽이 훨씬 확실하지. 어때,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유혹해 오면, 금방 마음이 들뜨는 것이다.

어부로서 상당히 굳건한 무리들도,

“정말이지 언제까지 바다를 상대해서는 도리가 없지. 한번 개간지에 가볼까 싶어.”

두세 번 말하는 가운데 바다에서 사라져 갔다.

“오늘도 두 사람 갔다.”

해성은 이완규의 얼굴을 보고는 비통한 목소리를 냈다.

“누구지, 오늘 간 사람은?”

“둘 다 가불조야. 정말 나쁜 짓을 하는군. 놈들이 와서는 가불한 놈들만 주목하고 있어.”

바다에는 옛날부터 가불제도가 있다. 최저 50원에서 2, 3백 원까지이다. 그 돈을 봄부터 겨울에 걸쳐 번 배당에서 공제해 가는 것이다.

노임제도도 옛 제도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주인이 어획량의 5할, 선부와 망꾼이 2할, 나머지 3할이 그물잡이에게 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해에는 그물잡이조차 천 원이라는 큰 돈을 쥌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대신 고기가 잡히지 않는 해에는 한 푼의 배당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부 모집인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점이다.

“가불조를 주목한 건 잘 생각한 거야.”

이완규가 말했다.

“그래. 가불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몸이 무겁겠지. 그래서 그런 달콤한 얘기를 듣지 않아도, 기분만이라도 도망가고 싶어 거야. 거기에 달콤한 얘기까지 들으면, 금방 마음이 들뜨는 거지. 무리도 아니야.”

그러나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근처 어느 어구에서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방법은 단 한 가지였다. 경찰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성은 이천 원 가까이 가불을 뿌리고 있었지만,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았다.

“대체, 그 개간 사업은 어느 회사에서 벌이는 건가?”

해성도 소문이 제각각인 터라 알지 못했다.

“소문으로는 출자자가 네 명이라든가 하더군.”

“그럼, 버젓한 회사도 아니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한번 뛰어드는 거지. 그렇게 해버려. 첫째, 이상하잖아? 가족을 부양한다든가, 이익 배당을 한다든가, 모두 영터리가 아닐까. 그런 걸로 민심을 선동한다든가 해서—.”

“아니, 이외로 영터리만도 아닌 것 같아.”

해성은 쓴별레 씹는 얼굴을 하고는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리면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도 생각하고는 있다.

7월경에는 그물잡이 대부분을 빼앗겨 출어(出漁)도 불안해졌다. 개간하는 쪽에 사람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근처의 어업자들이 맞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다.

“도대체 그 개간장은 얼마나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해성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몇 사람이든 싫다고는 않는 눈치야.”

“그렇게 대규모란 말인가. 도대체 어디 부근인가, 거기가—.”

“나도 잘은 모르지만, 설악산 기슭이라더군. 골짜기를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고, 초원을 개척한다고 하던데.”

“그럼, 천 명 정도로 어림없겠군.”

나날이 어부들의 가불금은 올라가는 추세다. 겨우 백 원 안쪽이었던 것이 4, 5백 원을 부르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소자본을 가진 해성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동해안 일대의 철새 어부는 모두 모아도 천 명은 안 되었던 것이다.

번민하던 며칠인가가 지나고, 해성은 근처 소자본 어업자들과 만나 인부 획득 협정을 맺었다. 개간 회사에 대해 공동전선을 펼 것. 향후에는 일체 어업자 동지의 인부 뺏기 금지 및 가불금을 최고 2백 원 이내로 제한할 것 등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감쪽같이 속았다. 여름 중순 무렵 그들의 주위에는 이미 그 고장 출신 어부 몇 사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빌어먹을, 잘도 배신을 했구나!”

그 사실을 알고, 그는 열화와 같이 분개했다. 하지만 아무리 분개해 본들 하는 수 없었다. 유일한 길은 그들과 맞겨룰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만드는 것이다.

“어떡하지, 이 군. 좀더 어떻게든 할 수 없을까?”

“당장 얼마쯤 필요한가?”

“대강 3천 원은 필요해.”

“헛일이야. 이미 5천 원은 들어갔어.”

5천 원의 자금이 이미 대부분 결손이 난 것이었다.

“그건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손을 빼면, 그 5천 원도 죽은 돈이 되어 버리잖아. 이제부터 여기(漁期)가 아닌가. 어떻게든 한번 은행에 교섭해주지 않으려나?”

“가보기는 하겠지만— 아마 헛일이지 싶군. 지금은 대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니.”

그렇게 말하고 이는 마지못해 산읍으로 돌아갔지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엽서 한 장 오지 않았다.

그때 해수가 뜻밖의 의논을 해왔다.— 헤영과의 혼담을 지금 한번 재고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형님의 결혼에 이러니저러니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폐인에 가깝고, 형님들 사업도 더 이상 어찌지도 못할 상황이고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요. 형이 돌아오면, 저는 떠날 생각입니다.”

“집을 나간다고? 나가서 어쩔 건데?”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

“예, 형에게 의논도 없이 나쁘다고는 생각했지만, 저는 벌써 지원서를 내 둔 상태입니다.”

해성은 뭔가 아이에게 손바닥으로 뺨이라도 맞은 것 같은 심경이었다. 조선인에게 육군 지원병제도가 제정된 순간, 그도 적잖이 당혹했던 것이다.

그 무렵 그는 학교에 나가고 있었다. 아동들에게 지원병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인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목표로 전선의 용사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노고를 거듭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동안 문득,

‘시골교사라니, 나는 어쩌서 아무런 보람도 없는 직업을 택했을까.’하고, 골똘히 대륙을 정복하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성은 우선 나이가 적령기를 지나 있었다. 체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는 해도 결국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은 용기가 부족했다는 사실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동생은 그 용기를 일으켜 이미 지원한 것이다.

“어떠냐, 네 심경을 들려줄 수 없겠니?”

“심경이라뇨?”

“정복하겠다고 마음 먹은 동기 말이다.”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면, 정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확고한 신념도 없이, 그저 병사가 된다는 일종의 허영심에 사로잡혀 커다란 사명에 오점을 찍는 예를, 그는 보아 왔기 때문이기도 했다.

“저는 어려운건 잘 몰라요.”하고, 해수가 대답했다.

“어려운 건 잘 모르지만,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소학교 때부터, 너희들은 폐하의 적자(赤子)다, 대일본제국의 신민이다, 천황에게 충의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워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지나사변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게 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숙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조선의 행복은 어능위(御稜威)에 응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병 제도가 발표되었지요.

해수는 아직 청년기에 막 접어든 무렵이었다. 그 후 이 정도의 신념이 생겼는가 하고, 해성은 놀랐다.

“저는 지금 부정함에 대한 증오로 불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게 대륙을 정복할 수는 없을 지도 모릅니다. 대륙을 정복하지 못하면 국토를 지킨다! 조만간 우리들은 영미와 일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한 경우를 상상했을 때, 무엇으로 외적을 방어할까 생각하면 소름이 오싹 돋아요. 고무 끈에 검은 콩으로 적기(敵機)를 공격할까요. 후후후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 말이지요.”

해수가 돌아가자, 해성은 산음으로 돌아갔다. 이완규도 눈물을 삼키고 거의 단념했다.

“이렇게 되면 고집이니, 나는 집을 함께 팔려고까지 생각했네.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하지만 기다리게. 뭐든 해야지.”

그는 또 바다로 되돌아 왔다. 바다는 그를 확인하기가 무섭게, 일부러라도 그러는 것처럼 거친 파

도를 일으켰다. ‘씩씩’ 하고 부서지는 파도소리가 그에게는 마침내,

“어떠냐, 이제 행복하지 않으련? 하하하.”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 나왔다.

“행복이라고? 결코 행복하지 않는다! 해수는 육지, 나는 바다다. 기필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 보이겠다!”

이를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맞아도 좋다고까지, 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엿볼 수 있다면 개간지 쪽으로 우회하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한여름이라도 설악산 꼭대기는 많은 눈이 있었다. 북쪽에 백두산, 중간에 설악, 남쪽에 지리산, 그렇게 불리는 고산(高山) 가운데 하나다.

그 어느 기슭에,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절망에 가까운 위치에서 조상으로부터 바통을 물려받은 한 사람의 계주자가 있다.

인철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경우는 해성들과는 상당히 얘기가 달랐다. 그들의 5천 원에 비해 인철들은 10만 원이라는 거금이 움직이고 있다.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부터가 그러했다. 이완규가 겨우 3만 원 정도의 소지주인데 비해, 인철들의 개간사업은 남조선의 다액 납세자로 지나사변 발발과 동시에 육해군에 각 25만 원씩의 군사 자재비 납세자로 알려져 있는, 장완계 씨의 외아들과 대구에서 으뜸가는 은행가 문익수 씨의 차남을 끼고 있다. 인철과 대학 동창인 곽대성까지 모두 합하면, 십만 원 하나는 되는 것이었다.

아니, 그 뿐만이 아니다. 해성들의 어업이 일종의 고집에서 출발했다면, 인철들의 개간사업은 최고의 과학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장현일은 농과대학, 문탁은 고등공업을 나온 변종(變種)이다. 곽대성과 인철은 문과 출신이지만, 상당한 지식을 갖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농대에 고등공업, 거기에 문학사—제대로 갖추어진 셈이군요.”

드디어 일에 착수하게 되어 이것저것 힘이 되어준 산업과에 인사하러 가니, 과장이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실제로 도(道) 차원에서든 당신들과 같은 지식층이 나와 주면 기쁩니다. 이제까지도 여러 사람들로 부터 출원(出願)이 있었지만, 모두가 브로커가 아니면 돈에만 눈이 어두운 벼락부자들이었습니다. 사람과 자금, 그리고 기술, 이 세 부문을 갖추고 일에 매달리면, 반드시 성공하겠지요. 역시 당신들은 훌륭합니다. 국가를 위해 크게 일해주십시오.”

당국이 이 정도까지 힘을 보태주는 것도, 인철들의 강점인 것이다.

“저 초원 오른쪽에 약 2만 평 정도 되는 숲이 있으니, 그것도 가능하면 맡아 주지 않겠습니까? 당국으로서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논만 해도 50만 평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었다. 그러자 고등공업 출신의 문탁이,

“아주 좋습니다! 저 산은 최고 삼백 미터밖에 안 됩니다. 아래 쪽 3할은 논으로, 5할까지는 밭으로

갱생시킬 수 있습니다.”

농학사 장현일도 즉각,

“솔숲이라고 해도, 최고 13년에서 5년 된 소나무였습니다. 그것도 일만 그루가 안 됩니다. 나머지 9할은 상수리나무와 떡갈나무, 졸참나무 등 각두과(殼斗科)에 속하는 낙엽 교목이고, 나머지는 산 뱀나무나 단풍나무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세한 걸 보니, 이미 주목하고 있었군요, 하하하하.”

과장은 사람 좋은 노인네처럼 웃었다.

주목하고는 있었지만, 솔숲은 의외의 수확이었다.

만사 이런 식이라, 인철은 좋은 음악을 듣는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걸 알았으면, 이제 5만 원 정도씩 증자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 제군들.”

문이 일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인철이,

“이봐, 자네들은 증자를 할 수 있으니 괜찮지만, 나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으니 더 이상 증자도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게 말하고 풀이죽어있자,

“이봐, 괜찮아. 다행히 자넨 눈도 손도 발도 각각 두 개씩 갖고 있으니.”

네 사람은 배를 잡고 웃었다.

환멸과 절망에 휩싸여, 하루 종일 바다로부터 비웃음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의계주자에 비해, 이것은 얼마나 명량한 광경이었던가.

“광.”

“우르르, 광!”

여름밤이 하얗게 밝아올 무렵부터, 험준한 산과 인간 사이에 희대(稀代)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태산 설악도 꿈쩍 앓을 거대한 암석 폭파가 여기저기서 행해진다.

“광광, 우르르!”

“영차, 영차! 네가 멈추면 영차, 일만 석 옥수(玉水)가 영차, 영차! 저수지에 고일 때, 영차.”

석재 운반부의 노랫소리가 맹호처럼 울부짖는 거대한 바위에 속삭인다.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데, 소곤소곤 얘기 소리가 흘러나온다.

“자네, 간밤의 얘기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정말이라고 생각하나?”

“정말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자넨 역시 진심으로 믿는구먼?”

“그래, 진심이야. 그 주인 양반은 거짓말은 안 해. 훌륭한 사람이라구.”

“훌륭하고말고. 그건 나도 알아. 이렇게 보여도 내겐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십장(什長)과 한패가 되어 째짜미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쩐가?”

“자넨 의심이 많구먼.”

“그런가. 그게 정말이라면 훌륭하지. 젊은 사람들이.”

이들은 노송나무 대목(大木)에 톱을 켜는 별목꾼이었다. 푸념을 하는 쪽은 이미 환갑의 나이이다.

간밤에 인철들은 인부들을 모아놓고, 완성할 때까지 공사에 종사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논 2천 평에, 밭 천 평씩, 30년 배당으로 나누어 준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럴 경우, 그 대금에는 공사비와 금리가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들은 신계 멩세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니 예정이 아니라,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네 사람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일하는데도 경작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이고, 둘째가 우리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들 네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은, 결국 국가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들 네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에게서 국가에서 정해진 공정가격 외에 결단코 단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인철이 말을 마치자, 와 하고 환성이 일었다.

누가 시작했는지 박수를 쳤고, 수건과 모자가 저녁 하늘 높이 던져졌다.

“저 양반, 정말 훌륭해. 내 막내딸은 아직 저런 녀석에게 주지 못했어. 저런 양반에게 딸을 주면 좋으려만.”

“아직 독신이야. 이 다음에 장가가면 주게나.”

“첩 말인가? 첩은 죽어도 싫어.”

“싫으면 하녀로라도.”

“바보 같은 녀석!”

와 하고 웃음소리가 일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미소를 짓게 하는 광경이었다.

인철은 행복했다. 그는 인부들이 작은 돌 하나, 가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눈물이 나올 만큼 기뻐했다. 그가 그런 광경을 세세히 인임에게 써서 보냈더니, 어느 날 저녁 무렵,

“시찰단 내일이나 모레 도착. 마중 나올 것.”하는 전보가 날아들었다.

아침에 맞이하니, 시찰단원은 모두 5명이었다.

수봉 형제에 인임 자매와 미연.

수봉 형제는 반바지, 인임 자매는 흰 저고리에 검은 시트의 짧은 치마, 미연만이 교복을 입지 않고 상하 흰색이다. 다섯 명 모두 농구화를 신고 있었다.

“어때, 일은 순조롭게 되어 가느냐?”

수봉이 물었다.

“예, 예상보다는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초 공사 중이어서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냐?”

“문 군의 얘기로는, 3년이면 완성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4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 공사로구나.”

인철은 수봉에게 두 세 마디 할머니의 건강을 여쭙고, 수영도 같이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다.